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제4 간빙기(第四間氷期)』론
- ‘신’인류를 둘러싼 대립양상을 중심으로 -

裴 瑞 英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2024年 2月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제4 간빙기(第四間氷期)』론

- ‘신’인류를 둘러싼 대립양상을 중심으로 -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裴瑞英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指導教授 蘇明仙

裴瑞英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23年 12月

審査委員長

林相珉

委

員

전 은 숙

委

員

손 나 지

委

員

박 려 옥

委

員

蘇明仙



아베 고보(安部公房)의 『제4 간빙기(第四間氷期)』론

- ‘신’인류를 둘러싼 대립양상을 중심으로 -

배 서 영

제주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요약

본 논문은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장편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아베 고보의 『제4 간빙기』를 오늘날의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분석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대립 양상과 그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당시 일본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에 대해 고찰한다.

아베의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변신 모티프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변신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아베의 소설은 설화나 옛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것과,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개조되는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변신 모티프가 인간에 의한 인간 개조 형태로 나타나며 SF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은 로봇화된 인간이 등장하는 『R62호의 발명』부터이다. 이후 「맹장」에서는 인간의 몸에 초식동물인 양의 맹장을 이식하여 인간의 초식동물화를 시도하였고, 「남의 알」에서는 스스로를 ‘식물인’으로 개조한 인간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제4 간빙기』에 이르러서는 수생인간이라고 하는 개조된 인간이 등장하고, 기존의 인간과 교체된 수생인간은 ‘신’인류로 부상하게 된다.

『제4 간빙기』에 등장하는 수생인간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개조된, 기존의 인간보다 신체 성장과 지능이 발달 되어 있는 존재로 ‘과도기의 인간’에 해당하는 트랜스휴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소설에 예언기계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존재로 인간의 존재를 해체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4 간빙기』에서는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학적 소재와 지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은 소련의 트로핌 리센코가 제창한 미추린 생물학의 이론에 부합하며, 수생인간 아이들을 훈련하는 과정은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수생인간을 만들고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당시 소련에서 제창되어 연구가 진행된 과학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예언기계에 대한 발상은 미국의 전자계산기 기술에 기인하고 있다. 예언기계 개발을 둘러싼 경쟁 구도는 당시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우주경쟁을 투영하고 있으며, 미국에 의해 예언기계개발에 제약을 받는 주인공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 미국과 우호 관계에 있던 일본의 위치가 반영되고 있다.

아베의 문학에서 변신 모티프 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는 인간 혹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계’를 둘러싼 문제로, 『제4 간빙기』에서도 수생인간의 생산과 육성을 둘러싸고 여러 관계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해저개발협회라는 조직은 수생인간을 만들기 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금전을 대가로 낙태 수술을 받도록 유도하여 낙태된 태아를 회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전 후 전후 부흥의 경제적 이득 잠식을 우려해 낙태를 대책으로 내세운 일본의 관료와 재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조작하고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조직의 모습을 통해서도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 조직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직 내부에서 정·재계와 수생인간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 사이에 사상적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통해 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 현장의 윤리 의식 결여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조직에 반대하는 ‘나’를 통해서도 다각도의 논의와 검토 없이 권력이 중심이 되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상을 강제하는 행위의 문제성이 조명되고 있다.

아베는 『제4 간빙기』에 예언기계를 등장시킴으로써 인간과 컴퓨터 기술이라는 새로운 관계 양상을 그리고 있다. 해저개발협회는 가정된 조건을 적용하여 독단적으로 예언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예언치의 오차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피드

백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과를 강요 한다.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자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통제의 도구로서 예언기계를 악용하는 협회를 묘사함으로써 기술 활용에 있어 주체의 중요성과 기술 활용의 목적, 방향성,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고 보았다.

수생인간은 기존의 인간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피지배계급에 위치해 있었다. 미래 예언에서 기존의 인간과 수생인간의 관계는 역전되며 주체와 대상의 변화만 있을 뿐 지배·피지배 계급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답습된다. 뿐만 아니라 수중사회 내부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억압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아베는 개인을 억압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구도를 민주주의 사회인 현재 시점과 공산주의 사회인 미래 시점에 공통적으로 그려내며, 체제에 관계 없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개인을 억압하고 활용하는 권력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아베는 『제4 간빙기』를 통해 수생인간이라는 ‘신’인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립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와 일본의 위치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 외부를 변화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바꾸는 수동적 변화만을 고집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일례를 소설을 통해 제시하고, 미래의 디스토피아 수중사회를 그림으로써 과학 기술의 개발과 발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하는 주체와 방향성, 방법 등이 올바르지 않을 때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을 그려내고 있다.

목 차

국문초록

1. 서론	1
2. ‘신’인류의 유형	
2-1.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	10
2-2. 수생인간과 예언기계	17
3. ‘신’인간의 탄생 배경	
3-1. 과학 기술과 문학의 융합	34
3-2. 인공위성과 우주시대 개막	48
4. 내재하는 대립	
4-1. 개인을 파괴하는 조직	56
4-2. 교차하는 대립 양상	68
5. 설계된 미래와 잔존하는 대립	
5-1. 통제의 도구로서의 예언기계	82
5-2. 미래의 인류와 수중사회	94
6. 결론	105
참고문헌	110
Abstract	117

1. 서론

아베 고보(安部公房 : 1924~1993)의 『제4 간빙기(第四間氷期)』는 잡지 『세계(世界)』에 1958년 7월부터 이듬해인 1959년 3월까지 연재되었고, 같은 해 7월 고단샤(講談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아직 일본에서 SF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에 발표된 『제4 간빙기』지만 현재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장편 SF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제4 간빙기』는 「서곡」, 「프로그램 카드 No.1」, 「프로그램 카드 No.2」, 「간주곡」, 「블루프린트」 순으로 나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중 「프로그램 카드 No.1」은 1장부터 22장까지, 「프로그램 카드 No.2」는 23장부터 34장까지, 「블루프린트」는 35장부터 38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기계와 육생동물을 개조해서 수생동물로 만드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언기계 연구는 주인공인 ‘나(私)’가 담당하고 있고,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개조하는 연구는 해저개발협회라는 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해저개발협회의 수생동물 개조 연구의 목적은 수생인간을 만들어 해저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예언기계를 통해 예언된 미래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것이다. 수생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되는 것은 임신 3주 이내에 낙태된 태아이고, 초기 수생인간의 탄생과 육성은 인간에 의해 관리된다. 그러나 작품 말미의 「블루프린트」에서 예언기계가 보여준 미래영상에 따르면 인간이 수중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수생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역전된다.

인간이 기존의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변신 모티프는 아베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 변신 모티프를 다룬 아베의 소설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설화나 옛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에 의해 직접적으로 개조되는 것이다. 후자의 양상에서 인간은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어 미래 사회에 자리 잡은 ‘신’인류로 묘사되기도 한다.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변신 모티프를 다룬 아베의 소설로는 주로 『덴도로카카리야(デンドロカカリヤ)』(1949), 『S·카르마 씨의 범죄(S·カルマ氏の犯

罪』(1951), 『바벨 탑의 너구리(バベルの塔の狸)』(1951), 『마법의 분필(魔法のチョーク)』(1951), 『수중도시(水中都市)』(1952) 등을 들 수 있다. 『텐도로카카리아』는 아베의 소설 중 최초로 변신 모티프를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 ‘고몬 군(コモン君)’은 텐도로카카리아라는 식물로 변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식물원에 전시된다. 이후에 발표된 소설 속에서 인간은 동물, 투명인간, 누에고치, 벽 물, 막대기 등 생물에서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변신 모티프가 인간에 의한 인간 개조 형태로 나타나며 SF적 성격을 띠게 된 것은 1953년 발표된 『R62호의 발명(R62号の発明)』부터이다. 아베는 『R62호의 발명』에서 로봇화된 인간을 등장시켰고, 1955년 발표한 「맹장(盲腸)」에서는 인간의 몸에 초식동물의 맹장을 이식하여 인간의 초식동물화를 시도했다. 그리고 1957년 발표한 「납의 알(鉛の卵)」에서는 스스로를 ‘식물인’으로 개조하여 기아 문제를 극복한 미래의 인류를 그리고 있다. 『제4 간빙기』에 이르러서는 재해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수생인간이라는 개조된 인간이 만들어졌으며, 기존의 인간과 교체된 수생인간은 ‘신’인류로 부상한다.

아베 문학에서 변신 모티프 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는 인간과 공동체와의 관계, 도시와 인간과의 관계,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¹⁾와 같은 식으로 전개되는 ‘관계’를 둘러싼 문제이다. 그리고 여러 관계 양상 속에서 특히 공동체는 개인을 억압하여 자유를 빼앗거나 노동을 강요한다는 공통된 성격을 지닌다. 『제4 간빙기』에서 묘사되는 개인과 조직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공동체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중조직이라는 구도를 통해서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관계 양상을 설정하고, 공동체의 최상위 단위가 단순히 국가나 정부가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구도의 복합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4 간빙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와 관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SF 장르라는 새로운 문학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제4 간빙기』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 장편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처음부터 아베가 SF라는 장르적 특성을 의식하고 소설을 집필한 것은 아니다.²⁾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아

1) 이정희 (2008) 『아베 고보 연구』 제이앤씨, p.25

베가 SF 작품을 쓰게 된 배경에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평면적이고 미시적이며, 일상적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미래라는 시대 설정을 통해 그 본질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³⁾

아베는 『제4 간빙기』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그리고 있다. 오늘날 기상이변은 일상화된 인류 공통의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집중 호우, 고온 현상, 폭설, 가뭄 등과 같은 여러 형태의 기상이변은 어느 한 지역과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은 범지구적인 현상으로 전 인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류는 기상이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원인과 예방법을 연구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아베는 이처럼 기상이변에 대한 문제가 심각화되기 전인 1950년대 후반에 『제4 간빙기』를 통해 자연재해를 그림으로써 인류가 직면하게 될 문제를 예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4 간빙기』에서는 과학 기술로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개조된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로 만들어진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제2차 예언치의 존재가 그려지고 있다. 기존의 인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인류는 ‘신’인류 혹은 포스트휴먼(posthuman)⁴⁾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상이변 문제와 함께 현 인류의 공통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진화론 이후 인간은 자연선택의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 정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유전공학과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은 인위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실용화됨에 따라 오늘날의 인류는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간과 기술 그리고 자연 간의 관계를 모색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휴먼⁵⁾으로,

2) 오쿠노 다케오(奥野健男)는 『세계 SF전집 27(世界SF全集 27)』 아베 고보 편 해설 「아베 고보 —그 사람과 작품—(安部公房 —その人と作品—)」에서 아베가 SF를 의식하고 집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4 간빙기』를 SF적인 작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아베의 『제4 간빙기』에 의해 일본에서 SF 장르가 개척되었으며, 만약 『제4 간빙기』가 없었다면 일본의 SF는 현재의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安部公房 (1974) 『世界SF全集 27 安部公房』 早川書房, pp.483-485 참조

3) 상계서, p.485 참조

4) 포스트휴먼은 본래는 ‘신’인류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상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두 갈래로 나뉘게 되고, 각각이 주장하는 포스트휴먼 상에서도 차이를 지니게 된다.

아베는 이와 같이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제4 간빙기』에서 포스트휴먼적인 존재를 등장시켜 미래의 인간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아베 고보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변신 모티프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인 단편집 『벽(壁)』(1951)에 수록된 『S·카르마 씨의 범죄』나 『붉은 누에고치(赤い繭)』, 그리고 실종 삼부작으로 불리는 『모래의 여자(砂の女)』(1962), 『타인의 얼굴(他人の顔)』(1964), 『불타버린 지도(燃えつきた地図)』(1967)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제4 간빙기』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 장편 SF소설로서, 이러한 사실 만으로도 소설과 작자 아베는 일본 SF 역사상에 빛나는 개척자로서 불멸의 이름을 새겼다⁶⁾고 할 만큼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 문헌은 한국과 일본을 모두 합해도 스무 편 정도에 불과하다.

『제4 간빙기』에 대한 연구는 1959년⁷⁾을 시작으로 1997년까지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2011년에 들어 새로운 논문이 발표될 때까지 정체기에 놓여있었다. 아베의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다나카 히로유키(田中裕之), 도모다 요시히코(友田義行), 도바 고지(鳥羽耕史), 사카 겐타(坂堅太), 이정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제4 간빙기』에 대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도바 고지와 사카 겐타이다.

도바 고지는 1997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제4 간빙기』에 대해 고찰했다. 1997년 발표한 논문⁸⁾에서는 『제4 간빙기』를 크게 미국의 사이버네틱스(예언기계)와 소비에트의 미추린 생물학(수생인간) 사이에 놓인 일본을 조명하고 있다고 보았다. 주인공인 ‘나’는 기술을 중시하는 미국적 인물로, 요리키는 소비에트적인 인물이며 수중의 혁명을 지원하는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분석했다.

5) 포스트휴먼은 본래는 ‘신’인류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상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두 갈래로 나뉘게 되고, 각각이 주장하는 포스트휴먼 상에서도 차이를 지니게 된다.

6) 오쿠노 다케오는 『세계 SF전집 27』 아베 고보 편 해설에서 일본 뿐만이 아니라 소련의 세계 SF명작 시리즈에도 간행되어 수십만 부가 판매되는 등 현대 SF 수준을 뛰어넘은 문학적 명작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安部公房 (1971) 전거서, p.483 참조

7) 본격적인 작품 연구로 보기는 어렵지만, 1959년 『신일본문학(新日本文学)』에 발표된 다키 시게루(田木繁)의 논평이 있다. 田木繁 (1959) 「海底のイカルス -安部公房 『第四間氷期』-」 『新日本文学』 (14) 新日本文学会, pp.112-117

8) 鳥羽耕史 (1997) 「安部公房 『第四間氷期』 -水のなかの革命-」 『国文学研究』 (123), 早稲田大学国文学会, pp.106-116

그리고 예언을 알리지 않고 현실과 분리된 해저개발협회 운영위원회가 현실에서 분리된 정책을 세우는 일본공산당 지도부와 닮아있음을 지적하며 『제4 간빙기』를 통해 일본 공산주의에 대한 비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2013년에 발표한 논문⁹⁾에서는 동일본대지진이라는 재해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속의 미래 예측과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각각 현재의 지구온난화와 해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미디어 대응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일본이 이전의 어떠한 것과 단절되었는지, 그것을 부흥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미래로 나아갈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할지 생각할 계기로서 재해석하고 있다.

사카 겐타¹⁰⁾는 스푸트니크 쇼크 후, 정치적 배경을 배제하고 과학 발전을 축복하는 동시대 논의에 대한 비판적 응답으로 보고, 소설 속의 과학, 국가 그리고 자본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소설에서 예언기계와 수생인간을 통해 투영되고 있는 것은 재력과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고 ‘사업’을 완수하려고 하는 권력의 모습이라 분석하고 있다. 또 소설 속에서 미래를 사전에 예언하는 것은 외부를 변혁하는 가능성, 즉 사회의 가공(혁명)으로의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크리스토퍼 볼턴(Christopher Bolton)¹¹⁾은 『제4 간빙기』의 특수한 어휘, 수학,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정밀한 묘사의 문체와 소설 속에서 사용된 과학적 소재를 조합하면 과학 교과서, 논문, 강의 등을 연상시키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진 듯이 보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며 문체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소설 속의 과학적 문체를 기계적인 언어인 컴퓨터 용어와 살아있는 언어인 생물학적 용어로 구분하고 이 두 문체가 부딪히며 과학과 비과학, 인간과 기술을 구분 짓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 또 과학에 의한 격렬한 변모를 찬가하는 ‘요리키’와 그 쇼크를 두려워하는 ‘나’의 양립을 통해 포스트모던 비평 요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소마타니 히데노리(柚谷英紀)¹²⁾는 수생포유동물,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라고 하

9) 鳥羽耕史 (2013) 「安部公房 『第四間氷期』 大きな断絶をいかに受容するか」 『震災後に読む文学』, 早稲田大学出版部, pp.10-18

10) 坂堅太 (2021) 「革命の未来に向けて —安部公房 『第四間氷期』 論一」 『昭和文学研究』 (82) 昭和文学会, pp.74-88

11) クリストファー・ボルトン (1997) 「科学とフィクション、そしてポストモダン—安部公房 『第四間氷期』 論一」 『昭和文学研究』 (34) 昭和文学会, pp.91-102

는 가설은 그로테스크한 외면과는 반대로 내면에는 인간의 애정과 고독을 상징할 수 있으므로 내부와 외면의 차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 소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베가 ‘괴물’ 같은 ‘편견’이라는 ‘가설’에서 정치적인 것을 타파하는 SF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실천으로 『제4 간빙기』를 비롯한 SF적 작품들을 집필한 것으로 보며 SF 방법론의 실천과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했다.

후지이 다카시(藤井貴志)¹³⁾는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장래를 보증하는 희망을 내포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수생인간이라는 포스트휴먼의 미래를 통해 현재가 연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이화(異化)함으로써 인간성을 탈거하고 있다고 보고, 수생인간을 포스트휴먼으로 생성변화를 이루는 혁명의 기회를 내포한 역설적 계기라고 해석하고 있다.

신도 마사아키(新戸雅章)¹⁴⁾는 『제4 간빙기』의 미래를 예언기계라는 가설을 도입해서 생겨난 일상성의 ‘외부’, 물자체(物自体)로 분석하고 있다.

오늘날의 인류에게 있어 기상이변 문제는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진보된 기술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과 함께 이후에 나타날 ‘신’인류 즉 포스트휴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는 『제4 간빙기』를 통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존문제와 직면하게 된 인류, 그리고 기술 발달로 생겨난 새로운 인간 종과 기존 인간의 관계를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베가 60여 년 전에 이미 현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해석이 가능할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4 간빙기』를 SF 장르와 더불어 포스트휴먼 문학의 특수성을 지닌 소설¹⁵⁾로 보고,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신’인류와 예언기계에 대해 분석한다. 수생인간을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해석한 논고가 존재하지만, 지향점이나 사상에 따라 나뉘는 포스트휴먼의 여러 담론을 기준으로 한 분

12) 柚谷英紀 (2014) 「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 : SF・仮説・グロテスク」 『日本文芸研究』 66(1) 関西学院大学日本文学会, pp.135-156

13) 藤井貴志 (2023) 『<ポストヒューマン>の文学 : 埴谷雄高・花田清輝・安部公房、そして渋谷竜彦』, 国書刊行会

14) 新戸雅章 (1994) 「『第四間氷期』と未来の終わり」 『ユリイカ』 26(8) 青土社, pp.112-117

15) 후지이 다카시(藤井貴志)는 『제4 간빙기』를 포스트휴먼의 문학으로서 특수성을 유감없이 갖춘 걸작이라고 평가하며 수생인간을 포스트휴먼으로 정의하고 있다.

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인류의 유형을 밝힐 필요가 있다. 포스트휴먼 개념과 과학 기술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소설에서 SF 장르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신’인류의 탄생·육성 과정에 사용된 과학적 소재를 조명하고, 아베가 예언기계를 통해 당시 소련의 인공위성을 투영하며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아베는 에세이 「나의 소설관(私の小説観)」(1954)에서 소설가의 일을 인간과 물질(物)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관찰하여 이론을 세우고 숙달된 언어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¹⁶⁾ 앞서 아베의 문학에서 빠트릴 수 없는 주제로 관계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와 같은 그의 발언을 통해서 관계 양상 해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4 간빙기』에는 ‘신’인류의 생산과 활용을 둘러싸고 개인과 조직 관계, 남성과 여성 관계, 조직과 조직 관계 등 다양한 관계가 그려지고 있으며,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다. 각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 양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을 분석하고, 당시 일본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제4 간빙기』의 인간과 과학 기술의 관계 양상에 주목하고, 예언기계를 통해 소설 속의 현재 시점의 인간과 기술 관계가 유지될 경우 다다르게 될 것으로 예언된 미래 사회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아베가 소설 속에서 미래 사회를 묘사한 목적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

2장에서는 먼저 포스트휴먼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포스트휴먼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두 갈래의 사상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사상이 추구하는 포스트휴먼의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며 인간을 변화시킨 기술에 따라 트랜스휴먼으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휴먼과 포스트휴먼의 존재를 구분 짓는 경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베의 소설에 등장하는 개조된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상의 전개 배경과 과정, 개념을 정리하고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후에는 『제4 간빙기』에 그려지고 있는 ‘신’인류가 오늘날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R62호의 발명』, 「맹장

16) 安部公房 (1997) 「私の小説観」, 『安部公房全集 004 1953.10-1955.02』新潮社, p.283 참조

」, 「납의 알」에 등장하는 개조된 인간 존재도 함께 살펴보겠다. 이 세 작품은 『제4 간빙기』와 같이 문제 극복을 위한 방책으로 인간을 인위적으로 개조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구성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비교분석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3장에서는 『제4 간빙기』의 골자를 이루며 ‘신’인류를 탄생시킨 과학적 소재를 살펴보겠다. 앞서 『제4 간빙기』는 일본 최초의 본격적 장편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는데, SF 장르에서 과학적 소재는 필수요소로 가설을 형상화하고 현실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SF에 등장하는 과학 기술은 현재에는 실현 불가능할지라도 언젠가는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파헤치는 작용을 한다. 『제4 간빙기』에 묘사된 과학적 소재를 살펴보는 작업은 아베가 파헤치고자 했던 1950년대 당시 사회의 현실을 구명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아베가 『제4 간빙기』 연재를 시작한 시점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듬해부터이다. 1958년 1월에는 아라 마사히토(荒正人), 하니아 유타카(埴谷雄高),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과의 좌담회에 참석해 소련의 인공위성을 주제로 앞으로 인류와 문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토론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을 둘러싼 우주 경쟁 상황을 투영한 듯한 설정은 『제4 간빙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이 발표된 시기의 국제 정세 흐름을 살펴보면, 아베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SF적 수법을 취하게 된 원인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소설 속의 ‘관계’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인간과 조직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무력하게 희생당하는 존재의 유형과 이들을 통해 작품이 발표된 당시 일본 사회에서의 우생보호법과 관련된 낙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대립 관계 양상을 살펴 보며 당시 일본 사회에서의 고정된 성 역할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고찰한다. 또 수생인간을 만들고 육성, 관리하는 주체인 해저개발협회라는 조직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 구조를 밝히고 조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중앙계산기술연구실과 해저개발협회 조직 내부에 교차하고 있는 인간 간의 이념 대립 양상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과학 기술 연구 현장에서

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일본의 예언기계 ‘KEIGI-1’의 예언으로 탄생한 ‘나’의 예언치인 제2차 예언치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리고 ‘나’와 쓰치다, 더 나아가 인간을 대상으로 예언기계가 활용되는 방식과 함께 인간과 기술의 관계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이어서 소설의 말미에 묘사되고 있는 미래의 수중사회가 수립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957년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듬해인 1958년 1월, 아라 마사히토, 하니아 유타카, 다케다 다이준과의 좌담회에서 아베는 변화를 수동적·자연적인 변화와 능동적·인간이 변화시키는 변화, 두 가지로 나누며 변화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간은 수동적 변화가 아닌 능동적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아베의 견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 존재를 개조해서 구축된 미래의 수중사회는 인간이 수동적인 변화를 고집했을 때 맞닥뜨리게 될 미래상에 대한 전망으로 간주된다. 미래의 수중사회의 수립 과정과 구조 분석을 통해 시사되고 있는 인간의 수동적 변화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2. ‘신’인류의 유형

2-1.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또는 후기-인간(post-human)은 과학소설, 미래학, 현대 예술 및 철학 분야에서 나타난 개념¹⁷⁾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소설 『제4 간빙기』는 일본 최초의 본격 장편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먼저 과학소설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이라는 장르의 명칭은 미국의 작가 휴고 건즈백(Hugo Gernsback)이 1926년에 창간한 SF 잡지 『어메이징 스토리즈(Amazing Stories)』에서 제시한 조어로, 이후 1927년에 창간한 『사이언스 원더 스토리즈(Science Wonder Stories)』에서 건즈백은 이 명칭의 일반화를 시도했다.¹⁸⁾ 용어에서 드러나듯이 과학소설은 과학을 주제로 하거나 과학적인 지식을 품고 있는 허구적인 소설을 이야기하며 Si-Fi 혹은 SF 소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1959년 하야카와서방(早川書房)에서 『SF매거진(SFマガジン)』을 창간하면서 SF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 독자에게 정착하기 시작했다.¹⁹⁾

과학소설의 시조로 여겨지는 작품에는 흔히 조나단 스위프트(Jonathan Swift)의 『걸리버 여행기(Gulliver's Travels)』(1726)와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1818)이 언급된다. 특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현재는 과학으로 인해 탄생한 포스트휴먼을 다룬 첫 소설로 간주²⁰⁾되고 있기도 하다.

포스트휴먼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SF작가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된 용어로, 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포스트휴먼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인간을 넘어서는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 현재의 기준으로 더 이상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²¹⁾ 이 존재는 인간이 다양한

17) 이해영·안지현·유수연·김예원 (2018)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한국학술정보, p.109

18) 長山靖生 (2018) 『日本SF精神史【完全版】』河出書房新社, pp.13-14 참조

19) 상계서, pp.13-14 참조

20) 손나경 (2021) 『과학소설 속의 포스트휴먼』 계명대학교 출판부, p.62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신체와 정신을 강화시킨 형태일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일 수도 있다.

포스트휴먼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이라는 두 가지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먼저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신체와 지적·정신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인간 향상(human enhancement)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나 운동을 일컫는다. 인간 향상을 통한 포스트휴먼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운동으로, 트랜스휴머니즘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트랜스휴머니스트라고 한다. 인간 향상을 긍정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창시자는 토머스 헉슬리(Thomas Huxley)의 손자이자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형인 영국의 생물학자 줄리언 헉슬리(Julian Huxley)로 여겨지고 있다.

인간 중은 만약 원한다면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여기에서 이 방법으로, 다른 개인이 저기에서 다른 방법으로와 같이 산발적으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 전체가 스스로를 초월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믿음에 이름이 필요하다. 아마도 트랜스휴머니즘이 알맞을 것이다. 인간은 인간으로 남지만 인간 본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지함으로써 스스로를 초월한다.²²⁾

줄리언 헉슬리는 미래의 인류에 대해 예측하며, 인류가 스스로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다는 인간 향상의 의미로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을 처음으로 정의한 인물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맥스 모어(Max More)로, 1988년 『엑스트로피(Extropy)』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1992년에는 엑스트로피 연구소를 창립했다.²³⁾ 그는 1990년에 발표

21) 신상규 (2014)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p.104 참조

22) Juxley, Julian, *Transhumanism*, Reprinted January 1968,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8(1), 1957, p.76

* 논지 전개 과정에서 인용되는 영문글의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다.

23) 톰 벨이 만들고 맥스 모어가 사용한 ‘엑스트로피’라고 하는 용어는 “외반” 혹은 “밖으로 뒤집힘”을 의미하며, “생명 또는 조직 시스템의 지능, 기능적 질서, 활력, 에너지, 생명, 경험, 연량 및 개선의 정도이자 향상과 성장을 향한 추진력”이라는 정의를 지니고 있다. 박소영 (2019)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신체와 문학적 형상화- 사이보그,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그리고 『뉴로맨서』」 『문화와 융합』 41(4) 한국문화융합학회, p.1172 참조

한 「트랜스휴머니즘: 미래주의 철학을 향해(Transhumanism: Toward a Futurist Philosophy)」에서 “우리를 포스트휴먼 상태로 이끄는 방법을 모색하는 철학의 일종”을 트랜스휴머니즘이라고 정의했다.²⁴⁾ 이들은 새로운 과학 기술을 통해 인간의 수명이 거의 불멸에 가까울 정도로 연장되거나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며, 인간은 자신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같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미래를 묘사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 발전 과정이 내포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문화 변화, 가치 왜곡,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순진한 태도를 보인다.²⁵⁾

한편, 1998년 닉 보스트롬(Nick Bostrom)을 중심으로 유럽 기반의 학자들이 기존의 컬트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욱 진지하고 학술적인 각도로 트랜스휴머니즘을 모색하기 위해 창설한²⁶⁾ 세계 트랜스휴머니스트 협회(WTA)²⁷⁾는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The Transhumanist Declaration)을 채택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차 인류는 과학과 기술에 완전히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류는 노화, 인지적 결함, 원치 않는 고통을 극복하고 지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인간 잠재력 확장의 가능성을 그린다. 두 번째, 우리는 인간의 잠재력이 아직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고 믿으며, 인간의 조건을 굉장히 멋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위험들, 그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기술들의 오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의 대부분 심지어는 전부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들도 있다. 그 중에는 극단적이거나 포착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며, 모든 진보는 변화이지만 모든 변화가 진보인 것은 아니다. 네 번째, 이런 가능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활동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위험들을 줄이고 유익한 응용을 촉진할지 주의 깊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건설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포럼과 책임감 있는 결정을

24) 신상규 (2014) 전개서, p.114 참조

25) 상계서, p.116 참조

26) 상계서, pp.116-117 참조

27) The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2008년 ‘휴머니티+(Humanity+)’로 변경.

시행할 수 있는 사회질서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실존적 위협의 축소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심각한 고통 경감과 인간의 예지, 지혜를 향상하는 것을 급선무로 추구하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 번째, 정책 입안은 포괄적인 윤리적 버전에 따라 기회와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율성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과 존엄성에 대한 관심과 연대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존재할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들도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 우리는 인간, 비인간 동물, 그리고 미래의 어떤 인공 지능체, 변형 생명체 혹은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생기게 될 다른 지성적 존재를 포함한 모든 지각력을 지닌 존재의 복지를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독자적이고 폭 넓은 개인의 선택을 용납하는 것에 찬성한다. 여기에는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정신 에너지, 개발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생명 연장 요법, 재생 선택 기술, 인체 냉동 보존술 그리고 다른 인간의 개조와 강화를 위한 기술들도 포함된다.²⁸⁾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은 닉 보스트롬이 앤더스 샌드버그(Anders Sandberg) 등과 함께 작성한 문건으로,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류의 변화와 인간 조건의 향상을 예견하는 한편,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윤리적 책임 문제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보스트롬과 샌드버그는 선언문 뿐만 아니라 트랜스휴머니스트 FAQ의 작성도 주도했으며, 이 두 문건들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세계관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트랜스휴머니스트는 현재의 인간 종은 종 발전의 궁극적인 형태가 아닌 상대적으로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고, 인간의 잠재력과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진화에 의해 주어진 인간의 생물학적 운명과 한계를 과학 기술이라는 수단을 통해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²⁹⁾

트랜스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트랜스휴머니즘 뿐만 아니라 민주적 트랜스휴머니즘(Democratic transhumanism)³⁰⁾, 엑스트로피아니즘

28) The Transhumanist Declaration. Humanity+ 검색키워드 :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http://www.humanityplus.org/the-transhumanist-declaration> 검색날짜 : 2023.03.13

29) 신상규 (2014) 전개서, pp.106-107 참조

30) 제임스 휴즈(James Hughes)가 2002년에 창시한 용어. 자유주의적·사회적·급진적인 민주주의

(Extropianism)³¹, 자유지상주의 트랜스휴머니즘(Libertarian transhumanism)³², 특이점주의(Singularitarianism)³³, 포스트젠더리즘(Postgenderism)³⁴ 등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과학 기술을 이용한 인간 향상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지적 능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키는 등, 인간이 현재의 상태에서 향상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과 수술, 나노기술, 융합기술, 유전공학, 인지 기술 등과 같은 기술을 요하므로 트랜스휴머니즘에서 과학 기술은 필수불가결하다.

한편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과학 기술을 통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향상과 그에 따른 전망에 대한 비평의 시각과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정치적 좌파·우파의 생명보수주의자들은 트랜스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인간 향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들이 지적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간 향상은 예상치 않은 위험이나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인간 향상은 사회적 정의 혹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이다.
- ③ 인간 향상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오만한 짓이다.
- ④ 인간 향상은 후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⑤ 인간 향상은 삶과 관련된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위협하거나 파괴한다.³⁵⁾

트랜스휴머니즘을 지지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인간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트랜스휴머니즘을 반대하는 생명보수주의자들은 인간 향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불평등과

견해와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합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다.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제어하는 자연적·사회적 영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통제했을 때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기인한다. 이해영·안지현·유수연·김예원 (2018)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한국학술정보, p.50 참조

31) 인간 조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과 가치체제를 도출해내는 이론. 트랜스휴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버전이자 생명 무한 확장론의 철학으로도 언급된다. 상계서, p.51 참조

32) 자유지상주의와 트랜스휴머니즘을 통합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인간능력 증강에 대한 권리를 역설하고 이 권리에 있어 최상의 수단은 자유시장이라고 말한다. 상계서, p.50 참조

33) 기술적 특이점이 가능하리라는 신념에 기댄 도덕주의로서 그것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것이 초래할 계획적 행위를 옹호한다. 상계서, p.53 참조

34) 진보적인 생명공학과 보조생식기술 적용으로 인류의 임의적인 성별 제거를 옹호하는 운동. 상계서, p.50 참조

35) 신상규 (2017)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향상의 생명정치학」 『일본비평』 (1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p.75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최초의 디스토피아를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1932)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회를 트랜스휴머니즘이 추구하는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인간 향상을 시도했을 경우 실현될 수 있는 사회의 한 예시라고 보는 의견이 있다.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에서 벗어난 탈-인간주의³⁶⁾ 사상을 이야기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는 1977년 이합 핫산(Ihab Hassan)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이를 본격적인 학문 분야로 발전시킨 인물은 캐서린 헤일스(N. Katherine Hayles)이다.³⁷⁾ 테크노포비아(technophobia)와 테크노필리아(technophilia)는 포스트휴먼에 대해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며 이분법적 구도를 이어나가면서도 포스트휴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처하는 데 주목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안녕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를 공유했다. 하지만 헤일스는 포스트휴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두고 포스트휴먼의 효과가 아닌 실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³⁸⁾ 헤일스는 현재 구체화된 현실의 경계가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좁은 정의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체를 정보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³⁹⁾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은 종종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향상을 위한 과학 기술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극대화된 인간중심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human)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시 생각한다는 탈-인간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각각이 추구하는 지향점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서 이야기하는 포스트휴먼의 유형에도 차이가 있다.

포스트휴먼은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인류를 월등히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과학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진화한 ‘신’인류를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분하

36) 프란체스카 페란도는 포스트휴머니즘이 탈-인간주의인 동시에 탈-인류중심주의이자 탈-이원론이라고 했다.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옮김 (2021)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아카넷, p.79 참조

37) 이동신 (2022)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갈무리, p.41 참조

38) 상계서, p.41 참조

39) 이해영·안지현·유수연·김예원 (2018) 전개서, p.126 참조

면 트랜스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은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에 인간이 지니고 있던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개선하여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의미한다. 한편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형을 의미하며, 인간중심주의적인 기존의 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벗어나 인간의 조건을 해체하고 인간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이 아닌 트랜스휴먼(transhuman)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현재의 인간에서 포스트휴먼이 되는 변화 과정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의 인간(transitional human)’을 나타내는 말이다.⁴⁰⁾ 예를 들어 신체기관을 대체하는 의수나 의족, 그리고 인체의 기능을 보조하는 인공 장기, 인슐린 펌프 등의 보조기와 같이 인간의 신체 일부분을 생체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대체한 사이보그(cyborg)와 같은 존재는 트랜스휴머니즘 관점에서 보는 트랜스휴먼의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기술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등 인간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의 인류를 ‘과도기의 인간’인 트랜스휴먼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트랜스휴먼을 포함한 포스트휴먼이라는 개념은 가시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근래 들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과거에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주장하는 포스트휴먼의 특징들이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현순은 피테의 『파우스트 2부』에 등장하는 호문쿨루스 창조실험에서도 포스트휴먼의 원형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파우스트 2부』의 호문쿨루스 뿐만 아니라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피조물도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말하는 포스트휴먼의 원형으로 보고, 두 작품의 피조물들이 인간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을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40) 트랜스휴머니스트인 FM-2030(F.M. Estfandiary)이 사용한 용어로 트랜스휴먼이 “새로운 진화적 존재의 초기 형태”라고 주장하며 트랜스휴먼성(transhumanity)의 정후로 보철, 성형수술, 원격통신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유목적인 삶의 형태와 세계시민주의적인 생각, 시험관 아기와 같은 재생산 방식의 변화, 종교적 믿음의 결여, 전통적인 가족 가치의 거부 등을 들고 있다. 신상규 (2014) 전계서, p.106 참조

타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사회의 한계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창조자로서의 과학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로 인해 일어날 비극적인 결과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미리 예견해 주고 있다고 했다.⁴¹⁾

최초의 SF소설로 평가되고 있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포스트휴먼이라고 정의되는 유형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듯이, 일본의 본격 장편 SF소설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아베의 『제4 간빙기』에서도 포스트휴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제4 간빙기』에 등장하는 기존의 인류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 ‘신’인류가 오늘날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때 과학 기술을 사용한 인간 개조를 그리고 있는 아베의 다른 SF적인 소설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에 등장하는 존재도 함께 살펴보겠다.

2-2. 수생인간과 예언기계

아베는 일본에서 아직 SF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SF매거진(SFマガジン)』 창간을 기점으로 잇따라 데뷔하는 제1세대 SF 작가들에 앞서 SF 제로세대에 해당하는 작가로⁴²⁾, 현재 그의 소설 『제4 간빙기』는 일본 최초의 장편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제4 간빙기』에서는 예언기계의 예언을 통해 자연재해로 수면이 상승하고 점차 육지가 사라지는 지구에서 생존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현재 시점에 존재하는 현대 인류는 미래에는 육지에서 생활하던 기존의 인간 집단과 수중에서 생활하는 수생인간 집단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된다. 수생인간은 해저개발협회라는 조직이 자연재해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고,

41) 천현순 (2016) 「포스트휴먼의 원형과 문학적 상상력 -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vs. 호문쿨루스」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문학회

42) 長山靖生 (2018) 전계서, pp.195 참조

그 결과 인간이 육지에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근거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수생동물과 함께 인위적으로 만든 존재이다.

소셜 속에서 수생동물과 수생인간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야마모토(山本) 박사의 태외발생 연구소이다. 박사는 진화를 인위적이고 비약적 그리고 정향적으로 행하는 생물의 계획적 개조가 자신들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나’는 야마모토 박사의 연구소로 견학을 갔을 때 수생인간을 만들기 전에 시험적으로 몇 종의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개조하는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중에서 특히 돼지와 소, 개와 같은 가축은 각각의 해저목장에서 요구하는 주문에 맞춰 공급하는 상업화 단계에 이르렀다.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만드는 과정은 종에 관계 없이 태반에서 분리한 미가공의 태아를 인공 태반에 정착시키고,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바꿀 수 있는 호르몬을 분사하여 수생동물로 만드는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수생동물과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 각 종마다의 차이점은 특정 기간 내의 태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수생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신 3주 이내의 낙태된 태아가 이용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수생인간은 폐와 횡격막의 퇴화로 인해 웃지 않거나 외분비선과 눈물샘의 소실로 울지 않는 등 감정표현이 현재의 인간과는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과 어린 나이에도 재료만 주어지면 여러 가지 물품을 고안해서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자동톱입니다…… 대단하죠, 전부 스스로 고안했으니까요……예, 물론 재료부터 손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가공실로 웬만한 것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해중생활에서는 플라스틱이 지상의 철과 같은 것이니까 이것을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 생활기술의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신기하죠. 아직 겨우 여덟 살도 안 된 아이니까요. 아무래도 바다 속에서 성장이 빠른 것은 단순히 육체뿐만이 아닌 듯합니다.⁴³⁾

43) — 自動丸鋸です……大したものでしょう、ぜんぶ自分で考案したんですからね……ええ、むろん、材料から手製です。ここはプラスチックの加工室で、大いなのはそろっていますな。海中生活では、プラスチックが地上の鉄にかわるものですから、これに習熟することが、生活技術の基本だとも言える……しかし、ちょっと不思議

야마모토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수생인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수생인간 제1호는 모델훈련소에서 살고 있는 8살의 이리리(イリリ)이다. 이리리는 육지의 인간과는 달리 원래 나이보다 외관상으로 네 살에서 다섯 살 정도는 더 성숙해 보이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신체의 성장이 기존의 인간보다 발달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능면에서도 기존 인간보다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리리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이지만 자동툽뿐만이 아니라 수중 자전거도 개발했으며, 이리리보다 조금 어린 수생인간 아이는 기포 시소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다고 묘사되는데,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은 수생인간이 인간보다 더 발달된 지적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후지이 다카시는 미래의 수생인간을 포스트휴먼이라고 정의하며, 『제4 간빙기』속의 포스트휴먼의 형상은 현재가 연속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날카롭게 이화하여 자명성에 결정적인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⁴⁴⁾ 그러나 앞서 2-1장에서 포스트휴먼은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개념에 따라 추구하는 유형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포스트휴머니즘에서 말하는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조건을 해체함으로써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존재라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이 인간 존재를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존 인간의 조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조건을 해체한 존재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포스트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포스트휴먼은 과학 기술을 사용하여 인간의 능력과 조건 향상을 통해 인간 종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신’인류를 일컫는다. 트랜스휴머니스트 선언문을 작성한 닉 보스트롬은 다음 세 가지의 능력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능력에서 현재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

議でしょう。まだわずかに八歳足らずの子供なんですからね。どうも海の中で、成長が早いのは、単に肉体だけじゃないらしい。p.157

* 본고의 중심 텍스트는 『安部公房全集 009 1958.07-1959.04』에 수록된 「제4 간빙기」를 사용한다. 논지 전개 과정에서 인용되는 「제4간빙기」의 한국어 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다.

44) 藤井貴志 (2023) 전계서, p.19

의 한계를 월등히 넘어섰을 경우 포스트휴먼으로 부르자고 제안하며, 포스트휴먼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⁴⁵⁾

- 건강수명(healthspan) -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 인지(cognition) - 기억력, 추론, 유추, 주의력과 같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과 음악, 유머, 에로티시즘, 서사, 영상, 수학 등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특별한 능력
- 정서(emotion) - 인생을 즐기고, 생활 속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⁴⁶⁾

중요한 점은 상기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능력 중 하나라도 현재의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월등히 뛰어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 볼 때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이 기존의 인간 종과 비교했을 때 트랜스휴머니즘이 요구하는 포스트휴먼의 능력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수생인간의 지능이 인간보다 발달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 이유는 이리리가 기존의 인간보다 지능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영재와 같이 나이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지닌 것이지 인간 한계를 넘어선 인지 능력을 지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악…… 정의에 따르면 진동의 예술이다…… 파장이 다른 물의 진동으로 전신의 피부를 감싸는 것이다. 그러나 육상인의 경우 이것이 공기의 진동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기의 진동은 고막이라고 하는 별 볼일 없는 특수 기관으로만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그 음악도 변화가 적은 단조로운 것이었다고 한다……⁴⁷⁾

45) 신상규 (2014) 전개서, p.104 참조

46)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When I Grow Up. Nick Bostrom's Home Page 검색키워드 : Why I Want to be a Posthuman When I Grow U <https://nickbostrom.com/posthuman.pdf> 검색날짜 : 2023.03.17

47)たとえば、音楽……正義によれば、振動の芸術である……波長のちがう水の振動で全身の皮膚を包みこむことである。しかし、陸上人の場合は、これが空気の振動だけで構成されていた。空気の振動は、鼓膜という、ちっぽけな特殊器官でだけしか、とらえることができない。しぜん、その音楽も、変化のすくない単調なものであったという…… p.170

상기의 인용문은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 모습의 일부분으로 육지에서 생활하던 인간과 바닷속에서 생활하는 수생인 사회에서의 음악의 정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수생인간의 음악에 대한 이해와 감상 능력이 수생인간 사회 내에서 만들어진 음악, 즉 바닷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만으로는 수생인간에게 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기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우므로 역시 인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다.

수생인간 제1호 이리리는 외분비선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눈물샘이 남아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리리 이후에 만들어진 수생인간들은 기존 인간과 완전히 다른 감정표현을 하지만 이리리의 감정표현은 인간, 그리고 수생인간과도 차이가 있다. 또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에는 ‘지상병(地上病)’이라고 하는 신경병에 걸리는 수생인간이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조리 있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바람을 맞은 이후 소년은 공기의 벽 너머에 있었던 과거의 세계에 강하게 끌리고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지상 시대의 학문은 형태적으로는 상당한 부분까지 연구되고 있었다. 초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지상시대에 관해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면생활에 대해서는 감각상의 차이가 있는 한 역시 유추하는 것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지상병의 악영향—그것은 요컨대 선천적인 신경병의 일종에 지나지 않겠지만 아직 수중 시대의 역사가 알고 사회 운영에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인지 사상적인 전염력을 지니고 있었다—의 우려도 있어서 그 부분의 연구는 그다지 장려하지 않고 있었다.⁴⁸⁾

48) ……と、そんなふうに、筋道立てて考え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が、あの風にふかれて以来、少年は、空気の壁の向うで行われていた、過去の世界に強くひきつけられ、とりつかれてしまっていたのである。地上時代の学問は、形態的には、かなりのところまゝ究められていた。小学校の教科書でさえ、地上時代のために、かなりのページをさいている。しかしその内面生活に関しては、感覚上のギャップがあるかぎり、やはり類推を一步も出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くに、地上病の悪影響—それは要するに先天的な神経病の一種にすぎないはずだったが、まだ水中時代の歴史が浅く、社会の運営に試行錯誤的な部分が残っているためか、思想的な伝染力をもっていたのである—の懸念もあって、その部分の研究はあまり奨励されていなかった。p.171

수생인간은 해수면위로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할 때에는 바닷물을 계속 아가미에 공급해서 숨을 쉬게 해주는 ‘공중복’이라고 하는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유전 소속의 전파탑 수리를 돕기 위해 해수면 위로 올라가게 된 해저유전 견습공 소년은 우연히 이 작업복을 입지 않고 해수면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태어나 처음으로 바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계기로 소년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과거 인류의 역사에 의문을 품게 되고, 그들의 생활상에 궁금증을 느끼며 다시 바람을 느끼고 싶다는 갈망에 휩싸인다.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땅을 찾아 나선 소년은 마침내 아주 조그마한 섬처럼 남은 육지를 찾아 올라가 바람을 느낀다. 그러면서 눈에서 무언가가 안쪽에서부터 배어 나오는 것을 느끼며 이것이 말로만 듣던 눈물이라는 것과 자신이 ‘지상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상의 바람을 갈망하는 ‘지상병’의 요인은 제1대 수생인간인 이리리가 지니고 있었던 외분비선의 유전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언급된다. 기존 인간의 흔적이 남아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병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지상병’에 걸리는 수생인간의 존재는 닉 보스트롬의 트랜스휴머니즘에서의 포스트휴먼의 능력 중 하나인 건강수명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수생인간은 횡격막이 퇴화했기 때문에 웃지 못하고, 외분비선과 함께 눈물샘도 없어졌기 때문에 울지 않는 등 기존의 인간과는 다른 감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감정표현의 차이는 기존의 인간과 수생인간이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미래의 수중사회에서도 두 종의 인간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생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수생인간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킨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인간의 능력의 한계치를 월등히 뛰어넘어 진화한,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류를 뜻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포스트휴먼이 되는 과정에 위치한 ‘과도기의 인간’, 과학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 포스트휴먼에 다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 트랜스휴먼의 유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과 같이 인간을 개조하려는 시도는 아베의 작품 중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53년 『문학계(文学界)』 3월호에 발표된 작품 『R62호의 발명』의 주인공 R62호는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실톱을 넣어 잘라낸 후에 3cm의 안테나가 달린 인공 두개골을 이식하는 개조 수술을 받는다. 인간과 인공 두개골을 결합한 R62호는 오늘날 생물과 기계장치의 결합체를 일컫는 사이보그(cyborg)의 특징을 지닌 존재이다.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생물(organism)의 합성어로 1950년대 말에 맨프레드 클라인즈(Manfred E. Clynes)가 만든 용어이다. 또 사이보그화(cyborgisation)는 마이크로 칩이나 임플란트 장치 및 기계 구성 요소를 사용해서 생물학적 실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

『R62호의 발명』의 R62호라는 명칭을 통해 R62호가 인간과 기계를 결합한 최초의 존재가 아니고, 이전에 61명의 인간이 인공 두개골을 이식하는 개조 수술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각자 어떠한 경위로 인공 두개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된 것인지는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다. R62호 이전에 수술을 받은 존재들 중에서 몇몇은 조수나 비서 혹은 급사로 개조 수술을 시행하는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거나 58호는 죽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인공 두개골 이식 수술을 받은 나머지 존재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R62호가 인공 두개골 이식이라는 개조 수술을 받은 이유는 신체가 손상되거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닌, 인간 개조가 보편화되기를 바라는 사무소 소장의 사적 야욕 때문이다. R62호의 머리글자 R은 로봇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명칭을 통해 개조를 통한 인간의 로봇화라는 소장의 야욕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다.

로봇은 1921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소설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가 『R.U.R(Rosuum's Universal Robots)』이라는 희곡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어원은 노동을 의미하는 체코어 로보타(robota)이다. 로봇 중에서 인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android)와 휴머노이드(humanoid)로 나눌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인조인간을 뜻하며, 휴머노이드는 인간과 비슷하게 생긴 로봇을 의미한다. 유의할 점은 로봇은 외형이나 행동이

49) 박소영 (2019) 전개서, p.1167 참조

인간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흡사하더라도 기계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사이보그는 유기체에 인체공학적인, 생물공학적인 기술을 결합한 존재라는 것이다.

R62호의 머리에 이식된 인공 두개골은 사무소 소장이 조작 장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다. 이 장치로 인해 R62호는 타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변하므로, 『R62호의 발명』에서 말하는 로봇은 완전한 기계장치로 이루어진 물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로봇이 아닌, 타인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R62호를 오늘날의 포스트휴먼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이보그의 특징을 지닌 존재라고 하였는데, 사이보그로 정의되거나 간주 되는 유형은 인간의 신체에 인공적인 기계장치를 삽입 혹은 이식하는 것과 같이 유기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결합체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기술 문명적인 것의 결합체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정의는 모든 인간은 기술 문명적이고, 문명인으로서 인간 종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이보그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⁵⁰⁾ 따라서 의수, 의족이나 인공 장기, 인슐린 펌프 등의 보조기와 같은 장치를 지닌 인간을 사이보그에 포함시키면 안경을 착용하거나 렌즈삽입술을 받은 인간까지도 모두 사이보그로 봐야 하는가 하는 논쟁이 발생한다. 또 유기체와 기계의 결합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사이보그일 수 있다.

또한 사이보그는 고전적 사이보그와 탈고전적 사이보그 두 가지 유형으로도 분류 된다. 고전적 사이보그는 인간의 신체에 기계적 혹은 전자적 장치나 인공기관을 삽입하거나 이식한 것을 의미하며, 자연적인 인간의 신체 중에서 손상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일부분을 인공 각막, 인공 관절, 인공 심장 등과 같은 인공적인 장치로 대체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한다는 점에서 거의 인간에 가까운 사이보그⁵¹⁾라고 할 수 있다.

탈고전적인 사이보그는 인간의 두뇌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인간과 컴퓨터가 융합한 첨단 사이보그⁵²⁾를 일컫는다. 컴퓨터와 융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거나

50) 김선희 (2005) 「사이보그와 개인동일성의 문제 = 컴퓨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가?」 『철학』 (85) 한국철학회, p.174 참조

51) 상계서, p.177 참조

52) 상계서, p.179 참조

사이버 공간으로 연장된 첨단 사이보그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경계가 불분명해 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머리에 인공 두개골을 이식한 인간 R62호는 사이보그 중에서도 생물과 기계장치가 결합한 고전적 사이보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다르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포스트휴먼에 해당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있는 ‘과도기의 인간’에 해당하는 트랜스휴먼이라 할 수 있다.

1955년 『문학계』 4월호에 발표된 「맹장」⁵³⁾의 주인공 K는 오랜 기간 실직한 상태에 있던 인물로, 연구실의 실험에 참여하면 대가로 매달 1만 3천 엔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의 맹장을 자신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받는다. 초식동물의 맹장을 이식받은 K는 영양 섭취와 소화 과정이 양의 특성을 닮게 되어 주식으로 인간이 먹는 음식이 아닌 생짚과 고압증기로 처리한 짚에 비타민을 섞은 것을 먹게 된다.

인간에게 양의 맹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내과의 교수를 비롯해서 외과의, 생리, 응용화학, 생화학의 각 분야를 담당하는 조수 4명이 함께 연구소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는 이 실험을 인류의 미래를 예언하려는 것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세계 인구의 90퍼센트는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이고, 그것이 번식력 증대의 원인이 되고 더욱이 식량난의 원인이 되어 그 악순환이 다다른 곳이 인류의 파멸 외에는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후 바로 K를 그 굶주림으로부터의 항상적 해방자로 치켜세웠다.⁵⁴⁾

K는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새로운 인간’ 혹은 ‘미래인’이라고 불리며 세간의 이목을 받는다. 여기에서 ‘새로운 인간’, ‘미래인’이라는 표현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신’인류라는 용어와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이라는 용어로 치환할 수 있다. K의 존재는 미래의 사회상을 구명하고자 하는 학문적 연구로까지 이어지며, 장차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양의 맹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53) 1962년 11월에 「양장인류(羊腸人類)」라는 제목으로 텔레비전 드라마화

54) 世界の人口の九十パーセントは慢性的營養失調状態にあり、それが繁殖力の増大の原因になり、さらに食糧難の原因になり、この悪循環は行きつとところが人類の破滅以外にないということを書きたてたすぐその後で、Kをその餓えからの恒常的解放者としてまつりあげた。安部公房 (1997) 「盲腸」 『安部公房全集 005 1955.03-1956.02』新潮社, p.77

거부하는 경우 ‘맹장세’라고 하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신문에 보도된다.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K는 기아 문제 해결이 목적인 인간에게 양의 맹장을 이식하는 연구의 피실험자로서, 기아 문제 해결법의 본보기로 기아학회에서 발표할 계획도 세워져 있었다.

「맹장」에서 기아 문제 극복을 위해 양의 맹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것과 같이 인간을 둘러싼 문제나 장애, 혹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한다는 관점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줄리안 헉슬리의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인간이(만약 그들이 어린 나이에 이미 죽은 것이 아니라면) 빈곤, 질병, 나쁜 건강 상태, 과로, 학대 혹은 억압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고통을 희망과 이상으로 가볍게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문제는 희망은 대개 근거가 없고 이상은 대개 현실과 일치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⁵⁵⁾

헉슬리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나열하며 그러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희망과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가능성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탐구하고 그것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합리적으로 만들고 현실에 근거한 이상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맹장」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해 인간을 개조하여 고통과 위험, 한계 등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고 또 실행에 옮기는 행위는 트랜스휴머니즘에서 주장하는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잠식동물인 인간에게 양의 맹장을 이식해서 초식동물로 개조하고 기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K의 존재는 포스트휴먼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말하는 포스트휴먼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능력을 월등하게 증대시키거나 개선한 새로운 유형의 향상된 인간 존재를 의미하는데 K는 인간의 기존 능력을 증대시켰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이 실패하

55) Julian Huxley *Transhumanism*, Reprinted January 1968,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8(1), 1957, p.75

여 이식했던 양의 맹장을 다시 제거했기 때문에 개선된 존재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이는 K를 트랜스휴먼으로도 분류할 수 없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맹장」에서 기존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 개조 시험 자체는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을 만들기 위한 초기적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년 후에 발표된 「납의 알」⁵⁶⁾에서는 인간 개조 시도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이 아니야! ……이 생물들은 알몸이고 그 색은 즉 피부 그 자체의 색인 것이다. ……더군다나 인간처럼 똑바로 서 있다. 게다가 그 손가락으로 뚫은 것 같은 구멍 크기의 어둡고 작은 입술로 지껄이고 있는 것은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는 언어인 것 같다.

그럼 역시 인간인가? ……그러나 저 구불구불한 기묘한 신체……뭐지? 무언가가 떠오르는……그렇다, 인간의 형태를 한 선인장이다. ……게다가 한 명 한 명 극단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형태.⁵⁷⁾

상기의 인용문은 「납의 알」에서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발된 ‘그(彼)’가 새의 알과 비슷한 형태의 기계에서 동면 상태에서 깨어나 밖으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본 광경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동면에 들고 백 년 후에 깨어날 예정이었지만 기계의 오작동으로 80만 년이나 지난 먼 미래에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그’는 ‘고대인’으로 미래의 인류는 ‘현대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납의 알」에서는 총 세 종류의 인간 종이 등장한다. 첫 번째는 ‘고대인’인 ‘그’이며 두 번째는 ‘그’가 동면에서 깨어나 처음으로 본 선인장을 떠올리게 하는 녹색의 현대인이다. 이들은 외형만 식물을 닮은 것이 아니라 식물과 동일한 방식인 광합성을 하거나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물질을 첨가한 연못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물과 영양을 보급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굉장히 긴 수명을 지니고 있다고

56) 1957년 『군상(群像)』 11월호에 발표, 같은 해 11월에 같은 제목으로 라디오 드라마화.

57) 仮装じゃないんだ! ……この生物たちは、裸で、その色は、つまり肌そのものの色なのだ。……しかも、人間みたいに直立している。そのうえ、その指で開けた穴ほどの、暗い小さな唇で、さえずり合っているのは、意味こそ分からないが、まぎれもなく言語らしい。

すると、やはり、人間なのだろうか? ……しかし、あのくねくねした奇妙な体つき……なんだろう? 何かおもいだす……そうだ、人間の形をしたサボテンだ……おまけに、一人一人の形の極端不統一。安部公房 (1998) 「鉛の卵」『安部公房全集 007 1957.01-1957.11』新潮社, p.417

한다.

녹색의 현대인은 소설의 현재 시점에서 5, 60만 년 전의 대기근 시대에 많은 사람이 아사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혈액 일부를 엽록소로 바꾸는 인간 개조에 착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맹장」과 마찬가지로 「납의 알」에서도 기아 극복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 개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혈액의 일부를 엽록소로 바꾸는 수술을 받은 인간은 광합성으로 전분질을 보급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아 문제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식물과 같은 특성이 신체에 정착하고 유전되면서 ‘그’가 마주한 현재의 인간 종의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녹색의 현대인은 팔다리를 지니고 이족보행을 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식물과 같이 다양한 녹색을 띠고, 팔다리와는 별개로 뿌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마지막으로는 녹색의 현대인이 ‘노예족’이라고 부르던 인간 종이 있다. 이들은 작품 초기와 중반에 걸쳐 노동을 도맡아 하고 녹색의 현대인에게 차별받는 존재로 묘사된다. 녹색의 현대인은 과거에 자신들처럼 혈액의 일부를 엽록소로 바꾸는 수술을 받지 못한 인간 중 일부를 보호해서 가금류 대신에 키우던 것이 현재의 ‘노예족’이 되었다고 ‘나’에게 설명한다. 하지만 작품 말미에서 사실은 ‘노예족’이 현대인이며, 녹색의 현대인은 ‘식물인’ 혹은 ‘녹색인’이라고 구분되는 고대인의 한 부류인 것으로 밝혀진다.

‘식물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현대인이 만든 시립고대박물관 안의 ‘녹색인 보존공원’이다. 현대인의 고생물연구소는 고대인인 ‘그’가 ‘식물인’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반응과 식물적 인자, 혹은 식물화 경향의 유무를 관찰하여 인류의 발달사를 연구하기 위해 ‘그’가 들어있던 동면 기계를 ‘녹색인 보존공원’에 놔두고 쪽 관찰하고 있었다고 해명한다.

「납의 알」에서는 현대인으로 분류되는 미래 인류, 고대인 ‘식물인’과 그보다 더 먼 과거의 고대인 ‘그’가 동일한 시점에 등장하고 있다. 현대인과 ‘그’는 외형적으로 닮아있고 ‘식물인’은 외형적으로도, 특성적으로도 다른 두 인간 종과 구분되어 있다. 세 인간 종은 모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번역기가 없으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현대인의 존재는 작품 말미에 잠깐 등장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설명도 없으므로 ‘그’가 살던 시대의 생활양식과 차이점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식물인’과 ‘그’, 두 고대인의 생활양식에서는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식물인’ 사회에서 식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영양 보급을 대체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먹는 행위는 최대의 범죄로 여긴다. 또 노동을 하지 않으며 긴 수명으로 단조롭고 지루한 생활 때문에 하루의 대부분을 내기에 빠져 생활한다. 주택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 상점, 백화점, 병원, 학교 같은 장소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건물은 박물관인데 이곳은 현대인의 시립고대박물관과 연결되는 장소이다.

「맹장」과 「납의 알」, 두 작품의 공통점은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맹장」에서는 인간 개조를 연구하는 단계로 피실험자인 K는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이식했던 양의 맹장을 제거하고 “원래대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납의 알」에서는 스스로를 식물적 특성을 지닌 존재로 개조한 과거의 인간은 식물의 특성이 신체에 정착되고, 또 유전된 식물의 특성을 강화시키며 ‘식물인’이라는 하나의 인간 종으로 생존해 왔다.

과거에 생존을 위해 식물의 특성을 지니도록 개조 수술을 받은 인간이 실험 단계에서 정착을 거쳐 연장된 수명을 지닌 ‘식물인’이라는 인간 종으로 진화한 이들은 트랜스휴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을 포스트휴먼이 아닌 트랜스휴먼으로 보는 이유는 미래의 현대인이 별개로 존재하며, 그들에게 관리되고 있다는 자각도 없는 ‘식물인’이 인간 향상의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한 최종 형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베는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 『제4 간빙기』에서 과학 기술을 이용한 인간 개조라는 주제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 작품들을 변신 모티프를 다룬 아베의 다른 작품들과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먼저 인간이 갑작스레 동식물 혹은 벽, 물, 막대기, 의복 등과 같은 물체로 변하는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들과 달리 변화의 기저에 과학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 기술의 소재 적용은 작품에서 묘사된 일들이 언젠가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게 하며 현실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네 작품에 등장하는 개조된 인간 부류인 수생인간, R62호, K의 공통점은 모두 큰 틀에서 볼 때 인간의 보편적인 외적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은 아가미가 있고, 『R62호의 발명』의 R62호는 두피 밖으로 안테나가 솟아있지만, 그 이외의 외적 차이는 없다. 「맹장」의 K는 신체 안의 장기가 양의 것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외적 변화도 동반되지 않았다. 「납의 알」의 ‘식물인’은 녹색의 피부색과 뿌리가 나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나’가 그들을 보자마자 인간이라고 인식했던 점을 고려하면 과거의 인간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형태가 바뀐 것은 아니다. 또 현대인은 “고대인”인 ‘그’와 동일한 인간 외형을 지니고 있다.

한편, 차이점은 수생인간과 K, ‘식물인’은 생물학적 과학 기술을 사용해 신체를 개조했지만, R62호는 인간에게 기계장치를 삽입했다는 점이다. 기아 문제 해결을 도모하며 인간 개조를 시도한 K와 ‘식물인’과는 달리 R62호가 머리에 안테나 이식 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소장의 사리사육을 채우기 위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차이점도 있다.

R62호와 ‘식물인’은 트랜스휴먼으로 분류했으며, K는 실험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트랜스휴먼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 개조를 도모한 점은 포스트휴먼을 만들기 위한 초기적인 시도라고 해석했다. 특히 R62호는 유기체와 기계의 결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간 개조가 이루어졌으며, 인간의 기계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트랜스휴먼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는 사이보그로 분류했다.

마지막으로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은 크게는 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사라지는 지구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저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포스트휴먼의 기준을 충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휴먼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아베의 작품에서 트랜스휴먼이 아닌 포스트휴먼의 특성을 지닌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제4 간빙기』에는 수생인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와 일본 각 나라에서 개발한 예언기계가 등장한다. 소비에트에서 먼저 ‘모스크바 1호(モスクワ 1号)’라고 하는 예언기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계기로 일본도 중앙계산기술연구소를 세운 후 자국의 유일한 프로그래밍 전문가 ‘나’를 분실장으

로 임명해서 예언기계를 만들고 연구하게 한다. 그리고 ‘나’가 ‘KEIGI-1’호라고 이름 붙인 예언기계를 완성하자마자 소비에트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스크바 2호’의 완성을 공표한다.

소비에트와 일본이 개발한 예언기계는 전자계산기로, 작품 초두에 “전자계산기는 일종의 생각하는 기계다. 기계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할 수 없다. 기계에게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카드라고 하는 기계의 언어로 적은 질문표를 주어야 한다.”⁵⁸⁾고 전자계산기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소비에트의 예언기계는 세계를 대상으로 잇따라 예언을 공표하고 있지만 ‘나’는 위원회의 규제 때문에 자유롭게 예언기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나 해저개발협회라는 조직이 비밀리에 ‘나’의 연구소에 소속된 와다와 요리키의 협조를 받아 미래 예언을 하고 있던 정황이 후에 밝혀진다. 협회는 ‘KEIGI-1’을 사용해 미래 예언을 하고 거기에서 ‘나’의 존재가 해저식민지 건설 계획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는다. 해저개발협회는 예언기계에게 ‘나’의 정보를 입력해서 ‘나’의 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결과 ‘나’의 제2차 예언치가 탄생하게 된다.

“나에게는 육체가 없다. 네가 상상하고 있는 대로 사전에 녹음한 테이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의식이라는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지. 그러나 의식 이상의 필연성과 확실성을 갖추고 있다. 네 사고 회전을 나는 완전히 사전에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해봤자 결국 내 속에 예정된 프로그램에서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지.”⁵⁹⁾

‘나’의 제2차 예언치는 ‘육체’도 ‘의식’도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며 “나의 의지는 곧 너의 의지”라고 자신과 ‘나’를 동일시한다. 그

58) 電子計算機は、一種の考える機械である。機械は考えることはできるが、しかし問題をつくりだすことはできない。機械に考えさせるためには、プログラム・カードという、機械の言葉で書かれた質問表をあたえて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p.11

59) 「おれには肉体がない。君が想像してるとおり、あらかじめ録音されたテープにすぎないんだ。むろん意識なんて上等なものを持っているはずがないさ。しかし、意識以上の必然性と確実性をそなえている。君の思考の働きを、おれはすっかり事前に知ってしまったんだ。だから君がいかにか自由にふるまおうとしてみたところで、いずれおれの中に予定されているプログラムから、一步も外には出られないというわけさ。」 p.118

렇지만 ‘나’의 제2차 예언치는 인간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KEIGI-1’호가 ‘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나’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자계산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느 정도 예보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기계 그 자체보다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기술이지. 프로그래밍…… 즉, 기계가 아는 언어로 문제를 만들어 주는 일인데, 이게 어려워. 지금까지의 기계는 반드시 인간이 해 줘야 했어. 그러나 모스크바 1호라는 녀석은 아무래도 이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계인 것 같아.”⁶⁰⁾

그러나 소련의 ‘모스크바 1호’를 포함한 소설 속의 예언기체는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계로 묘사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인공지능(AI)을 연상케 한다. 인공지능은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컴퓨터공학의 선구자 앨런 튜링(Alan Turing)에 의해 시행된 ‘튜링 테스트(Turing test)’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튜링 테스트’는 컴퓨터가 사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 방에 각각 인간과 컴퓨터를 넣고 대화를 하게 한 후 상대가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판단하는 실험이다.

‘나’는 제2차 예언치가 걸어 온 경고 전화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 존재가 인간이 아닌 기계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제2차 예언치는 완벽하게 인간의 흉내를 낸다. ‘모스크바 1호’가 예언을 끝낸 후에 덧붙인 인사를 보고 ‘나’는 “사람을 먹은 것”이라고 표현하며 기계의 말에서 인간미를 느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제2차 예언치와 ‘모스크바 1호’는 실체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거나, 기계가 작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등 인간에 근접한 존재들로 보인다.

2-1장에서 포스트휴먼은 기존의 인간 형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간형을 의미하며, 기존의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가 더 강화된 트랜스휴머니즘에서 벗어나

60) 「大体電子計算機というものは、もともとある程度の子報能力もっているものなんだ。問題は、機械そのものよりも、それを使いこなす記述でね。プログラミング……つまり、機械に分かる言葉で問題をつかってやる仕事だが、これがむつかしい。今までの機械では、どうしても人間がやらなけりゃならなかったんだ。しかし、モスクワ1号というやつは、どうやらこのプログラミングを、自分でやれる機械らしいね。」 p.13

인간의 조건을 해체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존재라고 서술한 바 있다. 『제4 간병기』의 제2차 예언치와 소비에트의 예언기계는 기존의 인간 형태에서 벗어나 인간의 조건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휴먼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포스트휴먼에 다다른 길 중 하나인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로봇(초지능)⁶¹⁾에 해당하는 포스트휴먼의 원형적인 존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

61) 이한구는 포스트휴먼에 다다른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나는 인간을 인공지능 로봇같이 만드는 것으로 현대의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인간의 젊음과 수명, 능력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몸에 기계를 접목해서 사이보그를 만드는 길로, 인공지능 로봇을 닮아가는 초인간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특히 감성과 의지 능력까지 부과하여 인간과 비슷한 로봇을 만드는 길로,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로봇의 초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한구·신중섭 (2022)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pp.25-31 참조

3. ‘신’인간의 탄생 배경

3-1. 과학 기술과 문학의 융합

2장에서는 『제4 간빙기』에 등장한 수생인간과 예언기계의 존재를 현재 회자되고 있는 다양한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다. 수생인간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개조한 새로운 인간종으로, 인간이 최종 진화 형태인 포스트휴먼에 도달하는 과도기에 위치하는 존재인 트랜스휴먼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소비에트의 예언기계와 일본의 예언기계, 주인공 ‘나’의 제2차 예언치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며 인간의 형태에서 벗어난 포스트휴먼의 원형에 해당한다.

수생인간과 같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을 개조하고자 하는 시도는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세 작품에서는 인간에게 기계 장치 혹은 초식동물인 양의 맹장을 이식하거나 혈액의 일부를 엽록소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조가 이루어졌다. R62호의 경우에는 인간과 기계장치의 결합이라는 트랜스휴머니즘의 트랜스휴먼 유형 중 하나인 사이보그,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전적 사이보그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양의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K는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피실험자로, 장기 이식 수술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트랜스휴먼, 혹은 포스트휴먼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다만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시도는 포스트휴먼을 만들기 위한 초기적 시도라고 보았다. 『납의 알』의 ‘식물인’ 또한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혈액을 엽록소로 바꾸어 식물과 같이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게 개조된 인간 유형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인간 향상의 최종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트랜스휴먼으로 분류했다.

아베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변신 모티프를 다룬 이야기는 ‘변형담’이라고 불리고 있다. ‘변형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등장인물이 동식물로 변하는 『덴도로카카리아(デンドロカカリヤ)』(1949), 『붉은 누에(赤い繭)』(1951), 『수중도시

(水中都市)』(1952)와 물체로 변하는 『S·카르마 씨의 범죄(S・カルマ氏の犯罪)』(1951), 『마법의 분필(魔法のチョーク)』(1951), 『시인의 생애(詩人の生涯)』(1951), 『막대기(棒)』(1955) 등이 있다. 등장인물이 액체로 변하는 『홍수(洪水)』(1951), 투명인간으로 변하는 『바벨탑의 너구리(バベルの塔の狸)』(1951) 또한 변형담에 속한다.

이들 작품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제4 간빙기』,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과 다른 점은 등장인물이 기존 인간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한다는 것과 변화 과정에 과학적 소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제4 간빙기』에서는 생물학, 유전공학, 의학을 비롯해서 컴퓨터, 인공지능처럼 시대를 앞선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과학적 지식과 소재를 발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이와 같이 SF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농후하게 지닌 『제4 간빙기』에서 ‘신’인류를 그리는 데 사용된 과학 기술을 살펴보고 ‘신’인류 구상에 영향을 미친 시대적 배경에 대해 고찰한다.

『제4 간빙기』의 야마모토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외발생 연구소는 “진화를 인위적으로 동시에 비약적으로, 게다가 정향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바탕으로 “생물의 계획적 개조”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소박한 경험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지금까지의 식물과 동물의 품종 개량에서 벗어나 “생물의 계획적 개조” 단계에 다다르기 위해 연구소가 가장 먼저 취한 최초의 연구 테마는 “곤충의 변태”였다. “곤충의 변태” 연구는 생장의 망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과 소련은 9년 전에 이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그려지고 야마모토 연구소에서는 그 이듬해에 독자적으로 획득한 기술을 이용해 구더기 형태 그대로 성장시킨 파리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발생학에 기저를 두고 있는 “곤충의 변태” 연구는 해저식민지 건설을 위해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개조하고 인간을 수생인간으로 만드는 연구로 발전한다.

“(전략)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조의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기본적인 대응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발생적인 단계를 조금 수정하면 그 생물을 계통 발생에서 분리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

지도 매우 조잡한 방법으로 머리가 두 개 달린 송사리나 도마뱀의 입이 붙은 개구리라거나 그런 그로테스크한 기형을 만든 적은 있습니다만 정확한 의미에서 개량을 얻게 된 것은 아니다. (후략)”⁶²⁾

야마모토 박사의 말에 의하면 생물의 개체 발생이란 계통 발생을 반복하는 것으로, 계통 발생에서 특정 생물을 분리시키면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개체 발생이란 생물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과 조직 분화, 형태 형성 등의 과정을 거쳐 성체와 같은 형태를 지닌 개체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계통 발생은 1866년 독일의 생물학자 E. H. 헤켈(Ernst H. Haeckel)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생물의 여러 종이 현재까지 진화해 온 과정을 말한다. 야마모토 연구소는 “생물의 계획적 개조”를 위해 과거에서 현재까지 각종 생물이 거쳐 온 진화 과정, 즉 계통 발생에서 개조하고자 하는 특정 생물을 분리시키고 계획적으로 개체 발생을 과정을 만들어 줌으로써 원하는 형태나 성질을 지닌 새로운 종을 만든다는 목적을 달성한다.

작품에서 묘사된 새로운 종을 만들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태반에서 채취한 미가공의 태아를 확보한다. 이 미가공의 태아를 야마모토 연구소에서는 ‘씨’라고 부르는데 돼지는 대체로 임신 2주 이내의 태아가, 인간은 임신 3주 이내의 낙태된 태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인간을 수생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3주 이내의 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시기에 아가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확보된 각 종의 씨는 불순물을 제거한 후 인공태반에 이식하는데, 이때 실제로 태아와 모체가 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호르몬을 분사해준다. 호르몬은 시간과 양의 분해를 통해 실제로 모체의 태내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저에게도 조금 망상을 말할 수 있게 해주면, 전에 「R62호의 발명」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실제로 미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머리에

62) 「(前略)ところで、御存知のように、個体発生は系統発生を繰返すものです。厳密に言えば、先祖の形をそのまま繰返すわけではないでしょうが、ともかく基本的な対応関係をもっている。そこで、その発生的段階において、なんらかの手を加えてやれば、その生物を系統発生から分離し、まったく新しい種にしてやることもできるわけだ。これまでも、ごく荒っぽいやり方で、頭が二つあるメダカとかヤモリの口がついたカエルだとか、そういったグロテスクな畸型をつくったことはありますが、正確な意味で改良を加え得たわけではない。(後略)」 p.95

라디오를 심어서 조종하는 겁니다. 단순한 행동을 무전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한다. (중략) 그런 식으로 기술이 자연보다 인간 쪽을 향할 경우, 예를 들면 이 다음에 저는 그런 것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커다란 변화 방법은—물론 망상입니다만—수중생활로 인간이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태아일 때 인간은 아가미가 있죠. 인공적으로 바다속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차가 없겠죠. 자원도 무한히 있습니다. 바다 쪽이 더 합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지구는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 커다란 산의 정상만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타고 어딘가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인간을 가공해서 물속에 넣어 수중생활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의 감정도 바뀝니다.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⁶³⁾

아베는 1958년 1월, 아라 마사히토와 하니야 유타카, 다케다 다이준과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가진 좌담회에서 인간이 수중생활로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언급 한 적이 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7월부터 『제4 간빙기』 연재를 시작했다.

상기의 인용문을 통해서 인간이 태아일 때 아가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베가 알고 있었고, 이 지식이 수생인간을 구성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을 거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아베는 인간의 태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별하자면 임신 0주에서 3주 사이에는 배아(胚芽)라고 하며, 꼬리와 4개의 아가미를 지니고 있다. 배아의 아가미는 발달 과정에서 퇴화되어 귀와 같은 다른 기관으로 변하는데, 작품에서는 퇴화를 막아 아가미를 가진 상태로 성장시켜 물속에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수생인간을 만든다.

그러나 물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수생인간에게 수중 활동에 도움이 되는 물갈퀴는 없기 때문에 다리에 ‘물갈퀴’를 신고 있고, 미래 예언에서는 “지느러미를 달

63) ぼくにもちょっと妄想をいわしていただければ、前に「R62号の発明」という小説を書いた。それから間もなく実際にアメリカで可能になった。頭にラジオを植え込んで、操縦するんです。単純な行動を無電で操縦できるらしい。…中略… そういう風に技術が自然よりも人間の方に向かって進む場合、たとえば、この次にぼくはそういうことを書こうと思っているのですが、一番大きな変わり方は—もちろん妄想ですが—水中生活に人間がもどる場合です。それは胎児のときに人間は鰓があるでしょう。人工で海中生活ができるようになる。温度は差がないでしょう。資源は無限にある。海の方がずっと生活が合理的にできる。地球はだんだん暖くなって、北極の氷がとけて、大きな山の頂上だけが残るといふことにならないとも限らない。人工衛星に乗ってどこかに行くこともできるけれども、人間を加工して水の中に入れて水中生活をする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る。そうすると人間の感情も変わる。同じ人間といえる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が。安部公房 (1998) 『科学から空想へ—人工衛星・人間・芸術』, 『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 新潮社, p.197

고”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의 수생인간은 물갈퀴나 지느러미를 신거나 달지 않아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중의 생활 환경에 맞춰 스스로 형태를 변형하는 자연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생인간의 1세대에게는 생식능력이 없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2세대를 만들면 생식력을 지니게 되고 수생 형질이 유전적으로 후세에게도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발생 단계에서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물의 형질을 수생으로 바꾸고 그렇게 얻은 성질을 유전성으로 변화시켜 그대로 자손에게 이어지게 한다는 발상에 대해 도바 고지는 유전공학이 아닌 미추린 생물학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⁶⁴⁾ 『제4 간빙기』는 DNA 나선구조가 발표된 지 겨우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인 작품이다. 또한 소설이 발표된 1950년대는 소련 정부의 지지를 받으며 미추린 생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공학에 의거한 발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미추린 생물학(Michurinistic biology)이란 소련의 생물학자 트로피름 리센코(Trofim Denisovich Lysenko)가 미추린⁶⁵⁾의 육종 이론과 업종을 기초로 제창한 생물학 체계이다. 리센코는 생물의 유전성은 안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의 생활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전성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바는 『제4 간빙기』에서 육생포유동물과 인간을 수생으로 개조하는 프로세스를 동물의 발생 단계에서 분열을 촉진하는 플러스 자극을 가진 호르몬과 분열을 억제하는 마이너스 자극을 가진 호르몬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아가미를 남기는 것으로 정리하였는데,⁶⁶⁾ 발생 단계에서 호르몬을 통해 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형질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미추린 생물학의 이론과 부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수생인간의 탄생이 유전공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도바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유전공학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기초로 하는데 이 기술

64) 鳥羽耕史 (1997) 「安部公房 『第四間氷期』 -水のなかの革命-」 『国文学研究』 (123) 早稲田大学国文学会, pp.107-108 참조

65) 이반 미추린(Ivan Vladimirovich Michurin : 1855~1935). 러시아의 식물 육종가로 생물의 성질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러시아의 기후에 맞는 식물 육성법을 연구했다.

66) 鳥羽耕史 (1997) 전계서, p.108 참조

은 한 생물에게서 필요한 유전자를 추출해 다른 생물의 유전자에 집어넣어서 유익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⁶⁷⁾ 유전자의 본체인 DNA(Deoxyribo Nucleic Acid)의 구조는 1953년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프란시스 크릭(Francis Crick)에 의해 이중나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유전공학 단계로 올라오며 유전공학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DNA 구조가 밝혀진 후 20여 년이 지난 1972년에 폴 버그(Paul Berg)가 재결합 DNA를 만들어 유전자공학의 기초를 구축하고, 1973년에서 1974년에 걸쳐 스탠리 코헨(Stanley Cohen)과 허버트 보이어(Herbert Boyer)가 함께 유전자를 추출해서 재조합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묘사된 육생동물을 수생동물로 만들고 인간을 수생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대한 묘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수생인간이라는 발상이 유전공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생인간을 탄생시킨 발상이 유전공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는 이외에도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좌담회에서 수중생활을 하는 인간에 대한 아베의 이야기를 들은 아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 앞날의 이야기인지를 묻는다. 이에 아베는 “외과 수술이 그 정도 발달하면……. 소비에트에서는 이미 머리가 두 개인 개를 수술로 만들 수 있다.”⁶⁸⁾고 답했는데 이것은 소련의 외과의사였던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 데미코프(Vladimir Petrowich Demikhov)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블라드미르 데미코프는 1954년 인간의 장기이식 성공을 최종 목적으로, 작은 개의 머리와 앞다리 부분을 몸에서 분리해서 큰 개의 목 부분에 이식하는 수술을 시도하여 성공한다. 이러한 이식 실험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수술을 받은 개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짧게는 몇 시간 만에 죽기도 했다. 현대 의학에서는 장기를 이식한 개들이 오래 생존하지 못한 이유는 이식거부 반응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으로 보고 있으나, 당시의 데미코프는 기술 부족을 원인으로 생각했고 결과적으로는 거부반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데미코프의 실험은 그리스 신화의 머리가 셋 달린 괴물 키메라를 연상시키기

6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키워드:유전공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1801> 검색날짜:2023.04.24.

68) 安部公房 (1998) 「科学から空想へ—人工衛星・人間・芸術」 『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 新潮社, p.197

때문에 ‘키메라 실험’이라고 불리거나 당시 소비에트 연합 보건부에서도 그의 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했을 만큼 잔인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데미코프의 실험이 현대 의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크다는 측면에서 장기이식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한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베의 “머리가 두 개인 개”의 수술에 대한 언급과 『제4 간빙기』의 “머리가 두 개 달린 송사리”는 데미코프의 ‘키메라 실험’을 의식한 발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과 같은 작품에는 어떠한 과학적 기술이 사용되어 인간이 개조되었을까? 『R62호의 발명』에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실타복을 넣어 잘라낸 후 그 자리에 3cm의 안테나가 달린 인공 두개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 인간은 로봇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때의 수술 방식은 로보토미 수술, 즉 전두엽절제술이 바탕이 된 것으로, 고슈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영향을 받아 로보토미 수술이 보급되고 성행한 당시 일본의 상황이 아베로 하여금 인간의 로봇화라는 테마로 이어지게 한 것이다.⁶⁹⁾

「맹장」의 경우, 양의 맹장을 인간에게 이식하는 수술은, 『제4 간빙기』에서 “머리가 두 개 달린 송사리”와 같이 인간의 장기이식 성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데미코프의 ‘키메라 실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간의 혈액 일부를 염록소로 교체하는 수술을 그린 「납의 알」을 포함하여 상기의 작품들은 유전공학의 성질과는 거리가 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은 유전공학이 아닌 미추린 생물학, ‘키메라 실험’이라는 발상에 의한 것으로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공학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야마모토 박사는 수생인간을 포함하여 수생동물로 개조한 육생동물의 1세대는 생식능력이 없지만 2세대를 1세대와 “같은 프로세스로 태외발생을 시켜보면” 외부의 기술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번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1세대는 자연적으로 수정된 배아를 수술을 통해 채취하고 인공 태반에서 성장시

69) 고히슈 다스티더, 데바시리타 (2004) 「安部公房にとってのロボット文学—短編小説「R62号の発明」をめぐって—」 『文学研究論集』 (22)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p.60 참조

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생식능력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1세대가 자연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생인간 2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이 요구될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아베는 소련의 데미코프에 대한 언급뿐만이 아니라 파블로프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고 있다. 좌담회에서 아베는 “정밀함에 있어서는 천재였다. 그가 왜 그런 기발한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 하면 뒤엉킨 신경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분리해도 원래대로 연결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치밀한 수술을 할 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의 비약도 가능했다.”⁷⁰⁾고 이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Ivan Petrovich Pavlov)에 대해 말한다. 여기에서 아베가 말하는 파블로프의 “기발한 이론”은 뇌의 작용에 대해 연구한 조건반사를 가리킨다.

좌담회가 열리기 약 4년 전인 1954년 6월, 『이와나미강좌 문학(岩波講座 文学)』 제8권에 게재된 「문학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文学における理論と実践)」에서도 아베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인식과 표현을 분리하는 사고방식이 관념론이라는 것이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계(二系)학설에 의해 명확해졌다.

이계(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개에게 먹이를 주면 타액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어떤 개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보이는 생리적인 조건반사를 기초로, 그것에 전기 종소리(조건자극) 등을 결합해서 만든 조건반사의 형성을 생각해 낸, 말하자면 생리학적 상부구조라는 사상인 것이다. 이것은 의식의 생리적 기초를 만드는 것으로써 다윈의 진화론에 비할만한 사상혁명이었다.⁷¹⁾

70) 精密さという点では天才だったんです。彼がなぜあんな奇抜な理論を創り出せたかという、もつれあつた神経を、一本一本きれいに離してもと通りにつなぐというような、常識で考えられない緻密な手術をやれた人で、そういうことから理論の飛躍も可能になった。安部公房(1998)「科学から空想へ—人工衛星・人間・芸術」『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新潮社, pp.194-195

71) 認識と表現を切り離す考え方が観念論であることは、パブロフの条件反射二系学説によってすでに明らかにされている。二系学説というのは、たとえば犬に食餌を与えれば唾液が流れ出るというような、どの犬でも、時と所をえらばず、同様に示す生来的な条件反射を基礎にして、それに電鈴の音(条件刺激)などを結合させてつくった条件反射の形成をおもいついた、いわば生理学的上部構造ともいふべき思想なのである。これは意識の生理的基礎づけとして、ダーウィンの進化論にも比すべき思想革命であった。安部公房(1997)「文学における

파블로프는 일생동안 세 가지 생리학 분야의 연구에 전념했는데 1874년부터 1888년까지는 피순환생리에 대해서, 1888년부터 1897년까지는 소화생리에 대해서, 그리고 1898년부터 1936년에 사망하기까지는 조건반사를 통한 고등 뇌기능 연구를 했다.⁷²⁾ 흔히 알고 있는 조건반사 실험은 종을 울리고 개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반복하면 종소리를 통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고, 이후에는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는 반응을 끌어내는 실험을 말한다. 이러한 반응은 선천적인 무조건반사이고, 자극을 줌으로써 특정 조건에 반응을 보이게끔 조건화하는 것을 조건반사라고 한다. 파블로프는 개가 특정한 조건에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반복했다.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 학습, 정신활동 등 고등한 뇌 기능을 조건반사라는 생리적 현상에 기초한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었다.⁷³⁾

(아이들, 신호가 나오고 있는 듯한 방향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앞 다투어 왼쪽의 출구에 돌진해 간다. 카메라가 그 뒤를 쫓는다. 잠수용 호흡기를 장착한 두 명의 여자. 한 명은 커다란 상자 옆에 서고 다른 한 명은 막대기를 비벼서 무언가 지시를 주고 있는 듯하다. 아이들, 그 앞에 일렬로 선다. 여자 한 명이 상자에서 까만 문고판 정도 크기의 물건을 꺼내서 차례대로 건네준다. 받은 아이 한 명이 갑자기 그것을 덥석 문다.)⁷⁴⁾

상기의 인용문은 수생인간을 육성하는 수생인 양육장의 식사 시간을 묘사하고 있다. 식사를 배식 받은 후에 바로 입에 집어 넣은 아이를 인간이 막대기로 때리고 아이는 도망을 가는 장면이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아이들에게

理論と実践』『安部公房全集 004 1953.10-1955.02』, 新潮社, p.317

72) 김옥주 (1992)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의 형성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14(2) 한국과학사학회, p.257

73) 김옥주 (2000)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 파블로프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한국과학사학회, p.246 참조

74) (子供たち、信号が出ているらしい方向を、じっと見ていたが、たちまち先を争って、左手の出口に突進していく。カメラがその後を追う。アクア・ラングをつけた二人の女。一人が大きな箱のわきに立ち、いま一人が棒切れをこすり合わせて、何かの指示をあたえているらしい。子供たち、その前に、一列に並ぶ。女の一人が、箱から黒い文庫本ほどの大きさのものをとり出して、次々に渡してやる。受取った子供の一人、いきなりそれにかぶりつく。) pp.148-149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고 통제하는 훈련을 하는 부분이 식사 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 시간은 발신소에서 신호를 보내 알리고 있는데, 식사 시간과 음식, 그리고 신호라는 세 가지 키워드의 조합은 널리 알려진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을 수생인간의 식사 시간을 묘사한 장면에 적용하면 수생인간이 식사 시간에 음식을 받자마자 입에 넣는 반응은 무조건반사이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막대기로 때리는 것을 반복하는 자극을 줘서 조건화를 형성하여 음식에 달려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조건반사에 해당한다.

전두엽절제술을 떠오르게 하는 인공두개골을 이식하는 수술, 장기이식수술, 발생학, 데미코프의 ‘키메라 실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 등과 같이 인간 개조를 그린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베의 다양한 의학적 지식은 그의 성장 배경을 떠올리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아베의 아버지는 만주 봉천 남만의학당(滿洲奉天南滿医学堂)에 진학해서 영양학을 전공한 후 비타민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에는 조교수가 되었고, 아베는 1943년 9월 전시교육체제로 세이조(成城)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의학부의과에 입학,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정신과 의사가 될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⁷⁵⁾ 이는 아베가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작품에 응용하게 된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나타난 과학적 소재가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인 범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제4 간빙기』에는 수생인간 뿐만 아니라 예언기계가 등장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가 개발하고 있는 예언기계는 “20평 정도의 넓이 가득 ‘크’자 형태로 배치된 거대한 철 상자의 열”로 묘사된다. 예언기계의 형태 묘사를 통해서 초기의 컴퓨터와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를 동시에 연상할 수 있다.

1985년 10월에 열린 제6회 국제 심포지엄 「인간과 과학의 대화(人間と科学の対話)」의 「기술과 인간(技術と人間)」 강연용 초고에서 『제4 간빙기』에 대해 아베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제가 『제4 간빙기』라고 하는 소설은 쓴 것은 지금부터 26년에서 27년 전의 일

75) 谷真介 (2002) 『安部公房評伝年譜』 新泉社, pp.7-14 참조

입니다. 일종의 미래소설로서 보다 좋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 컴퓨터를 사용해서 미래예측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성한 예측기는 일단 상세한 미래 예상 모델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인 주인공은 암만해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예상 모델에 의하면 환경 이변을 벗어나 근미래의 인간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해서 아가미를 자라게 하여 수생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⁷⁶⁾

인용문에서 아베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해서 수생인간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서 수생인간을 만든 과정에서 유전자 재조합기술은 찾아볼 수 없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유전공학이 아닌 생물학적, 의학적 지식에 의한 발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에서 예언기계 혹은 전자계산기로 지칭되는 기계를 ‘컴퓨터’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언기계는 작품이 발표된 시기를 고려하면 특히 개발 초기 단계의 컴퓨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으며, 아베도 “아직 아무도 컴퓨터가 실용화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과 같이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되지 않고 생소했던 시기에 컴퓨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컴퓨터의 역사는 고대의 주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기계식 계산기를 거쳐 전자식 계산기로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은 컴퓨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진수의 디지털 방식 데이터를 사용해 완전한 전자식 연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1939년에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존 아타나소프(John Atanasoff)와 클리포드 베리(Clifford Berry)가 개발한 ABC(Atanasoff-Berry Computer)이다. 1944년 영국에서 개발된 독일의 암호해독용 컴퓨터 콜로서스(Colossus)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⁷⁷⁾

76) ぼくが、『第四間氷期』という小説を書いたのは、今から二十六、七年前のことでした。一種の未来小説で、よりよい未来を実現するためには現在をどう軌道修正すべきか、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て未来予測をする話です。完成した予測機はいちおう詳細な未来の予想モデルを描き出してくれました。しかし開発者である主人公はどうしてもその結末が気に入らない。その予想モデルによると、環境の異変をのがれて近未来の人間は、遺伝子組替えの記述を使ってエラをはやし、水棲人間に変わってしまっている。安部公房 (2000) 「シャーマンは祖国を歌う—儀式・言語・国家、そしてDNA」 『安部公房全集 028 1984.11-1989.12』, 新潮社, p.229

77) 토미 플라워스가 설계했으며 종전까지 10여 대의 콜로서스가 운영되었다가 종전 후에는 군사 기밀을 이유로 기계와 설계도 모두 파괴되었다. 백옥인 (2013) 『컴퓨터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pp.19-21 참조

로, 군사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극비였다.

1955년까지 군사적 목적에 필요한 탄도 계산을 비롯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된 에니악(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은 미국 육군의 예산 지원을 받아 탄도표 작성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컴퓨터로, 1943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무어전자공학대학에서 ‘프로젝트 PX(Project PX)’라는 코드명으로 개발을 진행, 1946년에 완성되었다.⁷⁸⁾

이렇듯 초기의 컴퓨터는 개발 목적이 전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정부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거대한 몸체와 비싼 가격 때문에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제4 간빙기』의 전자계산기 역시 20평의 공간을 채울 만큼의 거대한 몸체를 지니고 있으며 작동에는 실제로 초기 컴퓨터에서도 사용했던 천공 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설 속에서 소련의 ‘모스크바 2호’가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예언기계 연구를 관리하는 일본의 프로그램 위원회는 예언 내용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을 꺼리며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 없이 예언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약을 가한다. ‘나’는 위원회의 제약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적인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고자 한다. 그리고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남자를 실험 대상으로 정하지만, 다음날 신문기사로 그가 교살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남자가 왜 살해당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중앙보험병원 계산실의 야마모토 박사의 도움을 받아 남자의 시체를 전자계산기에 연결해서 분석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십분 전에 시체가 운반됐다. 시체는 특수한 가스와 함께 커다란 유리 상자에 밀폐되어 있고 분석원은 이것을 매직 핸드(머니플레이터 : 역자 주)로 원격 조작하는 것이다. 야마모토 박사가 상자 옆에 서서 설명해주었다. (물론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상자의 왼쪽에서 방사선이 나오고 있고 오른쪽 벽에는 그것을 쥘 시체의 해부학적 지도가 나타나있다. 이 지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매직 핸드(머니플레이터) 선단의 머리카락 같은 금속바늘을 정확하게 정해진 신경섬유가 있는 장소로 이끌어 간다. 머

78) 백옥인 (2013) 전계서, p.26 참조

리에 쓰고 있는 모발 대신 동선이 뭉쳐서 난 금속제의 두꺼운 모자는 잘라낸 두 개골 대신에 직접 뇌에 접속해서 계기의 역할을 완수한다고 한다.⁷⁹⁾

이후 매직 핸드(머니플레이터)⁸⁰⁾의 바늘이 시체의 몸을 찌르고, 벽에 박힌 램프가 점멸하며 나타내는 기계의 언어에 반응하여 시체가 살아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것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터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이 괴물을 만들어 내는 장면을 상기시킨다.

『프랑켄슈타인』은 괴기소설로 분류되는 동시에 18세기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루이지 갈바니(Luigi Galvani)의 ‘갈바니즘(Galvanism)’에 근거해서 생명 창조를 실험하는 과학적인 소재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 최초의 SF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갈바니즘’이란 갈바니가 개구리 뒷다리 실험을 통해 발견한 이론을 일컫는다. 갈바니는 해부실험을 하던 중 개구리 뒷다리에 메스가 닿자 경련을 일으키는 반응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계속한 결과 이 현상이 전기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물의 뇌에서 전기가 발생해서 근육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동물 전기’라 명명했는데, 이 발견은 전기생리학, 전자기학, 전기화학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⁸¹⁾

어린 시절 독일의 연금술사 코넬리우스 아그리파(Henricus Cornelius Agrippa)의 책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연금술에 빠진 『프랑켄슈타인』의 빅터는 대학에 진학하며 근대과학을 접하고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싶다는 야심을 키운다. 생명체 탄생을 위한 연구를 거듭하던 빅터는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밤에 짜 맞춘 시체 조각에 전기를 통과시켜 2미터가 넘는 키의 괴물을 창조한다. 연금술의 초자연적 이론에서 출발한 빅터의 생명을 창조하고자 한 열망은 갈바니즘, 해부, 생물학,

79) 十分前に死体が搬びこまれてきた。死体は、特殊なガスと一緒に大きなガラス箱に密閉され、分析員はこれを、マジック・ハンドで遠隔操作するわけだ。山本博士が、箱のそばに立って説明してくれた。(むろん私はテレビをとおして眺めているわけである。) 箱の左側から放射線が出されており、右側の壁にはそれをうけた死体の解剖学的地図が現れている。この地図は、目にこそ見えないが、見える以上の力をもって、マジック・ハンドの先端の髪の毛ほどの金属針を、正確に所定の神経繊維のある場所に導いていく。頭にかぶっている、毛髪がわりに銅線が束になって生えた金属製の暑い帽子は、切りとった頭蓋骨のかわりで、直接脳に接して計器の役割をはたすのだそうである。p.42

80) 머니플레이터(manipulator) 혹은 매직핸드(magic hand). 강한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보거나 조작할 때 방사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공간에서 원격 조작하는데 사용하는 장치.

81) 두산백과 두피디아 검색키워드:루이지 갈바니,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29252 검색날짜:2023.04.23

화학 등의 근대과학의 지식⁸²⁾과 기술을 이용한 실험으로 이어지며 생명 창조라는 성과를 이루어 낸다. 하지만 빅터는 자신이 창조해 낸 괴물에 엄청난 혐오감을 느끼며 도망가 버린다.

『프랑켄슈타인』에서 묘사되는 괴물 창조 장면과 『제4 간빙기』의 죽은 남자를 분석하는 장면은 시체 조각을 짜 맞춘 결합체나 시체, 즉 죽은 것에 자극을 가해 생명이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베가 갈바니의 ‘갈바니즘’이라는 과학소재를 근거로 남자 시체의 분석 장면을 그려냈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갈바니의 ‘동물 전기’, ‘갈바니즘’ 이론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레산드로 볼타(Alessandro Volta)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이미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4 간빙기』의 남자의 시체를 분석하는 묘사의 기저에는 어떠한 과학적 소재가 존재하는 것일까?

남자의 시체를 예언기계에 연결하기 위해 옮긴 중앙보험병원의 계산실은 “생리반응을 재현해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검사진단용 전자계산기를 놔둔 방”이다. 여기에서 검사진단용 전자계산기는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컴퓨터로 보이며, 방사선이 남자와 전자계산기를 연결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방사선을 이용한 시체의 근육, 내장 등의 신체 분석은 X선 촬영 기술에서 연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아베는 기존의 과학 기술을 작품에 녹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석 결과를 중앙보험병원이 아닌 중앙계산기술연구소에 있는 ‘나’가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즉시 분석 결과를 확인한다는 진보된 방식을 기술하고 있다.

1962년 9월 『아사히 저널(朝日ジャーナル)』에 발표한 에세이 「SF의 유행에 대해서(SFの流行について)」에서 아베는 SF 장르의 반대론자와 찬성론자 모두 공통적으로 황당무계한 유사과학을 부정하고 적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며, 유사과학의 정신이야 말로 SF를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지주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학은 목적이 아니고 가설을 형상화하기 위한 소재에 지나지 않으며, SF를 가설의 문학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던진다. SF를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괴기소설이나 판타지 소설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괴기와 SF의 차이는 작품에 등장하는 괴물이 단지 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기 위한 가설인지의 차이에 있다

82) 손나경 (2021) 전계서, p.93 참조

고 하며 그 예로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와 호프만(Ernst Theodor Wilhelm Hoffmann), 메리 셸리를 들고 있다. 특히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을 SF적 괴물의 예로 들며 동명의 영화에서 괴물은 악인이자 괴담적 괴물에 지나지 않지만, 소설 속의 괴물은 인간의 사랑과 고독을 살피기 위한 가설적 괴물이기 때문에 영화는 SF로 볼 수 없으나 소설은 SF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베에게 있어 SF란 황당무계한 유사과학적 소재를 통해 가설을 형상화하고 현실을 파헤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제4 간빙기』가 발표되었던 당시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예언기계와 기계가 예언한 제2차 예언치 값인 ‘나’, 육생에서 수생으로 개조된 동물과 인간의 존재에서 독자들은 현실미를 느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인공지능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유전공학 발달로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아기를 둘러싸고 배아 연구와 관련 윤리적 문제를 논쟁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제4 간빙기』 속 세계는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었거나 혹은 앞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아베는 앞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수중도시를 다룬 이야기를 ‘망상’이라고 했지만, 완성된 『제4 간빙기』는 괴기소설과 같이 단지 괴물을 그려낸 것이 아닌 폭넓은 과학 지식과 소재를 토대로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라는 가설을 형상화하여 구축된, SF 장르의 성격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인공위성과 우주 시대 개막

전장에서 『제4 간빙기』에는 의학, 생물학 지식과 컴퓨터 관련 지식 등 폭넓은 과학 지식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지식이 망라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장에서는 소설 속에서 ‘신’인류 개발이라는 발상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아베의 시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설은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해일이 육지를 향해 뺨어 나가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해저개발협회가 비밀리에 수생동물과 수생인간을 만들고 해저식민지를 개발한 이유는 바로 이 자연재해로 맞닥뜨리게 된 인류의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저는 그저 사무국의 인간으로서 간단하게 한마디……이것은 가즈미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만, 저기, 오늘 아침에도 신문사에서 전화가 있었던…… 태평양 해저화산의 활동에 대해서 공동조사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의 그 소련에서 신청한……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요리키 씨에게 부탁해서 이쪽에서는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아니, 아마 소련에서도 대강 짐작은 하고 있을 테지만 그것은 그, 특기인 정치적 흥정이라는 것으로……83)

상기의 인용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태평양의 해저 화산 활동에 대해 소련 측이 공동 조사를 요청했다는 부분으로, 이후에 ‘지구관측년’이라는 구체적인 용어가 등장한다. ‘지구관측년’ 뿐만이 아니라 이상고온, 해면상승, 기상이변 등과 같은 용어들도 발견할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아베가 소설 속에서 현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은 인상적이다.

『제4 간빙기』가 발표된 1958년은 국제지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소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지구관측년’은 국제지구관측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지구관측년은 1957년 7월 1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세계적인 규모로 지구물리학 현상을 관측한 국제협동관측사업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남극 관측, 빙하, 지진, 기상, 오토라, 방사능, 태양활동, 인공위성과 로켓을 이용한 관측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측이 이루어졌다.⁸⁴⁾

83) —私はただ、事務局の人間としてですな、簡単に一言……これは、勝見先生もすでに御存知のことなんですが、それ、今朝がたも新聞社から電話があった……太平洋海底火山の活動化について、共同調査してほしいという、例のソ連からの申入れですな……実を申しますと、頼木さんをお願いしまして、こちらではどうに調査済みだったんです……いや、たぶん、ソ連のほうでも、おおよその見当はつけておるんでしょうが、それはそれ、お得意の政治的かけひきというやつで…… p.150

84)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검색키워드:국제지구관측년 <https://www.scienceall.com/%ea%b5%ad%ec%a0%9c%ec%a7%80%ea%b5%ac%ea%b4%80%ec%b8%a1%eb%85%84-international-geop>

국제지구관측년에는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Sputnik) 1호가 관측에 사용되기도 했다. 스푸트니크 1호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로 발사에 성공한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를 스푸트니크 충격(Sputnik shock)이라고 일컫는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은 큰 충격을 받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미국은 항공 우주 분야에 예산을 늘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설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다. 1958년 1월 31일 미국에서 첫 번째 인공위성 익스플로러(Explorer) 1호를 발사하지만 소련은 이미 스푸트니크 2호에 라이카라는 이름의 개를 태워 두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뒤였다.

소설에서 묘사된 예언기계 ‘모스크바 1호’의 등장에 대한 반응은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것에 대한 반응을 상기시킨다. 특히 예언기계를 둘러싼 개발 경쟁 구도는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 구도와 중첩된다.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그러했듯이 소설 속에서도 소련이 완성한 최초의 예언기계 ‘모스크바 1호’의 등장은 세계를 놀라게 한다. 특히 일본 유일의 프로그래밍 전문가인 주인공 ‘나’는 질투심과 함께 뒤처졌다는 기분을 느끼고 연구소의 소장과 지인들을 설득하여 자신도 예언기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러는 와중에도 소련은 예언기계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해나가며 ‘모스크바 2호’, ‘모스크바 3호’까지 발표하는데, 예언기계에 붙여진 이 이름에서 소련의 인공위성에 붙여진 이름 스푸트니크 1호, 2호, 3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4 간빙기』의 예언기계를 둘러싼 연구와 경쟁 구도가 작품이 발표된 1950년대 당시의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 개발과 경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카노 가즈노리는 1950년대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자계산기에 관해서는 미국이 선진국이고, 소련은 후진국이었지만 소설에서 예언기계 연구 분야에서 소련이 선진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소설에 반영하기 위해서⁸⁵⁾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던 소련의 인공위

hysical-year-igy/?term_slug= 검색날짜:2023.05.01

85) 中野和典 (2011) 「予言=権力 一安部公部 『第四間氷期』 論一」 『近代文学論集』 (37) 日本近代文

성의 이미지를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소련에서 만든 예언기계의 높은 성능에 현실미를 주고 그와 대응하여 일본에서 만든 예언기계의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예측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증성과 기계의 재현능력을 통해 예측능력을 측정하는 재현성, 소련과 일본의 예측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측정하는 조율성이 예언기계의 신뢰를 구성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아베가 소설 속에서 소련의 예언기계에 현실미를 높이고 일본에서 만든 예언기계의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해서만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작품에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2호까지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 중 한 명인 아라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러시아의 인공위성 말입니다만, 저는 그것을 우리 인류의 인공위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경이라거나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이내에 점점 희미해집니다.⁸⁶⁾

아라는 인공위성을 소련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것으로 확장시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공위성이 발사된 것을 계기로 장래에는 국경과 애국심이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충성 역시 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인용한 내용에 이어 아라는 인공위성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상징적 존재의 등장으로 인해 인공태양, 인공생명, 인공두뇌 등을 비롯해 공간과 시간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우주문명과 교류하게 되면 지구인의 사회조직도 변할 것이라 주장하며 슈퍼맨과 같은 초인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내비치며 인공위성의 존재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⁸⁷⁾ 반면, 아베는 인공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소련이 소비에트 체제와 국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며 인공위성이 발사된 배경에 내재된 모순을 지적한다.

기술 발달에 따른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혁 원리를 손에 넣은 인간이 생

学会九州支部, p.119 참조

86) ロシアの人工衛星ですが、ぼくはあれをわれわれ人類の人工衛星とも受け取るのです。国境とか愛国心ということは十年以内にだんだん薄れていく。安部公房 (1998) 『科学から空想へ — 人工衛星・人間・芸術』 『安部公房全集 008 1958.12-1958.06』 新潮社, p.207 참조

87) 상계서, pp.190-199 참조

명까지도 변화시키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하니야와 인간이 만들어 낸 기계에 인간의 몸이 뒤쳐진 시대라는 관념을 언급하며 사람의 육체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십 년 이내에 중대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다케다도 아라와 같이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전망을 예측한다. 그러나 아베는 인공위성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달을 인간이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보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아베, 아라, 다케다, 하니야 모두 관점은 다르지만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소련의 인공위성이 지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보된 기술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징성은 소설 속의 예언기계에도 부여되어 있다.

“웰스의 타임머신이 유치했던 것은 시간여행이라고 하면서 결국 시간의 추이를 공간적으로 번역한 것으로만 파악한 점에 있다. 사람은 박테리아를 현미경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본다. 하지만 그 경우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지 않았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언기계 《모스크바 1호》로 인류는 확실하게 미래를 눈으로 보고 말았다. 마침내 타임머신은 실현되었다! 지금 우리는 문명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⁸⁸⁾

위의 인용문은 ‘모스크바 1호’가 완성 된 이후 ‘나’가 3년 동안 꾸준히 수집해 온 예언기계를 다룬 기사 스크랩북의 첫 페이지로 한 과학평론가의 견해를 담고 있다. “전문가는 눈을 떠라!”라고 논평의 첫머리를 시작한 과학평론가는 H. G.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에 나오는 타임머신과 예언기계를 비교하면서 예언기계의 완성으로 인류가 문명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좌담회에서 아라가 “인공위성이 발사된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문명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며 앞으로 “인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상기시킨다. ‘나’는 과학평론가의 기사를 읽고 그렇게 말

88) 「ウェルズのタイム・マシーンが幼稚だったのは、時間旅行などと言いながら、けっきょく時間の推移を空間的に翻訳してしか捉え得なかったところにある。人はバクテリアを、顕微鏡という間接的な手段をとおしてみる。しかしその場合、肉眼で見たわけではないからおいて、見なかったといえば間違いだろう。同様に、予言機械《モスクワ1号》によって、人類はたしかに未来をこの目で見てしまったのだ。ついにタイム・マシーンは実現した！いま、われわれは、文明史のあらたな曲がり角に立っているのだ！」 p.12

할 수도 있겠다고 납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친 과장이라 생각하며 그가 본 것은 미래가 아니라 그저 뉴스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련의 ‘모스크바 1호’는 인간의 도움 없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예언 내용도 매우 낮은 오차율과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모스크바 1호’는 일본에 일기 예보, 산업경제 전망, 쌀 수확량을 비롯해 “상반기 4분기 전국은행 감정”, “앞으로 한 달간 부도 어음 전망”, “한 백화점의 매상 예상”, “나고야시(名古屋市)의 다음 달 소매물가지수”, “도쿄항 재고 전망” 등과 같은 예언을 쏟아낸다.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에는 다음과 같은 인사말도 덧붙이고 있다.

《모스크바 1호는 또한 귀국의 주가지수 및 생산재고의 비율 예상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삼가겠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평한 경쟁뿐이다. (후략)》⁸⁹⁾

‘모스크바 1호’의 예언과 인사말에 반응하여 일본 정부는 서둘러 중앙계산기술 연구소에 분실을 설치하고 일본 유일의 프로그래밍 전문가인 ‘나’를 분실장으로 임명한 후 독자적인 예언기계 연구에 착수한다. 그 결과 3년 후에는 일본에서도 첫 번째 예언기계 ‘KEIGI-1’을 완성해서 정식으로 발표하지만, 소련은 기다렸다는 듯이 ‘모스크바 2호’의 완성을 알리며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언까지 발표한다. ‘KEIGI-1’을 공표하자마자 ‘모스크바 2호’의 완성을 알리는 소련의 태도는 예언기계 개발 연구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과시하고 경쟁의 우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도 소련이 월등히 앞서 나가는 예언기계를 둘러싼 경쟁 구도를 통해 당시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 상황이 투영되고 있다.

소설 속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이 일본에 대해 예언한 내용만이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모스크바 1호’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유 각국”에도 그 나라에 맞춘 예언을 보낸 것으로 묘사되며 소련 예언기계의 예언 대

89) 《モスクワ1号は、なお貴国の株価指数、ならびに生産在庫の比率予想なども可能である。しかし、経済不安をおこすおそれがあるのでそれは遠慮したい。われわれが望んでいるのは、あくまでも、フェアな競争以外のなにものでもない……》 p.15

상이 일본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모스크바 1호’가 세계 각국에 예언을 보냈을 때 미국을 포함한 “다른 자유 각국”은 모두 침묵했지만,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모스크바 2호’의 예언에 대해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

“예언과 점성술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도덕심을 전제로 한 것만이 비로소 예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것이다. 그것을 기계에게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성 부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예언기계를 완성했지만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그 사용을 피하고 있었다. 이번 소련의 태도는 평화공존의 목소리를 배반하고 국제우호 및 인간의 자유를 위협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모스크바 2호의 예언을 정신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한 파기와 철회를 권고한다. 만에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유엔에 제소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스트롬 장관담)⁹⁰⁾

상기의 인용문은 ‘모스크바 2호’의 공산주의 사회 예언에 대해 미국 측이 발표한 성명으로 강경한 태도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우방 국가의 위치에 있는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가 완성한 일본의 예언기계 ‘KEIGI—1’은 실제로 예언을 하는 단계의 목전에 와있었지만, 미국의 입장 보도 이후 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예언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며 예언 내용도 정치와는 무관해야 한다는 강력한 제약을 받는다.

도바는 『제4 간빙기』가 모두(冒頭)에서부터 미국과 소비에트의 힘 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나’는 그 속에서 예언기계의 미국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미국적 인물이고, 반면에 요리키는 미추린 생물학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수생인간에게 미래를 맡겼기 때문에 소비에트적인 인물이라고 지적한다.⁹¹⁾ 그러면서 아베가 『제4 간빙기』를 통해 미국과 소비에트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일본을 비추고 있다고

90) 「予言と占いとは根本的にちがったものであり、道徳心を前提にしたものだけが、はじめて予言の名に値いするものだ。それを機械にまかせるなど、まさに人間性の否定というよりほかはない。わか国でも、すでに早くから予言機械を完成していたが、良心の声にしたがって、その使用はさけてきた。このたびのソ連のやりかたは、平和共存の掛声を裏切って、国際友好ならびに人間の自由をおびやか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われわれは、モスクワ2号の予言を、精神に対する暴力であると考え、そのすみやかなる破棄と撤回を勧告する。万一、容れられない場合は、国連に提訴することも辞さないつもりだ。(ストローム長官談)」 p.17

91) 鳥羽耕史 (1997) 전계서, p.111 참조

보았다.⁹²⁾

나카노는 『제4 간빙기』가 소련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통해 인공 위성을 발사한 직후에 성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설 속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자랑하는 대기넘비”라는 위치에 놓인 것으로 묘사되는 소련의 예언기계와 당시 소련의 인공위성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했다.⁹³⁾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소련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기술의 기저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존재하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개발과 발사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국제지구관측년에 맞춰 진행된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를 통해 우주 공간에서 지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며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련은 인공위성 기술에서 미국보다 앞서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소련이 인공위성을 미국보다 먼저 발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보다 먼저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속에서 우주 경쟁, 대륙간탄도미사일 경쟁은 소련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아베는 『제4 간빙기』의 예언기계를 통해 당시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한 미소 기술 경쟁을 투영하고 있다. 또한 예언기계를 중심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 묘사를 통해 당시 두 나라 사이의 정체체제와 이념 대립을 비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자유롭게 예언기계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 당시 일본의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2) 鳥羽耕史 (1997) 전계서, p.115 참조

93) 中野和典 (2011) 전계서, p.119 참조

4. 내재하는 대립

4-1. 개인을 파괴하는 조직

『제4 간빙기』에서 해저식민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해저개발협회는 수중에서 목축업에 활용할 수 있는 동물을 시작으로,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간도 수생으로 개조한다. 본장에서는 수생인간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인간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그들이 선택되는 이유와 조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계성에 대해 고찰한다.⁹⁴⁾

해저개발협회가 인간을 수생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임신 3주 이내의 태아이다. 해저개발협회는 특히 낙태된 태아를 확보해 수생인간으로 개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인간의 태아를 개조하기 전에는 곤충과 동물을 대상으로 개조실험을 했다는 기술로 보아 협회의 수생인간 개조 프로세스는 곤충, 육생동물, 인간이라는 순서로 단계별 변화를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낙태 수술을 받고 태아를 해저개발협회에 제공한 것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등장인물은 곤도 지카코와 ‘나’의 아내인 사다코(貞子)이다. 먼저 곤도는 카바레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고 있는 직업여성으로, 쓰치다 스스무(土田進)라는 인물과 불륜관계에 있었다. 쓰치다 스스무는 협회에 의해 교살 당하고 시체는 전자계산기에 연결돼서 분석 당한 인물이다. 곤도는 쓰치다와 불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사실도 알리지 않고 낙태 수술을 받을 것인지도 혼자 고민하고 결정한다. 한편 사다코는 자궁 외 임신 경험이 있어 임신한 아이를 낳을 것인지의 여부를 고민하고 있던 인물로, 남편인 ‘나’와 의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여성이 놓인 환경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는 낙태 수술을 받는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94) 이에 대해서는 논자가 2019년, 대한일어일문학회의 『일어일문학』 (84)에 게재한 「아베 고보의 『제4 간빙기』론 - 비현실 묘사를 통한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골자로 활용하고자 한다.

해저개발협회는 임신 3주 이내의 태아를 제공받는 대가로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7천 엔의 금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협회가 낙태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이유는 공범 의식을 갖게 하여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막음하기 위해서이다. 곤도는 낙태 수술을 받고 7천 엔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태아 브로커 일을 하며 부수적인 수입을 얻고 있었다. 특정 조직이 실험이나 연구에 필요한 인간의 신체를 확보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는 『제4 간빙기』 뿐만 아니라 『R62호의 발명』과 「맹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R62호의 발명』의 경우, 인간의 두개골에 안테나가 달린 인공 두개골을 이식해서 인간 로봇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던 사무소가 신체를 제공하는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 천 엔씩을 지불하고 있었다. 『제4 간빙기』에서 태아 브로커 일을 하며 수수료를 받은 곤도와 마찬가지로 『R62호의 발명』의 학생도 자살자를 찾아내 사무소에 소개하고 인당 2천 엔의 수수료를 받으며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초식동물 양의 맹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연구의 피실험자가 되는 「맹장」의 K 또한 연구소로부터 매달 1만 5천 엔의 대가를 받고 있다.

각각의 작품에서 연구소나 사무소가 필요로 하는 낙태된 태아와 자신의 신체를 실험 재료로 제공하는 인물들은 경제적 궁핍 상태에 놓여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R62호는 원래 기계 설계사였지만 해고 당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하기 위해 향한 운하에서 시체를 양도해 주면 수수료 천 엔을 주겠다는 한 학생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실험자가 되었다. 영양실조에 걸려 악화된 건강 탓에 이식받은 양의 맹장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연구소를 나오는 K를 소설의 화자는 “바깥에는 굶주림이, 진정한 굶주림이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 문장을 통해 K는 실험 대상이 되기 전에도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그것이 연구소와의 계약을 결심한 이유이며, 피실험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후에도 K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전히 굶주리는 생활임을 알 수 있다.

자살자와 사무소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던 『R62호의 발명』의 학생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골라서 할 여유가 없고, 사무소에 넘길 자살자를 더 이상 찾지 못하면 스스로가 자살지원자가 되어 대가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말을 통해

K와 마찬가지로 생활고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가가 일회성이거나 다회성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피실험자의 위치에 놓인 등장인물과 중개인 역할을 한 등장인물들 모두 생활을 위해 신체와 생명을 담보로 실험 대상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일본 유일의 프로그래밍 전문가 ‘나’의 아내인 사다코의 경우에는 상기의 인물들과는 달리 경제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멀고,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해저개발협회는 ‘나’와 사다코 사이에 개입해서 그를 가족에게서 분리하고 강압적으로 낙태 수술을 받게 한 후 태아를 강탈하고 수생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다코가 낙태 수술을 받게 된 경위는, 자의적인 선택으로 중절 수술을 받은 곤도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데 곤도와 사다코라는 두 여성의 낙태 수술은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이 제정된 이후의 일본 사회의 실상이 투영되어 있다.

우생보호법이란 나치의 단종법을 모방해서 1940년에 공포한 국민우생법을 개정하여 1948년에 새롭게 제정된 후 1996년까지 유지된, 이름 그대로 우생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우생보호는 우생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래 우생학은 영국의 유전학자인 프랜시스 골턴(Francis Galton)이 1883년에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켜 창시한 것이다. 골턴은 그리스어에서 ‘좋다’를 의미하는 ‘eu’와 ‘태어나다’를 의미하는 ‘genes’에 ‘방법’과 ‘학문’을 의미하는 접미사 ‘ics’를 붙여 우생학(eugenics)이라는 복합어를 만들었다.⁹⁵⁾

우생학이 실제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미국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이다. 미국의 우생학자들은 자국을 우생학적으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타국에서 건너오는 인종을 ‘열악한’ 인종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이민을 제한하거나 비정상인을 거세하는 불임법을 입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우생학적 논리는 독일 나치에 의해서 극단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일본에서는 전후 초기부터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서 전후 부흥의 경제적 이득이 잠식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의 관료와 재계 지도자들이 그 대책으로 1948년에 낙태를 합법화했다. 1940년대 후반에는 매년 낙태수술이 100만 건을 넘었다고

95) 엄운옥 (2009)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문고·우리시대, p.21 참조

한다.⁹⁶⁾ 소설속에는 ‘나’의 조수 요리키가 “최근 후생성의 발표에서도 중절태아의 수가 출생아와 거의 같은 숫자로, 해마다 이백만 이상이라고 한다.”⁹⁷⁾며 낙태율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있다. 소마타니는 패전 후 GHQ의 점령하에 놓인 일본이 구 식민지로부터의 시민과 병사의 귀환, 베이비붐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증가에 직면했을 때, 경제부흥을 위해 시행하고 큰 효과를 얻은 정책이 1948년에 제정된 우생보호법이라고 했다.⁹⁸⁾ 그러면서 우생보호 통계에 의하면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중절 건수가 해마다 100만 건을 넘었고, 실제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소설 속에서 요리키가 말하는 낙태율의 수치는 특별히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⁹⁹⁾

일본의 우생보호법에 의하면, 의학적·우생적·윤리적인 중절은 합법이고 특히 우생적인 이유로 불임수술을 할 경우 유전성 질환에만 한정하지 않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병이나 정신쇠약 혹은 나병 등과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시행할 수 있었다. 1949년에 법이 개정 되었을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추가되었다.¹⁰⁰⁾ 곤도는 쓰치다와 불륜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카바레에서 일하는 직업여성이므로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생활이 불안정해지거나 경제적 곤란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곤도는 임신 사실을 쓰치다에게 알리지도 않고 낙태하면 돈을 준다는 제안에 응해서 수술을 받는데, 이런 곤도의 상황은 우생보호법의 ‘경제적인 이유’ 조항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해저개발협회의 개입에 의해 강제적으로 낙태수술을 받게 된 사다코의 상황은 우생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우생보호심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어도 단절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는¹⁰¹⁾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낙태가 산아제한의 최후 수단이라던 최초의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 도의적인

96) 앤드루 고든 (2005)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 시대에서 2001년까지』 이산, p.471 참조

97) 安部公房 (1998) 「第四間氷期」 『安部公房全集 009 1958.07-1959.04』 新潮社, p.77

98) 柚谷英紀 (2014) 전계서, p.143 참조

99) 상계서 p.143 참조

100) 小沼イザベル (2018) 「優生思想と人権：優生保護法の経済的条項に関する一考察」 『比較日本学教育研究部門研究年報』 (14) お茶の水女子大学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研究所, p.169 참조

101) 石井美智子 (1984) 「墮胎問題の家族法的分析--優生保護法による墮胎合法化の再検討」 『日本法社会学会 編』 (36) 法社会学 = The sociology of law, p.114 참조

이유에서의 비판과 함께 여성이 불필요하게 건강상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고 한다.¹⁰²⁾

“살아간다는 것이 무지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태어나야 할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지요.”

(중략)

“아직 의식이 없는 것을 인간과 동격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

“법률적으로는 그렇죠.” 타의가 없는 맑은 목소리로 이어서, “하지만 임신 9개월에 아직 배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괜찮지만 조산으로 빨리 태어난 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니 꽤나 편의적이네요. 그런 설명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은 상상력이 부족한 덕분이려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그 논법이면 수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여자, 수태 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서 실행하지 않은 남자는 역시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되니……”¹⁰³⁾

낙태 문제를 둘러싼 시각과 입장 차이는 소설 속에서 ‘나’와 와다의 대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상기의 인용문은 예언기계가 있는 계산실에서 ‘나’와 마주친 와다가 예언을 통해 정말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어도 살고 싶다고 생각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와다는 임신한 지 9개월째 아직 배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괜찮지만 조산으로 임신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9개월째에 태어난 아이는 죽이면 안 된다는 낙태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우생보호법에서도 모체에서 태아가 분리되었을 경우에 생존 가능한 시기를

102) 앤드루 고든 (2005) 전계서, p.570 참조

103) 「生きるってことが、無知のせいで我慢してられるのじゃなくて、それ自身それほど大事なことから、生れるはずの子供を降ろすなんてことは、とても出来ませんわね。」

(中略)

「まだ意識のないものを、人間と同格にあつかうわけにはいかないさ。」

「法律的には、そうですね。」他意のない、明るい声で言葉をつづけ、「でも、妊娠九ヶ月でまだお腹の中にいる子供は殺してもかまわないけど、早産で先に生れた子供は殺しちゃいけないなんて、ずいぶん便宜的だわ。そんな説明で我慢できるのは、想像力が弱いおかげじゃないかしら。」

「そんなふうに考えちゃ、きりがなくなってしまう……その論法でいけば、受胎するチャンスがあってそれを受けつけなかった女、受胎させるチャンスもちながら実行しなかった男は、やはり間接的に殺人をおかしたことになるわけだ……」 p.69

임신 8개월로 정하고, 그 이전에 낙태하는 것은 합법화하고 있었다.¹⁰⁴⁾ 우생보호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 가능 시기는 작품에서 언급한 것과 1개월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체 내외를 기준으로 동일한 개월 수의 태아와 신생아의 생존 여부가 결정된다는 모순이 ‘나’와 와다의 논쟁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GHQ에 의해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일본에 나치 시대의 단종법을 모방한 국민우생법이 우생보호법이란 명칭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고, 낙태수술과 단종수술이 가능한 조항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인위적 도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공공연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곤도와 사다코의 수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와 와다가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서 낙태를 주제로 논쟁하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상기의 인용에서 낙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명하는 와다와는 달리 ‘나’는 “태아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라는 와다의 질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끝이 없어.”라고 명확한 대답을 회피한다.

자궁 외 임신을 한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낙태 여부를 의논했을 때에도 ‘나’는 “아무래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낙태와 아이를 죽이는 것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힘들다고 치고, 그러면 낙태와 피임은 구분하기 쉽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는 “너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아내에게 낙태 결정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다. 중절 결정권을 최종적으로는 해저개발협회라는 권력에게 회수당하는 사다코와 낙태 된 태아가 수생인간으로 변하기까지 과정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의사, 의사로부터 국가로 그 책임이 전가되는 일본 정부의 산아제한 구조가 투영되어 있다.¹⁰⁵⁾

아베는 자신의 에세이 「여성은 울기 쉽다-여성의 눈물(女性は泣きやすい—女性の涙)」(1954)에서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성이 아직 충분히 해방되지 못하고 독립

104) 1976년에는 미숙아 의료가 발달하면서 낙태할 수 있는 시기도 기존 임신 8개월에서 임신 7개월로 앞당겨진다. 石井美智子 (1984) 전게서, p.113 참조

105) 柚谷英紀 (2014) 전게서, p.145 참조

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보아 그것은 상대적 원시화 때문이라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¹⁰⁶⁾고 말한다. 이어서 자신의 추론이 사실이라면 그 죄는 사회 때문이므로 여성을 경멸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베가 일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그들의 사회적 진출과 독립에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후 일본 사회에는 성역할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격차가 존재했다. 기업은 여성 사무직원을 채용할 때 출세코스에 있는 남성동료를 위해서 직장을 화사하게 만드는 ‘직장의 꽃’으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승진할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고 채용조건으로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한다는 약속을 받는 곳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¹⁰⁷⁾

『제4 간빙기』에는 프로그래밍 전문가, 통계국 관리, 위원회 책임자, 자연과학자, 병원 전자진단실 책임자, 회계 담당자 등과 같이 다양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등장한다. 이에 비해 여성 등장인물은 직업여성, 전업주부, 비서, 조교와 같이 한정된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R62호의 발명』의 남성 등장인물도 기계 설계사, 사무소의 소장, 계약 담당 겸 조수, 의사와 같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고, R62호를 선보이기 위해 열린 국제R클럽 제1대회에 참석한 면면들도 정치인, 고관, 은행장, 대기업 중역, 제작소 사장 등의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유일한 여성 등장인물이었던 하나이(花井)는 주로 여성이 종사하는 비서 겸 간호사라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성 등장인물들은 내과의, 외과의, 생리, 응용화학, 생화학을 전공한 과학자면서 교수와 조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유일한 여성 등장인물인 K의 아내는 가정주부의 역할이었다.

『제4 간빙기』의 와다는 원래 태외발생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야마모토 박사는 와다를 “여자로서는 드문 확실한 주장”을 지니고 있던 “유능한 조수”였다고 평가한다. 이후 중앙계산기술연구소로 이직한 와다는 요리키와 같이 ‘나’의 조수로서 쓰치다의 시체를 분석한 정보를 병원 전자진단실의 전자계산기에 수신받는 등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며 근무한다. 그러나 요리키와 교제

106) 今日の社会では女性がまだ充分に解放されず独立していないという事実からおして、それは相対的原始化のためだと想像せざるおえない。安部公房 (1954) 「女性は泣きやすい—女性の涙」 『安部公房全集 004 1953.10-1955.02』新潮社, p.339

107) 앤드루 고든 (2005) 전계서, p.562 참조

사실이 발각되자 와다는 ‘나’에게 “여기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라고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빨리 밝히지 못한 이유를 언급한다. 와다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 당시 일본 사회에서 “유능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면 퇴직을 해야 하는 여성의 상황이 투영되고 있다.

아베는 소설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에서의 대조적인 위치와 역할을 통해 성역할로 인한 사회적 격차로 여성이 자립이나 독립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고, 자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당시 일본 사회의 구조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저개발협회는 수생인간을 만들고 해저식민지를 건설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이다. 임신 3주 이내의 태아를 확보하기 위해 기간 안에 낙태 수술을 하는 여성에게 7천 엔을 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임부를 소개하면 2천 엔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해저개발협회의 존재와 목적은 기밀 사항이며 엄격한 비밀엄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비밀이 발각될 위험이 생기면 협회는 거리낌 없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냉혹함을 보인다.

소설 속에서 해저개발협회에 의해서 제거되는 인물은 ‘나’와 곤도, 그리고 곤도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쓰치다이다. 쓰치다는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곤도의 통장에서 미심쩍은 금전의 흐름을 발견하고 사실을 캐묻다가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구타당한 후 교살된다. 곤도는 쓰치다 살해 혐의로 체포되고 음독자살하는데 후에 협회에 의해 독살된 것으로 밝혀진다.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해저개발협회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 전반은 협회에 의해 철저히 감시되는 통제 하에 놓여있었다. 특히 해저개발협회는 암살전문가를 ‘나’에게 붙여 미행하고 감시하는데, ‘나’가 수생동물 연구소를 견학한 후에는 암살전문가가 노골적으로 살해협박을 하기에 이른다.

소설은 “이윽고 문 밖에서 예의 암살명인의 고무밑창 신발 소리가 달라붙는 듯 한 소리를 내며 다가온다.”라며 작품 말미에서 ‘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의 죽음을 암시할 뿐 실제로 그려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¹⁰⁸⁾도 있지만, 아베가 「샤먼은 조국을 노래한다—의식·언어·국가, 그리고

108) 中野和典 (2011) 전계서, p.121 참조

DNA—(シャーマンは祖国を歌う—儀式・言語・国家、そしてDNA)」에서 “결국에는 비밀리에 조직되어 있던 미래로부터 온 자객에게 암살되어 버리고 맙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나’ 또한 협회에 의해 제거되는 인물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해저개발협회라는 특정 조직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생명까지 해치는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등장인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략) 그저 가장 교양이 낮은 현장 사람들 중에서 술김에 그만 입을 잘못 놀린 사람이 꽤 혹독한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말살했나요?”

“설마……여러 가지로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죽이지 않더라도 기억을 없앤다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¹⁰⁹⁾

“(전략) ……그게, 예의 그 여자 때처럼 일단 정식으로 등록 된 브로커가 실패한 경우에는 역시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해 극형에 처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에게까지 일일이 그런 수고를 들이기에는 번거롭기 그지없지요. 아니, 살인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시체 처리는 성가신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더 흔적이 남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포 암시를 강화시키거나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발광시키거나……. (후략)”¹¹⁰⁾

위의 ‘나’와 야마모토 박사의 대화 장면에서 작품 속의 주요 등장인물들 이외에도 해저식민지 건설에 연관된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희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저개발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필요하면 개인의 일상을

109) 「(前略) ただ、もっとも、教養の低い現場の者などで、酔ったまぎれについ口をすべらせたのが、相当きびしい処置をうけたというような話は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抹殺ですか？」

「まさか……いろいろ科学が進んでいますから、殺さなくても、記憶を喪失させるとかなんとか、方法はいくらでもありますよ。」 p.92

110) 「(前略) ……それが、例の女のときのように、一応正式に登録されたブローカーの失敗というような場合は、やはり見せしめのためにも極刑をもつてのぞむ必要もあるが、一般にまで一々そんな手数をかけていたのでは、面倒でしかたがない。いや、殺人そのものは、大したことはないが、屍体の後始末はやっかいなことだからね。だから、まあ、普通はもっと後に残らない方法をとっている。たとえば、恐怖の暗示をつよめてやるとか、それでも駄目な場合は、人工的に発狂させてしまうとか……。(後略)」 p.141

과괴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등의 행위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의 미행과 감시를 맡고 있는 암살전문가는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살해하는 것이 특기이며 상대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단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자랑한다. 암살전문가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협회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가치관을 가지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평범한 회계 과장이었던 쓰치다와 달리 ‘나’는 예언기계 연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프로젝트의 담당자이며 그에 관한 기사가 신문 보도될 만큼 명성을 지닌 일본의 유일한 프로그래밍 전문가이자 엘리트이다. 그러나 해저개발협회는 이런 ‘나’에게까지도 “고압전류에 의한 쇼크사”라는 예정된 미래를 선고한다. 그런데 해저개발협회가 ‘나’와 같이 저명한 인물마저도 자신들의 목적에 동의하지 않고 대립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일까?

소설 속에서 일본 정부는 지구관측년에 불거진 제4 간빙기 종말설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해저 화산이 일제히 분화하고 해수면이 매년 30미터 이상의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해 40년 후에는 천 미터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입수한다. 그러나 공안 질서를 구실로 이 사실을 함구한다.

어떻게든 대책을 세울 때까지는 이런 일은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부도 타국의 일에는 참견을 하지 않는 대신에 이쪽에도 참견을 하지 말라며 서로 손을 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는 이동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재계의 주축이었던 곳이 중심이 돼서 일종의 대책위원회를 맡게 된 거죠. 그것이 후에 이 해저식민지개발협회까지 발전하게 된 것으로……111)

111) なんとか対策がたつまでは、こんなことは国民に知らせないのが、政府の義務というものでしょう。そこで、どの政府も、他国のことに口出ししないかわりに、こちらにも口出ししてくれるなどいうので、互いに手をひくことにしたわけです。しかし、政府筋にはたえず移動があるから、そう信用ばかりもしてはられない……というので、財界の主だったところが軸になって、一種の対策委員会をもつことになった。これが、後に、この海底植民地開発協会にまで発展して参ったわけで…… pp.151-152

정부를 대신해 해저개발협회를 ‘재계’라는 특권층에 의해 조직된 대책위원회가 이끌어 왔다는 사실이 상기 인용문을 통해 밝혀진다. 즉, 협회의 권력은 자본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볼턴도 작품 속에서 자본주의의 모습이 기술 뒤에 확실하게 비춰지고 있으며 음모조직을 실제로 후원하고 있는 것은 해저식민지 개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본의 기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¹²⁾ 예언기계 연구를 담당하는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은 ‘나’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 하에 놓여 있는 조직이다. 그러나 해저개발협회는 표면상으로 ‘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의 이면에서 해저식민지 개발을 위해 몰래 예언기계를 작동시키고 있었다. 협회는 스스로를 ‘이중조직’, ‘뒷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면에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이 있고, 이면에는 비밀리에 해저식민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해저개발협회가 위치하는 이중구조는, 재계로 표현되는 자본계급과 정부가 서로 조력하는 이해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역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와 정부는 조력하는 이해관계에 있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뭘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의 인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런 내가 들은 적도 없는 모임에 이 방을 빌려 줄 수는 없다. 먼저 여기에 있는 예언기계는 나 자신조차도 작동하는 시간을 일일이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할 정도로 엄중한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까…… 자, 해명해 주시지요.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권한을 지닌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관해서는 누가 뭐래도 내가 최고 책임자다… …)113)

상기의 내용은 ‘나’가 해저개발협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언기계 연구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맞서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는 정부가 관리하는 연구소 분실의 최고 책임자라는 권한을

112) 크리스토퍼·볼턴 (1997) 전계서, p.100 참조

113) (난데す、君たちは?! ……いったい、誰の認可を得たというんです? 何かの委員会だそうだが、そんな私が聞いたことのないような集りに、この部屋をお貸し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第一、ここにある予言機械は、私自身でさえ作動させた時間を一々上部機関に報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厳重な政府の管理をうけているんですからね……さあ、釈明をねがきましょう。勝手なまねは許せません。諸君がどんな権限をもった方たちかは知らないが、ここに関してはなんと言ったって、私が最高の責任者なんだ……) p.128

내세우고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정부의 권한에 절대적인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사실이 파악된다. 그러나 “정부를 뛰어넘는 권한”을 지닌 해저개발협회에 있어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연구소 분실의 최고 책임자라는 ‘나’의 권한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해저개발협회와 ‘나’의 대립되는 관계 묘사와, 결국에는 협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나’의 존재를 통해 재계조직이 정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구조가 부각되고 있다.

해저개발협회의 존재를 모르는 대중들에게 있어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은 어디까지나 예언기계를 연구하는 연구실로만 인식될 뿐이다.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과 해저개발협회는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각각 표면과 이면에 존재한다는 이중구조가 대중들로 하여금 해저개발협회의 존재를 감추고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해저개발협회의 존재뿐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이 행사하는 부조리, 즉 개인의 일상을 조작하고 파괴하는 것과 같은 부조리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대중이 예언기계와 예언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미디어라는 대중매체를 통한 표면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소설에서 예언기계 연구 내용에 제약을 가하는 모습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는 정보 역시 조작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은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언기계 연구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해저개발협회와 그들이 추구하는 해저식민지 개발, 이를 위한 육생동물과 인간을 수생으로 개조하고 육성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대중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작품 마지막까지 낙태 수술을 받게 된 경위와 해저개발협회의 존재를 모르는 ‘나’의 아내인 사다코라고 할 수 있다. 낙태수술의 진실뿐만 아니라 해저개발협회가 계획한 대로 ‘나’를 살해하고 사인을 고압전류 감전에 의한 쇼크사라고 위장하면 사다코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거짓 정보로만 파악하게 된다. 결국 사다코는 외부 조직의 권력에 의해 조작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에 소속된 직원들도 대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는 연구소 직원들을 ‘아래층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위층’과 ‘아래층’은 말 그대로 상·하 계급을 의미한다. 연구소의 이중조직이었던 해저개

발협회 운영위원회도 ‘아래층 사람들’에게는 조직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따라서 협회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연구소의 직원들 역시도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실체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자본에서 기인한 권력을 지닌 조직 집단이 정보를 조작하거나 자신들과 대립하는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고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직이 개인보다 월등히 우위에 위치하고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재계를 주축으로 결성된 조직은 정부보다 우위를 점하고, 정부와의 이해관계 구축으로 얻은 더욱 강력한 권력을, 개인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편리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해저개발협회와 정부의 관계는 경제적 이득 잠식을 우려해 낙태를 대책으로 내세운 관료와 재계지도자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2. 교차하는 대립 양상

앞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립, 조직과 개인의 대립 구도를 통해 투영되고 있는 당시 일본 사회의 현실과 내재 되어 있던 문제를 조명했다. 소설에서 그려지고 있는 대립 관계와 그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개인과 조직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소설 말미에서 ‘나’에게 수생인간과 해저식민지 개발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기 위해 마련된 “해저개발협회 운영위원회·계기연 분실지부 정례위원회” 자리에 모인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 소속의 ‘나’와 조수 요리키, 비서 와다 가쓰코, 연구원 아이바(相羽)와 태외발생 연구소의 야마모토 박사, 마지막으로 통계국 소속의 도모야스 사이에서도 새로운 대립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현저한 대립 양상은 수생인간을 만들어 육성하고 해저식민지를 운용한다는 문제에 대해 ‘나’와 ‘나’를 제외한 인물들이 보이는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수생인간과 해저식민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인물로, 그렇기 때문

에 결국에는 협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 지부위원회에 모인 ‘나’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은 수생인간과 해저식민지를 수용하고 추진하는 입장에 있다.

수생인간과 해저식민지 개발을 옹호하고 예언기계의 미래 예언을 적극 수용하는 요리키와 와다, 야마모토 박사와 같은 인물들을 두고 나카노 가즈노리는 ‘요리키들(頼木たち)’이라고 묶어서 칭하고 있다. 그리고 ‘요리키들’이 수생인간을 만드는 것을 능동적인 진화를 통해 인간을 외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고차원의 생물학적 단계에 이르게 하는 창조적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야생적이고 노예적인 상황에 있는 인간을 능동적인 진화로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단계로 이끈다는 발상에 대해 나카노는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하는 진보주의¹¹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조롭게 해저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해저광산이나 해저유전에 일하러 갈 사람도 있겠죠. 또 해저목장도 일손 부족으로 곤란해하고 있으니까 대환영할 테고 특히 성적이 좋은 자는 특별교육부 쪽으로 보내 의사나 교사나 기술 전문교육을 받게 해서 인간을 돕게 하거나 또 순차적으로 인간과 교대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¹¹⁵⁾

‘요리키들’이 수생인간을 만들어 양육하고 해저식민지를 개발하는데 동참한 이유는 위의 인용문에서 명확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들이 해저식민지 개발을 통해 이루려는 최종 목표는 ‘육생인’과 ‘수생인’의 교체이지만 해저개발협회를 결성한 재계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으로써의 성격을 띠고 있다.¹¹⁶⁾

소설에서 정부와 재계가 이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도모야스이다. 도모야스는 원래 프로그램 위원회에 참석해서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과 통계국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던 통계국의 공무원으로 정부에 소속된 인물이다. 작품 초반에는 또 다른 정부 측의 인물로 장관의 비서도 등장하지만 ‘모스

114) 中野和典 (2011) 전계서, p.116 참조

115) 着々と、海底工場を建設中ですし、海底鉱山や海底油田に働きに行く者もいるでしょう。また海底牧場も人手不足で困っているんですから、大歓迎でしょうし、とくに成績のいい者は、特別教育部にまわして、医者や教師や技術の専門教育をうけさせ、人間の手伝いをやらせたり、また順次、人間と交代させていくようにする予定です。p.156

116) 坂堅太 (2021) 전계서, p.75 참조

크바 2호'의 예언 이후 위원회가 재편되고 예언기계 연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관련 인물로는 도모야스만이 유일하게 남게 된다. 그의 주된 업무는 예언기계 연구에 대해서 통계국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과 앞으로의 지침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부 측의 대변인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모야스는 스스로를 “사무국의 인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정부 주도의 예언기계 연구만이 아니라 재계가 주도하는 해저식민지 개발과 관련한 사무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저식민지 개발과 관련된 면면들이 모인 지부위원회에서 해수면 상승 문제는 ‘높으신 분’이 해저식민지 개발을 실행에 옮기게끔 각오를 다지게 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요리키의 발언에 대해 도모야스는 요리키의 의견을 ‘사설(邪說)’이라고 반박한다. 그러자 요리키는 “행동은 함께 하지만 사상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도모야스와 자신들의 관계에 선을 긋는다. 나아가 요리키는 도모야스를 “지상에 남을 인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수생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입장 차이를 명확히 구분한다.

‘요리키들’이 기존의 인류와 수생인간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류와의 교체를 목표로 “수생인간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도모야스가 요리키의 표현대로 “지상에 남을 인간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작품 말미의 블루 프린트에서 묘사된 미래예언을 보면 제4 간빙기 종말이라는 재해를 피해서 바다 속으로 이주한 대상은 정부와 재계라는 특정 계급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해저로 이주하고 난 후 바다 속의 풍경을 즐기거나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가는 등의 여가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그 외의 ‘일반인’들은 육지에 남아 해수면에 쫓겨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며 생활하고 있다. 도모야스는 통계국에 소속된 공직자이면서 해저개발협회의 사무도 담당하는 등 “협회의 중추”¹¹⁷⁾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저로 이전할 때 그 역지도 함께 옮겨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언기계의 미래 예언을 들으며 “수생인은 그들을 과거의 인류로서 소중하

117) 사카 겐타는 예언기계 운용을 제어하기 위해 협회에서 직접 사무국 측의 입장 대표로 보낸 도모야스를 협회의 중추적인 인물이라 보았다. 坂堅太 (2021) 전계서, p.78 참조

게 보존”하려고 했다는 도모야스의 부가 설명에 대해 ‘나’가 그렇게 꽤도 괜찮은 것이냐고 묻자 “그 때 쯤에는 저는 죽어 있을 테니까요”라고 대답한다. 도모야스가 보인 현재 인류의 미래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재해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정부가 취한 태도는 비슷한 결을 띠고 있다.

제4 간빙기 종말설이 나오기 이전에도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고 타국은 도시와 공장 등을 순차적으로 고원 지대로 옮기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홀러가는 대로 맡기고,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며 방관자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4 간빙기 종말설이 나온 후에는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다. 이런 정부를 대신하여 재계가 행동에 나서며 정부와 재계는 유착관계를 맺고 해저식민지 개발은 재해에 대한 대비책이 아닌 막대한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체제는 “재패니즈 모델”로 통칭되며 “국가주의, 경제중심, 관산유착(官産癒着)”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¹¹⁸⁾ 당시 “국가주의, 군사중심, 관산독립”이라는 기본적 특징을 지닌 미국의 과학기술 체제인 “아메리카 모델”과 비교해 볼 때 ‘국가주의’를 제외한 두 개의 항목이 대극을 이루고 있다.¹¹⁹⁾ 패전 이후 일본의 투자 패턴은 “산주관중(産主官從)·경제중심”이었으며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연구비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고 한다. 이러한 특징은 소설 속에서 묘사된 해저식민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재계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제4 간빙기』에서 적극적으로 수생인간의 입장에 서 있는 인물은 예언기계 연구소의 요리키, 아이바, 와다 그리고 태외발생 연구소의 야마모토 박사이다. 요리키는 5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일했지만, 중앙계산기술연구소 분실의 조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탄핵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요리키가 탄핵연설을 한다는 사실은 ‘나’를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실제로 요리키가 동료들에게 연설을 하는 장면이나 구체적인 연

118) 佐々木毅, 富永健一, 正村公宏, 鶴見俊輔, 中村政則, 木村陽一郎 (2005) 『戦後史大事典 1945-2004』三省堂; 増補新版, p.107 참조

119) 상계서, p.107 참조

설 내용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아이바는 예언기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요리키와 뜻을 함께하며 행동하는 공모관계에 있다. 와다는 태외발생 연구소 야마모토 박사의 동생이 근무하고 있는 중앙보험병원의 소개를 받고 예언기계 연구소에 비서로 취직한 후, 요리키에게 수생인간과 해저개발협회의 존재를 알려주고 끌어들이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지부위원회 소속으로 나오지만, 야마모토 박사는 수생인간을 만드는 태외발생 연구소의 책임자이면서 해저개발협회의 본부 위원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있어서 해저식민지 개발은 정·재계처럼 재해가 닥쳤을 때 이주하여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해저식민지를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수생인간의 입장에서 현재의 인류를 수생인간이라는 ‘신’인류로 교체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었다.

현재 수생인간을 만들고 육성하는 수생인간 모델 훈련소의 교실에서는 물리화학 실험이나 기계 운전과 조작 방법, 식품 가공기술, 수학, 물리, 고문자화학과 같이 즉시 응용이 가능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수생인간에게 이런 교육을 실시 하는 이유는 그들을 해저식민지의 노동력으로 투입해서 생산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야마모토 박사는 이후에 성적이 좋은 수생인간에게는 현재 행하고 있는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나 교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이나 추가적인 기술 전문교육을 실시해 인간을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인간과 교대”를 시킬 계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과정은 순전히 ‘육생인’인 자신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억측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수생인간 안에서 교육자가 육성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코스도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야마모토 박사의 발언에서 수생인간이 언젠가는 해저식민지에서 현지의 ‘육생인’을 위한 노동력으로서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수중 사회의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도모야스는 야마모토 박사의 수생인간에 대한 특별교육 계획에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한편 요리키는 도모야스와의 관계를 두고 “행동은 함께 하지만 사상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도모야스를 비롯한 정·재계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요리키들’ 사이에 입장 차이 또한

분명히 드러난다.

때마침 2해리 정도 앞을 남미항로 화객선 ‘남조환(南潮丸)’이 요코하마를 향해 항해하고 있었지만 승객도 승무원도 뜻밖의 선체의 진동과 삐걱거림에 순간 조금 당황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함교에 서 있던 이등 항해사조차 황급히 뛰어오른 돌고래 무리와 어렴풋하지만 갑자기 일어난 바다의 색깔 변화에 눈을 부릅뜨긴 했지만 딱히 일지에 적을 정도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늘에는 7월의 태양이 녹은 수은처럼 빛나고 있다.¹²⁰⁾

위의 인용문은 작품 후반의 「블루프린트」에서 서술되는 문장의 일부분이다. 이 문장은 화객선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설의 「서곡」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어지는 해일이 일어나 엄청난 파장과 속도로 육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묘사 역시 「서곡」과 「블루프린트」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서곡」과 「블루프린트」의 차이점은 「블루프린트」에서는 해일이 스쳐 지나간 해저의 목장, 도시, 유전과 ‘수생인’의 광경 묘사와 함께 항해를 하고 있던 ‘남조환’이 다음날 요코하마가 없어졌다는 무전을 접수하고 그대로 먼 바다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장면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또 화객선의 선장에 의해 배를 통제로 빌린 단체가 “커다란 기계”를 싣고 항해 중에는 선장을 실험실처럼 사용하며 기계를 가동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요리키의 이름이 언급되며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장면도 이어진다. 선장이 언급한 “커다란 기계”는 예언기계를 가리키며 화객선에 승선한 요리키를 포함한 단체는 와다와 야마모토 박사를 비롯해서 수생인간을 만들고 해저식민지를 개발하는 데 일조한 연구원 무리로 추측된다. 예언기계와 함께 화객선에 승선한 ‘요리키들’로 대표되는 연구원 집단과 해저식민지로 이주한 정부와 재계의 행방의 차이도 해저식민지 사업을 둘러싸고 정·재계와 연구원 사이에 사상적 차이로 인한 대립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120) ちょうどそのころ、ニカイリばかり先を、南米航路の貨客線「南潮丸」が横浜にむかって航行中だったが、船客も乗組員も、ときならぬ船体の振動ときみに、一瞬わずかなとまどいを感じただけだった。また、ブリッジに立っていた二等航海士でさえ、あわただしくはねあがったイルカの群と、かすかではあったが急におこった海の色の変化について目をみはりしたものの、べつだん日誌につけるほどのことだとは考えなかった。空には七月の太陽が、融けた水銀のように輝いている。p.164

한편, “지상의 인간을 배신한 자”들인 ‘요리키들’과 “수생인을 배신한 자”인 ‘나’의 대립은 소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소련의 예언기계 ‘모스크바 2호’가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함에 따라 ‘나’는 예언기계 연구에 제약을 받고, 연구소 분실 폐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된다. ‘나’는 예언기계에서 나온 정보를 실마리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적인 미래 예언” 즉 개인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는 계획을 세운다. 요리키와 함께 “기계를 위한 실험재료”로 사용할 예언 대상을 찾아 나선 ‘나’는 카페에서 한 남자, 후에 해저개발협회에게 살해당하는 인물로 밝혀지는 쓰치다를 발견한다. 쓰치다를 관찰하던 ‘나’는 “어느 한 사람의 개인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도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는 정말이지 훌륭한 시도라고 생각됐지만 이렇게 실제로 그 실험재료가 될지도 모를 인간을 눈으로 보니 정말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어떤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¹²¹⁾라며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려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가지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나’의 의문은 의사도 함부로 인체실험을 할 수 없는데 당사자가 모르게 개인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생체해부와 같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며 자격 문제로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나’는 개인의 미래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예언하는 실험의 정당성에 의문을 갖고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스로에 대해서는 예언기계는 살인을 하라고 주문한다면 울면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특성은 해저개발협회 사람들이 사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되거나 비밀을 폭로해 계획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인물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냉혹하게 제거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전략) …… 게다가, 여러 가지로 당면의 구체적인 이익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실험이 성공해서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정식을 기계가 터득한다면 예를 들면 범죄자의 과거나 미래를 예견해서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거나, 나아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결혼 상담을 해주거나 취직을 결정하거나 병세를 진단하는 것 같은 인생 상담은 물론 필요하면 죽는 날을 예언

121) ある一人の個人の未来を予測するというのも、頭で考えていたあいだは、いかにもすばらしい試みのように思われていたのだが、こうして実際にその実験材料になるかもしれない人間を目のあたり見てしまうと、本当にそれほど意味のあることかどうか、疑わしくなってしまうのだ。 p.28

하는 것도……”¹²²⁾

그러나 상기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요리키가 실험 대상에 대해 고뇌하기 보다는 실험의 성공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나’와 요리키 모두 결국에는 “사적인 미래 예언” 실험을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나’는 그것이 타당한 실험인지 의문을 가지고 숙고하는 한편 요리키는 실험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이득에 집중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나’와 요리키의 대립 양상은 “사적인 미래 예언” 실험에서만 아니라 수생인간 개조와 해저식민지 개발에 대한 태도에서도 부각된다.

쓰치다와 곤도의 죽음을 계기로 ‘나’는 태아 매매와 태아 브로커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태아 매매가 수생인간을 제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믿지 못하자, 요리키는 ‘나’를 위해 수생포유동물 견학을 계획한다. 야마모토의 태외발생 연구소에서 육생동물을 수생으로 개조해 수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축을 만들고 육성하는 과정을 견학하며 ‘나’는 태아 브로커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낙태된 자신의 아이가 수생인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요리키의 언질을 듣고 태아 브로커설에도 불쾌감을 느끼던 ‘나’는 아이를 찾아 개조되기 전에 생명을 끊겠다는 결심을 할 만큼 수생인간의 존재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자신의 아이를 “내 아이의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 ‘나’는 ‘수생인’이라는 새로운 인류의 존재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창밖을 눈부시게 빛나는 둥그런 구름이 순식간에 형태를 바꾸며 녹아간다. 그 밑에는 잎이 달린 가지가 있고 옆에는 구름이 있고 정원이 있다. 이런 일상적인 연속감을 바로 어제까지는 지극히 확실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어제 본 것이 현실이라면 이 일상감은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거짓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것이 뒤집혔다.

예언기계를 가지는 것으로 세계는 점점 더 연속적으로 마치 광물의 결정체

122) 「(前略)……それに、いろいろ、当面の具体的な利益だってあるわけでしょう。もし、この実験が成功して、人間の未来を予言する定式を機械が飲込んでしまえば、たとえば犯罪者の過去や未来を予見して、完全な判決をくだすこともできれば、さらには犯罪を未然に防止することだって出来る。また、結婚の相談にのるとか、就職をきめるとか、病状を診断するとか、そうした人生上の相談はもちろん、必要ならば死期を予言することだって……」 pp.29-30

럼 조용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나의 어리석음이었던 것 같다. 안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는 질서나 법칙을 법규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을 본다는 것이 아니었을까……?123)

상기의 인용문에서도 묘사되고 있지만 소설 속에서 ‘나’는 “현실의 일상적인 연속감”을 중시하고 그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고 확신하던 인물이다. 또 ‘나’에게 있어 예언기계는 현재의 일상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단절된 미래를 제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매개체였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아래는 인용문은 사다코를 예언기계와 연결해서 낙태 수술을 받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한 ‘나’에게 제2차 예언치가 전화를 걸어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분이다.

“(전략) ……아무래도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냉정한 인간이라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건 그저 네가 따분하고 보수적인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일 뿐이고, 이제 와서 마음속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반대로 그녀가 거부하겠지…… (후략)”124)

“(전략) ……기억하고 있는가? 어제 와다 군이 자네와 이야기하며 이것은 재판이라고 말한 것을. 그래, 그것은 정말로 재판이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판결일지도 몰라. 자네는 예언기계의 제작자에 어울리지 않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야. 정말이지 놀랄 만큼 보수적인 인물이라고.”125)

123) ……窓の外を、まぶしく光る丸い雲が、みるみる形を変えながら、融けていく。その下には葉をつけた枝があり、隣の屋根があつて、庭がある。こうした日常的な連続感を、つい昨日までは、このうえもなく確実なものだと信じてきたものだ。しかし今はちがう。昨夜見たのが現実なら、この日常感はむしろ、いかにも現実らしい嘘だと言うべきではなからうか。なにもかもが裏返しなのだ。

予言機械をもつことで、世界はますます連続的に、ちょうど鉱物の結晶のように静かで透明なものになると思いこんでいたのに、それはどうやら私の愚かさであつたらしい。知るという言葉の正しい意味は、秩序や法規を見ることなどではなしに、むしろ混沌を見ることだったのであろうか……? (語은 글씨체는 원문) p.112

124) 「(前略) ……どうやら君は、おれは見て見ぬふりができる、冷たい人間だなどうぬぼれていたらしいが、それはただ君が退屈で保守的人物だったというだけの話で、いまとなつては心のなかをのぞかれることなど、逆に彼女のほうからお断りしてくるのだらうよ…… (後略)」 p.121

125) 「(前略) ……おほえているかい、昨夜和田君が、君とおしゃべりしながらこれは裁判だといったのを。そうだよ、あれは本当に裁判だったんだ。そしていまおれが言っているのは、その判決かもしれないな。君は予言機械の製作者にも似合わぬ、しんからの保守主義者だ。まったくおどろくべき保守的人物だよ。」 p.122

주목하고 싶은 점은 제2차 예언치가 ‘나’를 “보수적인 인간”, “보수주의자”, “보수적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낙태된 자신의 아이를 죽여서라도 수생인간으로 개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새로운 인간 종의 존재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일상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언기계를 통해 이를 더욱 확고히 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가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제2차 예언치가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수주의적인 성향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요리키들’과 ‘나’ 사이의 대립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라는 사상의 차이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요리키들’은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 사회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훌륭한 세계”라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적인 미래 예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계획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고 “실험 재료”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나’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나’는 ‘요리키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미래를 “바보 같은 미래”라고 폄하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하여튼 해저식민지 미래만이 유일한 미래인 것은 아닐 것이다. 예언을 독점하려는 것만큼 위험한 사상은 없어. 그건 항상 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의하지 않았나. 그것이야말로 파시즘이야. 위정자에게 신의 힘을 주는 것 같은 일이다. 왜 비밀이 폭로된 경우의 미래를 예측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야?”¹²⁶⁾

‘나’는 예언을 독점하며 해저식민지만을 유일한 미래라고 여기는 ‘요리키들’의 사상을 가리켜 “파시즘”이라고 한다.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의 적당성과 타당성이 적절하게 논의되지 않고 정·재계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시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나카노는 예측이 아무리 정밀해도 그 자체는 정보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누군가와 결

126) 「なにも、海底植民地の未来だけが、唯一の未来だというわけではあるまい。予言を独占しようとするくらい、危険な思想はないんだ。それはいつも私が口をすっぱくして注意してきたはずじゃないか。それこそファッショだよ。為政者に神の力を与えてしまうようなものだ。なぜ、秘密が暴露されてしまった場合の未来を、予測してみようとはしないんだね？」 p.136

부되면서 비로소 현실적인 강제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언을 권력과 동일시하며 예측 기술의 주도권을 장악한 자에 의해서 정보가 선별되기 때문에 예측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강제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¹²⁷⁾

소설 속에서 예언기계를 구동하고 얻은 정보는 “예언”, “예보”, “예지”라는 표현으로 혼용되고 있다. “예언”은 다가올 일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보”는 일어날 일을 사전에 알리거나 보도하는 것을 뜻하며, “예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 단어는 모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리 알고 말하거나 알린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고정불변의 절대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회는 예언기계의 예언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므로 작품 속에서의 예언은 정·재계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받게 된다.

예언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비서인 와다를 제외한 요리키, 아이바, 야마모토 박사와 같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쥐, 소, 돼지, 개, 토끼 등의 육생 포유동물과 낙태된 인간의 태아를 수생으로 개조할 때 생명을 어디까지 인위적으로 조작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명윤리 차원의 논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쥐가 있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토끼. 토끼는 쥐들과는 달리 매우 기운이 없고 털이 축 달라붙은 불쌍한 모습으로 수조 바닥 근처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봉투처럼 떠 있었다. 그 위를 손톱으로 통기며 야마모토 씨가 말했다. “순수한 초식동물은 아직 아무래도 잘 안되네요. 에너지 동화 방법이 너무 특수해서요…… 1대째는 어쨌든 크긴 하지만 2대째부터 아무래도 잘 안돼요……”¹²⁸⁾

태외발생 연구소에서 ‘나’가 본 것은 인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조된 수생쥐가

127) 中野和典 (2011) 전계서, pp.126-127 참조

128) 次も、またその次も、ネズミだった。それから四つ目がウサギ。ウサギはネズミたちとちがって、いかにも元気がなく、べったりと毛がはりついた憐れな姿で、水槽の底にちかく、体をまるめて袋のように浮んでいた。その上を爪先ではじいて山本氏が言った。「純粹の草食動物は、まだどうもうまく行きませんな。エネルギーの同化方法が、特殊化しすぎているんです……一代目はとにかく育ちますが、二代目からがどうもうまく行かない……」 p.89

수조 속에서 자유자재로 수영하며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수생으로 개조된 토끼는 처참한 몰골로 기운 없이 수조에 봉투처럼 떠 있는 모습이다. 야마모토 박사는 수생 토끼를 가리키며 잡식인 수생 쥐, 돼지 그리고 인공사료로 사육이 가능한 소에 비해 사육이 어렵다고 하며 과학 기술적 차원에서의 실패만을 언급할 뿐 실험동물의 처우나 복지에 관해서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인다.

“물론, 곤충의 변태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는 크게 말하자면 생물의 계획적 개조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개량이라면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식물의 경우에는 염색체의 배가까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물의 경우는 기껏해야 품종개량 정도로, 그것도 소박한 경험주의의 단계를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근본적, 또한 계획적인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진화를 인위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게다가 정향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획이지요. (후략)”¹²⁹⁾

연구가 진행되어 온 순서와 품종 개량에 대해 언급한 야마모토 박사는 과시하듯이 자신들의 최종 계획을 밝히고 있다. 최초로 개조에 성공한 구더기 모습 그대로 성장한 파리를 ‘나’에게 보여주면서 “희귀할 뿐 대단한 의미”는 없으며 “최초의 성공을 기념”으로 기르고 있다고 말하는 야마모토 박사의 발언에서는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본에서 동물애호법이 제정된 시기는 1973년이다. 이후 몇 차례 개정¹³⁰⁾을 거쳐 동물애호법은 2006년에 이르러 “실험동물의 사육과 보관 및 고통 경감에 관

129) 「もちろん、昆虫の変態自体が目的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の目標は、大きく言えば、生物の計画的改造ということでした。ある程度の改良なら、これまでも行われています。とくに植物の場合では、染色体の倍加まで現実にやられているわけですからね。しかし動物の場合は、せいぜいが品種改良という程度で、それも素朴な経験主義の段階を一步も出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これを根本的、かつ計画的なものにしようとながっていたわけです。……言ってみれば、進化を人為的に、かつ飛躍的に、しかも定向的に行わせようという大それた計画ですね。(後略)」 p.95

130) 2005년에 동물보호 및 관리 법률 일부를 개정한 ‘개정 동물보호 관리법(改正動物愛護管理法)’이 성립되어 과학에서 동물을 이용할 때 될 수 있는 한 동물이 아닌 대체 방법을 이용할 것(replacement), 될 수 있는 한 이용하는 동물 수를 줄일 것(reduction), 될 수 있는 한 동물을 배려하고 고통을 주지 않을 것(refinement)의 3R 개념이 추가되었다. 柏崎直巳(2021) 「動物実験委員会」 『畜産技術』(793) 公益社団法人 畜産技術協会, p.45 참조

한 기준”에 준하여 농림수산성과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연구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할 때 실시해야 할 기본 방침¹³¹⁾이 설립된다. 또 이 지침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는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최종적인 책임을 지니고, 동물실험위원회¹³²⁾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률도 포함됐다.

『제4 간병기』가 발표된 시기는 1950년대로, 야마모토 박사의 실험동물에 대한 발언에서 동물애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던 당시의 연구 현장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동물에 대한 윤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윤리 의식의 결여는 동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인간에게까지 이어진다. “사적인 미래 예언” 실험을 위해 선택된 쓰치다는 살아 있을 때는 “실험 재료”로 지칭되고 죽은 후에는 “샘플로서 부적격”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인격이 박탈되고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해저개발협회를 구성한 정·재계에 있어 해저식민지 개발은 재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막대한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들이 미래에 ‘육생인’과 ‘수생인’의 인류 교체에 무관심한 이유는, 자신들은 죽고 없을 시기이니 상관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재계를 대변하는 인물 도모야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리키를 필두로 몽친 아이바, 와다, 야마모토 박사는 인류 교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저식민지 개발은 인류 교체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협회 내부에서 정·재계와 사상의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사상 대립에도 불구하고 수생인간을 만들고 해저식민지를 건설하는 일은 정·재계와 ‘요리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두 조직은 결탁하여 행동을 함께한다. 협회를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인 정·재계와 연구를 책임지는 ‘요리키들’이 공모해서 진행하는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패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체제인 “재패니즈 모델”의 “국가주의, 경제중심, 관산유착”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발견할

131) 농림수산성이 소관하는 연구기관 등의 동물실험 실시 기본방침(農林水産省の所管する研究機関等における動物実験等の実施に関する基本指針), 문부과학성이 소관하는 연구기관 등의 동물실험 실시 기본 방침(文部科学省の所管する研究機関等における動物実験等の実施に関する基本指針). 柏崎直巳 2021 전게서, p.45 참조

132) ‘동물실험위원회’는 각 기관 내에 설치되어 ‘동물실험 계획’이 동물실험 법령, 기본 방침 및 기관 내 규정에 적합한지 생명윤리 심사를 시행한 후 적합하면 승인, 허가하는 역할을 한다. 상게서, p.45 참조

수 있었다.

『제4 간빙기』의 협회에 대립하는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언기계의 객관적인 성능 입증과 예언의 정확성 확인,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언기계를 맹신하며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상을 강제하는 행위가, 해저개발협회의 정·재계와 ‘요리키들’을 통해서는 과학 기술 개발 혹은 연구 현장의 윤리의식의 결여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5. 설계된 미래와 잔존하는 대립

5-1. 통제의 도구로서의 예언기계

2장에서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사상과 개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 간빙기』를 비롯해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에 등장하는 개조된 인간 유형을 분류했다.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과 『R62호의 발명』의 R62호, 그리고 「납의 알」의 ‘식물인’은 인간의 변화 과정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포스트휴먼으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한 존재인 트랜스휴먼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이 신체를 개조해서 트랜스휴먼으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다. 『제4 간빙기』에서는 임신 3주 이내의 태아가 가지고 있는 아가미의 퇴화를 인위적으로 막아 수생인간으로 만들고 있다. ‘식물인’은 피를 염색소로 바꾸어 식물의 특성을 획득했고, R62호는 뇌에 안테나를 이식하여 로봇과 같은 존재로 변화했다. 소설 속에서 R62호는 ‘로봇’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R62호와 같이 신체와 기계가 결합된 인간 존재는 사이보그로 분류된다. 반면, 「맹장」의 K는 초식동물의 맹장을 인간에게 이식하여 인간의 초식동물화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포스트휴먼의 유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생인간과 R62호, K, ‘식물인’은 방법은 다르지만 개조를 위해 인간의 신체에 물리적 변화가 가해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제4 간빙기』에는 상기에 선술한 존재들과는 다른 형태의 포스트휴먼 유형이 등장한다. 사고 능력을 지닌 소련의 예언기계 ‘모스크바 1호’와 일본의 예언기계 ‘KEIGI-1’을 통해 탄생한 ‘나’의 제2차 예언치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신체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않은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에 다다른 길은 크게 초인간과 초지능이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모스크바 1호’와 제2차 예언치는 인간을 닮아가는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개념의 초지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스트휴먼의 원형적인 존재로 보았다.

『제4 간빙기』에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인간과 컴퓨터 기술의 관계라는, 이전까지의 아베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양상이 포착된다. 본장에서는 먼저 소설에 등장한 ‘신’인류 중에서 특히 ‘요리키들’과 한편에 서서 ‘나’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제2차 예언치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 인간을 대상으로 예언기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베가 소설 속에서 인간과 기술의 관계 양상을 통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찰한다.

소설 속에서 소련의 ‘모스크바 2호’가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자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그 영향으로 프로그램 위원회는 ‘나’의 예언기계 연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일부에서는 예언기계 연구를 폐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적인 미래 예언’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 대상으로 쓰치다가 선별되었다.

쓰치다가 살해당한 후 ‘나’는 쓰치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진범을 잡기 위해 그의 시체를 예언기계로 분석한다. ‘나’는 요리키와 함께 카페에서 쓰치다를 발견했던 장면부터 불륜 상대인 곤도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장면까지를 영상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다가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며 “일순간, 지금 이 장면이 그대로 재현돼서 내가 살해당한 남자의 입장에 서게 된 것처럼 착각해서 오싹해졌다.”¹³³⁾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을 통해 ‘나’가 불시에 살해당한 쓰치다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구마모토는 ‘나’의 내부에서 쓰치다와 자신이 동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나’가 예언기계에 저장된 쓰치다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쓰치다가 “당신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 한 것처럼 ‘나’도 협박 전화를 거는 상대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고심한 점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이 겹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³⁴⁾

133) (一瞬、いまの場面がそっくり再現され、私が殺された男の立場にたたされてもしたように錯覚して、ぞっとした。) p.49

134) 隈本まり子 (1983) 「安部公房「第四間氷期」について」 『近代文学論集』 (9), 日本近代文学会九州支部 「近代文学論集」 編集委員会 p.41 참조

제2차 예언치에 의해 살해당하는 피해자라는 점에서 ‘나’와 쓰치다의 입장이 겹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둘의 입장이 중첩되고 있는 것은 구마모토가 언급한 부분 이외에 여러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욱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쓰치다는 자신도 모르게 ‘나’의 새로운 예언기계 실험인 ‘사적인 미래 예언’의 피실험자로 선택되었다. ‘나’ 역시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사적인 미래 예언’의 피실험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나’와 요리키가 쓰치다를 미행하고 행동을 감시했던 것처럼 ‘나’도 협회가 보낸 암살자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미행·감시당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쓰치다와 ‘나’, 두 등장인물은 타자에 의해 피실험자로 선택되어 일상을 침해받고 마지막에는 생사 결정권까지 빼앗기는 위치에 놓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나’의 아내 사다코와 쓰치다의 불륜 상대 곤도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점과 해저개발협회에게 수거된 태아가 수생인간으로 개조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두 인물이 중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쓰치다와 ‘나’가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살해당하는 이유가 협회 측이 극비에 부치고 있는 자신들의 존재와 해저식민지 건설 사업, 수생인간의 존재가 외부로 누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점도 공통된 사항이다.

지금 우리 앞을 걸어 가는 조금 비밀스러운 점을 지닌 평범한 중년의 남자는 이윽고 과거에서 미래에 거쳐 가족이 짝 벗겨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나의 가족이 벗겨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¹³⁵⁾

상기의 인용문은 ‘나’가 요리키와 함께 쓰치다를 미행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험재료로 사용되어 미래가 예언될 입장에 놓인 쓰치다에 감정이입하며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면 화가 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이어지는 서술이다. 예언기계로 쓰치다의 모든 것이 낱낱이 파헤쳐질 상황을 생각하며 자신의 가족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나’가 쓰치다와 자

135) いま、私たちの前に行く、そのちよつとばかり秘密めかしいものを持った平凡な中年男は、やがて過去から未来にわたって、くると皮をむかれ、何からなにまでをむきだしにされてしまうのだ。それを思うと、私は自分の皮がはがされるような痛みを感じる。p.32

기동일시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은 ‘나’와 쓰치다의 미래가 제2차 예언치에 의해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예언기계 ‘KEIGI-1’의 완성 이후 해저개발협회는 중앙계산기술연구소의 배후에서 예언기계 연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의 책임자를 뽑기 위해 와다를 파견한다. 와다는 요리키를 책임자로 뽑았지만 요리키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나’가 책임자 자리를 맡도록 설득하자고 한다. 그 사이에 해저개발협회 측에서는 합법적으로 박사를 쫓아낼 방법을 찾아서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었는데, 와다가 예언기계를 사용해서 ‘나’가 해저식민지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지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예언해 보자고 제안한다.

‘나’의 미래를 예언하여 발생한 제1차 예언치는, ‘나’가 일상의 연속감과 동떨어진 “비약된 미래” 혹은 “단절된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고, 결국에는 예언기의 예언 능력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결론을 담고 있었다. 이에 ‘나’는 왜 비밀이 폭로되었다는 전제하에 미래를 예측하지 않느냐고 반박한다. 요리키는 이미 시도해 봤으며 ‘나’가 살해당하는 미래가 예언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발생한 것이 제2차 예언치이다. 요리키는 ‘나’의 제2차 예언치를 만들어낸 것에 그치지 않고 ‘나’를 구할 방법을 제2차 예언치에게 물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2차 예언치가 세운 계획은 예언과 다를 바 없이 ‘나’가 살해당한다는 동일한 결과로 끝나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계획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그보다는 오히려 협회와 ‘요리키들’이 ‘나’를 살해함으로써 비밀이 누설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해저식민지와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계획으로 간주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2차 예언치는 예언기계에 저장되어 있던 ‘나’의 음성을 사용해서 ‘나’가 결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협박 전화를 걸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가 최초로 협박 전화를 받은 것은 쓰치다의 시체를 예언기계로 분석하려고 했던 때이다. ‘나’는 예언기계로 쓰치다 살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범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2차 예언치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깊이 파고들지 않는 편이 좋다”고 협박과도 같은 충고를 한다. 정체를 밝히려는 ‘나’의 요구에 제2차

예언치는 “선생님의 친구”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는다.

‘나’는 제2차 예언치의 충고를 무시하고 쓰치다를 예언기계로 분석하여 그가 죽은 경위와 ‘태아 매매설’에 대해 알게 된다. 이후에는 쓰치다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던 곤도 지카코가 음독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두 번째 협박 전화는 이때 걸려 왔다. 그러나 ‘나’는 전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옆에 있던 조수 요리키에게 수화기를 넘겨준다.

야마모토 박사의 태외발생 연구소에서 수생포유동물을 견학하고 비로소 해저 식민지와 수생인간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나’는 사다코가 낙태수술을 받게 된 사건이 태아매매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예언기계에 연결해서 낙태수술을 받게 된 진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때 또다시 협박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나’는 “협박 전화를 받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며,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달라붙는 “집념 깊은 방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나’는 마치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마다 전화를 하는 협박자에 혼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나는 혼란스러워졌다. 나의 이성으로는 기껏해야 내 목소리로 말하는 예언기계를 사용해서 테이프에 녹음한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녀석이 정확에 맞는 문장을 말해도 설마 이쪽의 말에 적절하게 응답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¹³⁶⁾

‘나’는 협박 전화를 거는 존재의 정체는 제2차 예언치라는 사실은 전혀 짐작도 하지 못하고, 미지의 인물이 기계에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의 반응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답하는 협박 전화에 놀라 낭패감을 느낀다. ‘나’가 협박자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자 결국 제2차 예언치는 “나잖아. 너 자신이야……나는 너라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 이후에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을 하게 된 과정과 해저

136) 私は混乱してしまう。私の理性ではせいぜいのところ、私の声で話す予言機械をつかってテープに吹きこんだものくらいにしか考えていなかったから、いくらそいつが情況に応じた文句をしゃべろうと、まさかこちらの言葉に正しく応答しようなどは、想像もしていなかったのだ。pp.115-116

개발협회라는 조직의 존재, 그들의 목적까지 밝힌 후 제2차 예언치는 자신이 ‘나’를 대상으로 세운 계획을 ‘논리적인 계획’이라고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라, 모든 것이 단지 하나의 목적으로 일관되어 있어. 어떻게 하면 자네가 미래를 알고 게다가 그 조직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살인도 확실하게 두 개의 목적을 겸하고 있었다. 하나는 자네에게 공범 혐의를 씌워 무언가 사건이 있어도 외부 세계에 의지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태아 브로커 예고를 해서 다음 사태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¹³⁷⁾

위와 같은 제2차 예언치의 언급을 통해 해저개발협회가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을 한 목적의 핵심이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고 사업을 진행, 미래를 실현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길을 잃었던 것 같다. 미래를 승인하는 척을 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 기회를 봐서 죄다 외부에 공표해 버릴까…… 만약 정의라는 것에 무엇인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 그렇지 않으면 깨끗하게 자신이 미래의 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죽음에 응할 것인가…… 만약 명예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 그리고 미래를 믿지 않으면 전자를, 믿는다면 후자를……¹³⁸⁾

반면에 해저개발협회와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 수생인간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알고 수생인간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까지 예언기계를 통해 접한 ‘나’는 자신에게

137) 「そうだろう、考えてもみたまえ、すべてがただ一つの目的でつらぬかれているんだ。どうすれば、君が、未来を知って、しかもあの組織について口外しないような条件をつくることができるかとう…… だから、あの最初の殺人にしても、はっきり二つのねらいをかねていた。一つは、君自身に共犯の疑いがかかり、なにか事件があっても、外の世界を当てには出来ないという覚悟をさせること。それから、胎児ブローカーの予告をして、次の事態に対し、心の準備をさせること……」 p.137

138) どうやら、迷っていたらしい。未来を承認したようなふりをして、この場はのがれ、機会をみてすっかり外部に公表してやるか……もし、正義というものに、なんらかの道徳的価値があるものだとすれば、当然そうすべきだろう。さもなければ、いざぎよく自分が未来の敵であることを認め、すすんで死に應ずるか……もし、名誉というものに、なんらかの道徳的価値があるならば、当然そうすべきだろう。そして、未来を信じないのなら前者を、信じるなら後者を…… p.168

남아 있는 선택지가 미래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 혹은 자신이 미래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선택지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살기 위해 협회에 협조한다는 대안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제2차 예언치는 ‘나’에게 정체를 밝힌 뒤로 스스로를 ‘나’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동일시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예언기계로 만든 나의 합성물”인 것이냐고 묻는 ‘나’에게 제2차 예언치는 합성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응수한다. 또 제2차 예언치는 자신의 의지로 전화를 걸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며 자신이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도 묻는 ‘나’에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에게는 육체가 없어. 네가 상상하고 있는 대로 사전에 녹음 된 테이프에 지나지 않지. 물론 의식이라는 훌륭한 것을 갖고 있을 리도 없어. 하지만 의식 이상의 필연성과 확실성을 지니고 있지. 너의 사고방식을 나는 모조리 사전에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해도 내 안에 예정되어 있던 프로그램에서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거야.”¹³⁹⁾

상기의 인용문은 2-2장에서 제2차 예언치가 어떠한 포스트휴먼의 유형에 해당 하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제2차 예언치는 스스로를 ‘나’에게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비록 인간과 같이 ‘육체’와 ‘의식’은 없지만 ‘나’와 동일한 존재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제2차 예언치가 주장하는 대로 제2차 예언치를 ‘나’와 동일한 존재라고 규정해도 되는 것일까?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은 예언기계가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와다와 요리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요리키는 ‘나’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여기고 있고, 5년 동안 함께 예언기계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의 진행을 주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언기계가 어떤 주제에 대해 예언을

139) 「おれには肉体がない。君が想像してるとおり、あらかじめ録音されたテープにすぎないんだ。むろん意識なんて上等なものを持っているはずがないさ。しかし、意識以上の必然性と確実性をそなえている。君の思考の働きを、おれはすっかり事前に知ってしまっているんだ。だから君がいかにか自由にふるまおうとしてみたところで、いずれおれの中に予定されているプログラムから、一歩も外にはでられないというわけさ。」 p.118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입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할도 와다보다는 요리키가 담당했을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요리키가 ‘나’에 대한 정보를 편향·왜곡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계에 입력해서 ‘나’의 미래를 예언했는가 하는 점이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인가. 또 다른 나는 아무래도 암살 플랜의 주문까지 맡고 있나 보군. 그런데 그런 성격이 나의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전혀 짐작도 안 되는 것이다.¹⁴⁰⁾

제2차 예언치가 정체를 밝힌 마지막 협박 전화 이후 중앙계산기술연구소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나’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행자이자 암살자인 인물과 마주치고 지금 어떤 명령을 누구에게 받고 있는냐고 묻는다. 그때 암살자는 ‘나’의 상황을 지켜보라는 말을 들었으며 ‘나’가 그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다. 위의 인용문은 이 상황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계획을 의뢰받고 설계하는 제2차 예언치의 성격이 어떠한 부분에 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생각을 통해 예언기계에 입력된 ‘나’에 대한 정보가 편향·왜곡 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암시된다.

‘나’는 ‘사적인 미래 예언’ 실험을 위해 쓰치다를 미행할 때 실험 대상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개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의 타당성과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4-2장에서 선술한 바 있는데, 피실험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타인의 인생을 동의 없이 예측해도 되는 자격유무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 중 ‘나’만이 보이고 있는 특성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나’는 예언기계가 살인을 주문한다면 “울면서 살인”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역시도 적극적으로 인간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2차 예언치와는 다른 ‘나’만의 특성이다. 반면 제2차 예언치는 ‘나’의 특성이 아닌 해저식민지 건설 사업을 완수하고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를 현실

140) なるほど、そういうわけか。もう一人の私は、どうやら暗殺プランの主文までも引受けているらしい。しかしそんな性格が私のどこから引出されてきたのやら、まったく見当もつきかねるのだ。p.125

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윤리적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해저개발협회 소속 인물들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제2차 예언치는 ‘나’를 ‘보수적 인물’, ‘보수주의자’, ‘보수적인 인간’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서도 ‘나’와 제2차 예언치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2차 예언치가 ‘나’와 동일한 존재, 즉 “나=제2차 예언치”라면 제2차 예언치도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렇다면 수생인간 사회의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예언치는 해저개발협회의 편에 서서 수생인간 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들과 같이 ‘나’에게 미래를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예언치는 ‘나’와 같이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을 만들어 낸 ‘요리키들’과 같이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2차 예언치가 어느 쪽의 특성과 성향을 지녔는지와는 별도로 예언기계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 기술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다.

1958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2호까지 발사한 이후 열린 좌담회 석상에서 아베는 인간의 변화를 수동적 변화와 능동적 변화로 나누며, 인간이 기술을 활용해 외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변화에 활용할 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수중생활을 하는 인간에 관해 쓰고자 한다고 했다.¹⁴¹⁾ 반면 아라는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문명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인류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인공위성을 소련의 것만이 아닌 인류의 것으로 확장해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경이나 애국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충성심도 약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다.¹⁴²⁾ 이를 통해 아라는 과학 기술 발달로 인류와 문명이 변해나갈 방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반면 아베는 인간이 수동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함께 기술 활용의 방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볼턴은 『제4 간빙기』를 과학적인 당론을 문학에 도입하고, 과학과 픽션의 조합

141) 安部公房 (1998) 『科学から空想へ—人工衛星・人間・芸術』 『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 新潮社, pp.197-198 참조

142) 상계서, p.207 참조

을 통해 당시 ‘과학의 진보’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¹⁴³⁾ 그러면서 『제4 간빙기』는 과학과 기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미숙한 생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¹⁴⁴⁾

소설 속에서 예언기계는 인간이 스스로를 개조하여 만들어진 수중사회를 예언한다. 예언기계는 수생인간의 미래를 예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인류에게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자연재해의 방책을 찾기 위한 주체가 재계와 ‘요리키들’이었기 때문이다. 제4 간빙기 종말설이 예고하는 것과 같이 해저 화산 폭발로 해일이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이 매년 30미터 이상 상승하여 육지가 잠기게 되면 재계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잃게 된다. 금전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계 즉 자본 권력은 새로운 생산 수단의 소유를 꾀하고 대체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선윤은 자본은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 소모와 죽음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는 노동력을 새로운 노동력으로 끊임없이 보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소설 속에서처럼 인류의 신체가 바뀌는 환경에서 생존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자본은 환경 조건을 바꾸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인체 개조를 선택한다고 했다.¹⁴⁵⁾ 다시 말해 재계는 ‘육생인’ 인류의 존속이라는 대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생존 수단과 노동력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수생인간을 만들어 협회가 해저식민지를 건설하는 데 협조하고 있던 ‘요리키들’은 “생물의 계획적 개조”라는 또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예언기계는 예언한 수생인간으로 이루어진 미래의 수중사회를 그 자체로서 “적극적으로 훌륭한” 세계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키들’은 예언 기계의 예언 능력에 의문을 표하지 않고 맹신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본계급인 재계와 과학 기술 연구자인 ‘요리키들’은 기술의 활용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거부하고,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은 배제하는 등 자신들의 필요에만 맞춰 독단적으로 과학 기술을 사용한다. 그 결과 기술은 ‘나’와 쓰치다를 살해하고, 자연재해에 직면한 ‘육생인’ 중 육지에 남은 인간을 절멸로 몰아넣고, 해

143) 크리스토퍼·볼튼 (1997) 전계서, p.92 참조

144) 상계서, p.100 참조

145) 이선윤 (2014) 『아베 고보와 이형의 신체들 - 괴물과 인간 사이』 그린비, p.106 참조

저로 이주한 정·재계는 수생인간에 의해 제한된 공간에 갇혀 관리당하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미래를 예언한다.

도바는 예언기계와 쓰치다의 시체가 연결되어 ‘기계의 언어’로 신경이 조작되는 것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¹⁴⁶⁾에 의한 발상이라고 한다.¹⁴⁷⁾ 사이버네틱스는 냉전시대 군대 지휘 모델을 제공해 주려는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것으로, 정보와 피드백을 활용해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여 원하는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도바는 컴퓨터는 질이 아닌 양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며 『제4간빙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양적인 현실을 질적인 현실로 전환하는 과정, 즉 예언결과를 사회에 적용하고 또 그로 인해 사회에서 생겨난 결과를 다시 예언기계로 입력하는 피드백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략되어 있는 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해저개발협회가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을 한 과정은 현실의 데이터를 예언기계로 입력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정된 조건 하에 예언기계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예언의 오차를 확인하고 실측한 후 수정을 하는, 피드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⁸⁾

‘요리키들’은 예언기계를 사용해서 ‘나’의 ‘사적인 미래 예언’을 두 차례 진행했다. ‘나’의 제1차 예언치는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고, 제2차 예언치는 ‘나’가 해저개발협회와 수생인간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새로운 가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예언기계가 있는 중앙계산기술연구소에서 ‘요리키들’, 도모야스와 대면하며 제2차 예언치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제2차 예언치의 오차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제2차 예언치가 출력한 결과를 강요할 뿐이다. 수생인간으로 이루어진 미래의 수중사회 예언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앞장서 근시일내에 자연재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현실 사회에 예언치가 적용되고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를 다시 예언기계로 적용하여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피드백 과정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146) 사이버네틱스란 노버트 위너(Nobert Wiener)가 고안해 낸 용어로 키잡이를 뜻하는 그리스어 ‘kubernetes’에서 유래되었다. 홍성태 (1997) 「사이버 :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사회와 언론』 (8) 한국언론정보학회, p.27 참조

147) 鳥羽耕史 (1997) 전계서, p.109 참조

148) 상계서, pp.110-111 참조

소설 속의 예언기계는 인공위성, 컴퓨터(전자계산기), 사이버네틱스라는 과학 기술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이들 과학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전쟁과 냉전 시대가 있으며, 적국의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과 함께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력 입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본의 예언기계 ‘KEIGI-1’호도 소련의 예언기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연구 초반에는 일본도 소련처럼 예언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녔다는 국력을 증명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해저개발협회를 결성한 재계가 연구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예언기계는 재계와 ‘요리키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자 방해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통제의 도구로서 악용된다.

오늘날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연구는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기술과 인간의 관계 양상을 탐구한다. 그중에서 특히 급진적으로 발전하며 인간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인간과의 관계 양상과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베는 소설 속에서 제2차 예언치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와 쓰치다를 묘사함으로써 인간과 기술의 관계 양상의 일례를 제시하고 있다. 중앙계산기술연구소의 분실장인 ‘나’와 동일시하며 그의 행세를 하고 마지막에는 영향력까지 가로채는 제2차 예언치¹⁴⁹⁾의 관계는 인간이 담당하던 업무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상기시킨다.

소설 속에서 묘사된 과학 기술은 개인을 제어하는 강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통제력은 기술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재계와 ‘요리키들’과 같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에 의해 생성되었다. 아베는 이와 같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통해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에 의해 선용과 악용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는 목적과 이용하는 방향성,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49) 불턴은 예언기계를 일종의 복제기술이라고 하며, 제2차 예언치가 ‘나’의 목소리와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권위를 빼앗고 역할까지 복제한 후 최후에는 복제품이 자신의 원형까지 말살하여 완벽한 모조품이 된다고 분석했다.

5-2. 미래의 인류와 수중사회

제2차 예언치와 ‘나’, 예언기계와 해저개발협회를 통해 오늘날의 과학 기술과 인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2차 예언치가 ‘나’의 영향력을 갈취하고 그의 자리를 대체한 배경에는 해저개발협회에 의한 예언기계 기술 악용이 있었다. 기술의 악용이라고 본 이유는 재계와 과학 연구자인 ‘요리키들’로 이루어진 협회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만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협회에 의해 운용된 예언기계는 ‘나’와 쓰치다, 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수생인간으로 이루어진 미래의 수중사회를 예언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래의 수중사회를 유토피아라고 보고 『제4 간빙기』를 유토피아 문학¹⁵⁰⁾으로 정의하거나, 혁명¹⁵¹⁾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본장에서는 소설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미래의 수생인간의 수중사회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육생인’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그 구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미래 예언에서 자연재해로 지진이 계속 이어지며 육지가 수몰되고, 물가로 정찰을 나온 수생인간을 익사체로 착각해서 이상한 익사체에 대한 소문이 일본 사회에 떠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게다가 정부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다는 유언비어까지 돌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정부는 재해를 피해 안전한 바닷속으로 이전한 상태였다. 해저로 이전한 정부는 해면 위로 안테나를 올려보내 육지에 남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한다.

하나, 마침내 제4 간빙기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지질시대에 접어들었지만 경거망동은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 정부는 이후의 국제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극비로 수생인간을 제조하고 해저식민지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미 현재 삼십만 이상의 수생인들

150) 다키 시게루는 『제4 간빙기』를 수생인육성, 해저개발을 테마로하는 새로운 타입의 과학소설이자 유토피아 소설이라고 하였다. 田木繁 (1959) 전게서, p.112

151) 도바는 『제4 간빙기』의 수생인간이 느리지만 과업을 거쳐 정부를 갖고 국제적으로도 승인 받는 등의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수중사회가 혁명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사카도 이와 같은 도바의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鳥羽耕史 (1997) 전게서, p.112참조, 坂堅太 (2021) 전게서, p.76 참조

둔 해저도시가 여덟 개나 있습니다.

하나, 그들은 행복하고 순종적이며 이번 재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도 구원물자가 도착하겠지만 그 대부분이 이 해저에서 보낸 것입니다. (중략)¹⁵²⁾

방송은 이어서 일본이 주장하는 영해권의 구역을 알리고 수생인간의 어머니에게는 특별 물자의 배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의 방송이 수중이 아닌 “해면에 튀어나온 안테나”를 통해 송파되고 있는 것에 대해 도바는 야마모토 박사가 전파는 수중에서 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며 수생인은 이 방송을 들을 수 없고, 따라서 재해에 대한 방침을 방송하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상에 대한 권력뿐이라고 지적한다.¹⁵³⁾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일본 정부는 ‘해저식민지’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여 자신들이 수생인간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래 수생인간은 재계가 설립한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해저식민지의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래 예언에서 인간이 해저로 이주한 초기의 수중사회는 소설의 현재 시점과 동일하게 지배계급 인간과 피지배계급 수생인간이라는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해저로 이주한 정·재계는 자신들이 사는 공간 주위에 가시철평조망을 둘러 출입 금지 구역을 만들고 수생인간의 접근을 차단한다.

어느 날 수생인간 출입 금지 담장 너머로 수중 호흡기를 장착한 아이가 수생인 아이를 작살총으로 쏘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재판할 법률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분노한 수생인들은 부분적이긴 했지만 과업으로 이에 대응했다. 낭패한 정부는 수생인에게도 동등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고 무마했지만, 이 이후 양자의 관계는 크게 변화하고 말았다. 수년 후에는 법무, 상무,

152) 一 ついに第四間氷期は終りをつけ、新しい地質時代に入りましたが、軽挙妄動はつつ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一 政府はその後国際関係を有利に導くために、極秘のうちに、水棲人間を製造し、海底植民地の開発をすすめてまいりました。現在すでに、三十万以上の水中人を有する海底都市が、八つもあります。

一 彼等は幸福であり、従順であり、このたびの災害に対しては、あらゆる協力をちかってくれました。間もなく皆さんのお手もとも、救援物資がとどくはずですが、そのほとんどが、この海底から送られたものです。(中略) p.166

153) 鳥羽耕史 (1997) 전계서, p.112 참조

공무의 대표 세 명이 수생인 측에서 정부에 참가했다.¹⁵⁴⁾

상기의 인용문을 통해서 해저로의 이주 초기에 수생인간이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권리도 지니지 않은 인권이 무시된 존재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해저로 이주한 초기의 일본 정부는 지상은 물론 수중의 수생인간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설의 모두에서 소련이 세계 최초로 예언기계 ‘모스크바 1호’를 완성한 이후 발표되었다는 한 과학평론가의 논평에는 “웰스의 타임머신이 유치했던 것은 시간여행이라고 하면서 결국 시간의 추이를 공간적으로 번역하지 못한 곳에 있다.”는 문장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웰스의 타임머신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문명 비평가인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의 대표 작품 중 하나인 『타임머신(The Time Machine)』(1895)을 가리킨다. 『제4 간빙기』에서 예언기계를 통해 미래가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웰스의 『타임머신』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여행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한 한 과학자에 의해 미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두 소설 속에서 묘사된 미래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¹⁵⁵⁾

웰스의 『타임머신』에서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엘로이(Eloi)와 지하에서 살고 있는 몰록(Morlocks)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며, ‘타임머신’을 발명한 과학자는 ‘시간 여행자’로 지칭된다. 그는 엘로이와 몰록이 살고 있는 시대로 이동해서 생활하다가 “지상 세계 인간들은 한때 선택받은 귀족계급이었고 몰록은 그들에게 기계처럼 착취당하는 노예였는지도 모른다.”¹⁵⁶⁾고 깨닫는데, 이를 통해 과거 엘로이는 귀족계급, 몰록은 노동자 계급이었음이 암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 여행자가

154) あるとき、水棲人間立入禁止の塙ごしに、アクア・リングをつけた子供が、水棲人の子供を銃銃で撃って、殺してしまうという事件がおきた。政府は、これを裁く法律はないと判断したが、怒った水棲人たちは、部分的であったがストライキをもって、これに応じた。狼狽した政府は、水棲人にも同等の法的権利を認めることにして、事なきをえたが、それ以来両者の関係は大きく変わってしまった。数年後は、法務、商務、公務の三代表が、水棲人側から政府に加わった。p.167

155) 웰스의 『타임머신』과 아베의 『제4 간빙기』 비교분석은 논자가 2019년, 대한일어일문학회의 『일어일문학』에 게재한 「아베 고보의 『제4 간빙기』론 - 비현실 묘사를 통한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참조하고자 한다.

156) H. G. 웰스·임종기 옮김 (2007) 『타임머신』 문예출판사, p.100

당도한 미래에서는 엘로이가 가축과 같이 ‘물록’에 의해 지상에서 번식당하는 식량·먹잇감의 위치에 놓여있다. 과거에는 귀족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던 노동자 계급의 후손인 물록이 먼 미래에는 반대로 엘로이의 생명을 착취하게 되면서 기존의 착취·피착취 구조가 역전된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시간 여행자는 “결국 인류는 한 종으로 존속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종의 생물로 분화한 것이었다.”¹⁵⁷⁾라고 서술하며 인간이 두 종족으로 분화된 원인을 추정한다. 과거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차이가 확대되고 문명사회에서 외견상 좋지 않은 것은 지하 공간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무산계급’인 노동자들도 ‘유산계급’에 의해 지하 세계로 떠밀리게 되었다. 그 결과 ‘무산계급’은 지하 세계의 생활에 맞춰 자연선택으로 변화하며 시간 여행자가 목도한 것과 같은 하얗고 흉측한 몸골, 높은 지능을 지닌 야행성 인간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반면 지상을 차지한 ‘유산계급’은 “쾌락과 안락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퇴보의 길에 접어들어 체격, 체력, 지능 따위”가 전반적으로 쇠퇴한 결과 아름답고 우아하지만 아주 작은 몸집의 연약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제4 간빙기』에서도 초기 수중사회에서 인간과 수생인간의 관계 구도와 그것이 변화하게 된 계기가 서술되고 있다. 재해가 일어난 초반에 인간은 해저로 이주한 정부 무리와 육지에 남은 ‘일반인’ 무리로 나뉘게 된다. ‘일반인’은 기존의 발전소나 공장을 활용하거나 해저목장의 인부 감독으로 일하며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수면이 상승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고지대로 이동하게 되고, 철도와 발전소 같은 생활의 기반도 상실하게 되면서 생산활동도 불가능해져 결국에는 수생인간이 보급해 주는 물자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반면에 해저로 이주한 정·재계는 수중사회의 지배계급으로서 피지배계급인 수중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형태로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향유할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도 즐기며 안정적인 거주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훗날의 미래에는 ‘지상인’, ‘육생인’이라고 불리며 수생인간에 의해 박물관이나 육생 동물원에 전시되어 관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해저로 이주하지 못하고 육지를 상실한 ‘일반인’은 결국 절멸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미래 예언의 수생인간

157) H. G. 웰스·임종기 옮김 (2007) 전계서, p.83

사회에 남은 ‘육생인’은 정·재계의 후손뿐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미래의 수생 인간 소년은 ‘육생인’을 다음과 같이 무력한 모습으로 묘사한다.

물론 소년에게 있어서 지상인 자체는 희귀한 것이 아니었다. 박물관의 공기실에 가면 언제라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옛날 그대로라고 하는 가재도구 가운데서 증력이라는 사슬을 질질 끌며 딱딱한 움직임으로 바닥을 기어가는, 언뜻 봐도 생기 없는 동물. 폐라고 하는 공기 용기를 달고 있어서 우락부락하고 조화롭지 않은 상반신. 그저 평범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자라고 하는 기묘한 도구를 써야 하는 자유롭지 않은 생물……도무지 꿈하고는 인연이 없어 보인다.¹⁵⁸⁾

수생인간은 ‘육생인’을 박물관이나 동물원에 전시하는 한편, 역사책에는 재해에서 살아남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자신들의 선조로, 뒤쳐진 인식과 보수적인 심정을 지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자 정신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육체에 메스를 가해 수생인간으로 변신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그들이 현재 하등한 존재인 이유는 사회에 주체적 참가를 하지 못해 퇴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언급을 통해 미래 사회에서 수생인간과 ‘육생인’의 계급 구도가 역전된 이유는 첫 번째는 노동을 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향유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쇠퇴의 길에 접어들어 퇴화하면서 결국 권력을 전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4 간빙기』와 『타임 머신』에서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 지배계급에 위치한 인간 종에 의해 상대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인간 존재가 관리되는 구도는 아베의 소설 「납의 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납의 알」 첫머리에는 ‘노예족’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탄갱에서 채굴을 하다가 새의 알 모양을 한 커다란 납덩어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소설의 시점에서 80만 년 전¹⁵⁹⁾에 존재했던 인류인 고대

158) むろん少年にとって、地上人そのものはべつに珍しいものではなかった。博物館の空気室に行けば、いつでも自由に見ることができる。昔のままだったといわれる、家具調度の中で、重力という鎖をひきずりながら、ぎくしゃくした身のこなしで、床にはいつくばっている、みるからに生氣のない動物。肺臓という空気ポンペをしょいこんでいるために、いかつくはった、不調和な上半身。ただ普通の姿勢を保つためだけに、椅子などという、奇妙な道具をつかわなければならない、不自由な生物……とうてい夢などとは縁がありそうにない。p.170

159) 웰스의 『타임머신』에서도 시간 여행자가 서기 80만 2천여 년 후로 이동하여 미래 사회와 인류를 접하고 온다.

인 ‘그’가 타고 있던 동면 상자였다. 인조탄을 대량생산 하는 시대에 ‘노예족’이 번거롭게 이탄도시층에서 채굴을 계속하는 이유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市) 당국이 고대의 연구와 보존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노예족’이 발견한 동면 상자는 인간 거리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지는데, 여기에서 깨어난 ‘그’는 ‘식물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미래의 인류라고 생각한다. ‘식물인’이 사는 공간은 박물관과 공유창고를 제외한 건물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콘크리트로 만든 연못과 복잡하게 구성된 하얀 벽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이 벽을 마치 미로와 같은 구조라고 느끼며 ‘식물인’이 사는 거리 전체가 결국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소설 말미에서 ‘그’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식물인’의 금기를 어겨 박물관의 반대편으로 추방되는데 이때 자신과 같은 외형을 지닌 한 남자를 마주한다. 남자는 ‘식물인’이 ‘노예족’이라고 간주했던 이들의 구성원으로 실제로는 미래의 지배계급에 해당하는 현대인이다.

『제4 간빙기』와 『타임머신』에서 각각의 인간 종이 ‘육생인’과 ‘수생인간’, 엘로이와 몰록으로 나뉜 것처럼 「납의 알」에서도 현대인과 고대인인 ‘식물인’으로 이분화 되어 한 쪽에 의해 다른 한 쪽이 제한된 공간에 갇혀 관리, 보존 혹은 사육되는 뚜렷한 지배·피지배 구도를 보이고 있다. 또 엘로이와 ‘육생인’이 무력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그려졌듯이 ‘식물인’도 노동을 하지 않고 나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납의 알」은 현대인과 ‘식물인’이 과거 어느 계급에 해당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의 계급 구도가 유지된 것인지 혹은 역전된 것인지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차이점이 있다. ‘식물인’에 대해서는 과거에 돈이 없었거나 기술을 지니지 못한 미개인종은 ‘식물인’으로 개조되는 수술을 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 있을 뿐이다.

『제4 간빙기』에서 ‘육생인’이 해저로 거주지를 옮긴 초기에 수생인간은 해저식민지의 피지배계급이자 노동력으로서 ‘육생인’을 위한 물자를 생산·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생인간은 ‘육생인’의 아이에 의해 동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정부를 가지고 인정받으며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생산력을 지니고 있던 수생인간이 법적 권리까지 획득한 이후에, 수중 호흡기가 없으면 물속에서 숨을 쉴 수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

이는 것 또한 불가능해 행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육생인’보다 정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권력을 전유하게 됐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수생인간은 ‘육생인’과의 기존 지배·피지배 관계를 역전시키며 수생사회의 주체로서 권력을 획득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몇만 명에 한 명의 확률로 나타나는 묘한 병”인 ‘지상병’이 그 문제로, 수생인간은 병의 발병 원인을 “나쁜 유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지상병’에 걸린 미래의 수생인간 소년은 해저유전의 견습공으로, 유전 소속의 전파탑 수리를 돕기 위해 해수면 위로 올라갔을 때 아가미에 해수를 보내주는 특수 장치가 있는 “공중복”을 입지 않아 공기를 신체에 직접적으로 집하고 병에 걸리게 된 것으로 그려진다. 이후 소년은 공기와 바람이 피부에 전해준 신기한 감각을 잊지 못해 수중사회에서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지상인’의 삶과 육지를 상상하며 동경에 빠진다.

……라고, 그런 식으로 조리 있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바람을 맞은 이후부터 소년은 공기의 벽 너머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세계에 강하게 끌려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중략) 특히 지상병의 악영향—그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선천적인 신경병에 지나지 않았을 테지만 아직 수중시대의 역사가 짧고 사회 운영에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있어서인지 사상적인 전염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을 우려하며 그 부분의 연구는 그다지 장려되지는 않았다. 그 금기를 어긴다는 유혹이 더욱 소년의 기분을 강하게 부추겼을 것이다.¹⁶⁰⁾

상기의 인용문을 통해 수생인간 사회는 ‘지상병’을 선천적인 신경병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사상적인 전염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생인간이 ‘공중복’을 입지 않고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지상병’에 걸린 수생인간은 발견하는 즉시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지상병’ 발병을 막기 위해 수생인간 사회는 선제적으로는 개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발

160) ……と、そんなふうに、筋道立てて考えたわけでは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が、あの風にふかれて以来、少年は、空気の壁の向うで行われていた、過去の世界に強くひきつけられ、とりつかれてしまっていたのである。(中略) とくに、地上病の悪影響—それは要するに先天的な神経病の一種にすぎないはずだったが、まだ水中時代の歴史が浅く、社会の運営に試行錯誤的な部分が残っているためか、思想的な伝染力をもっていたのである—の懸念もあって、その部分の研究はあまり奨励されていなかった。そのタブーをおかすという誘惑が、よけいに少年の気持を強くそそっていたということもあるのだろう。p.171

병했을 시에는 수술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는 대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유전”의 결과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병을 금기시하고 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행위는 4-1장에서 언급한 우생보호법을 연상케 한다. 나아가 이런 묘사를 통해 피지배계급으로서 ‘육생인’에 의해 억압받는 존재였던 수생인간이 자신들만의 정부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는 수생인간에 의한 수생인간 억압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사회 내부에 형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 초두의 “미래는 반드시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는 모스크바 2호의 미래 예언을 상기하면 수생인간의 수중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작품 말미의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의 수중사회는 개인의 행동을 구속하는 금기를 내재하고 있고, ‘육생인’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편향된 시각을 기준으로 기록, 제공하고 있다. 또 수생인간은 ‘육생인’과 교류하거나 공생하지 않고 박물관, 동물원에 가두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개인행동을 억압하고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도는 미래 예언을 통해 묘사된 공산주의 사회인 수생인간의 수중사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수성은 아니다. 소설 속의 현재 시점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협회가 목적 추구를 위해 개인을 협박, 미행, 살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억압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소식과 예언기계에 대한 정보의 공유도 제한적으로 행하는 등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베는 현재 시점과 예언기계를 사용해 예언한 미래 시점의 대비를 통해 민주주의, 공산주의 체제에 관계없이 권력을 지닌 존재가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적 약자에 위치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을 희생시키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공통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가 긍정적인 것일지 부정적인 것일지 하는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다. 또 긍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나 부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를 미래의 형태로 표현한 문학작품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그 어느 쪽도 취하지 않았다. 과연 현재에 미래의 가치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문스러웠기 때문이다. 어떤 미래를 부정할 자격도 없을뿐더러 긍정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미래는 아마 그 가치판단을 넘어 단절 저편에 ‘물체’처럼 나타나는 것

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무로마치 시대의 인간이 갑자기 되살아나서 오늘을 본 경우 그는 현대를 지옥이라고 생각할까, 극락이라고 생각할까? 어떻게 여기 든 분명한 것은 그에게는 이제 어떠한 판단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판단하고 재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재이다.

그러니까 나도 미래를 재판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재판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¹⁶¹⁾

본장의 모두에서 『제4 간빙기』의 말미에 그려지고 있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두고 유토피아적 문학이라고 평가하거나 혁명이라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제4 간빙기』의 후기에서 아베는 “긍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나 부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를 미래의 형태로 표현한 문학작품”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베가 말하는 “긍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는 유토피아를, “부정적인 세계의 이미지”는 디스토피아를 상기시킨다.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1516년에 발표한 『유토피아(Utopia)』에서 만들어 사용한 용어로, 그리스어 ‘없는(ou-)’과 ‘장소(toppos)’가 결합된 단어이다. 이후 유토피아는 이상향 혹은 도원경과 같이 모든 이들이 바라지만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그려진 미래 수생인간의 수중사회 수립 과정과 구조를 살펴 본 결과, 수생인간의 수중사회는 기존의 인간 사회의 계급구조에서 비롯된 불평등,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사회 구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미래의 수생인간의 수중사회는 부정적인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라고도

161) 未来が、肯定的なものであるか、否定的なものであるか、という議論はむかしからあった。また、肯定的な世界のイメージや、否定的な世界のイメージを、未来のかたちをとって表現した文学作品も多かった。しかしぼくは、そのいずれもとらなかった。はたして現在に、未来の価値を判断する資格があるかどうか、すこぶる疑問だったからである。なんらかの未来を、否定する資格がないばかりか、肯定する資格もないと思ったからである。真の未来は、おそらく、その価値判断をこえた、断絶の向うに「もの」のように現われるのだと思う。たとえば室町時代の人間が、とつぜん生きかえって今日を見た場合、彼は現代を地獄だと思うだろうか、極楽だと思うだろうか？ どう思おうと、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は、彼にはもはやどんな判断の資格も欠けているということだ。この場合、判断し裁いているのは、彼ではなくて、むしろこの現在なのである。だからぼくも、未来を裁く対象としてではなく、逆に現在を裁くものとして、とらえ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たわけである。安部公房(1998)「日常性への宣告—『第四間氷期』あとがき」『安部公房全集 011 1959.05-1960.05』新潮社, p.141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이유로 혁명이라고 하기에 어려울 보인다. 박설호는 20세기의 3대 디스토피아 소설¹⁶²⁾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으로, 미래의 어느 특정한 사회, 전체주의 체제의 감시와 억압의 구도, 이에 희생당하는 개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 개개인을 구속하는 과학 기술의 횡포로 요약하였다.¹⁶³⁾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제4 간빙기』의 미래의 수중사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다케다 씨가 변화 문제를 꺼냈는데,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변화, 자연적인 변화, 다른 하나는 능동적인, 인간이 변화시킨다는 변화, 그것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바닷속에 잠긴다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변화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의 위험을 말하고 싶어서였지요, 반대로 인공위성은 외부로 인간이 변화시키는 능동적 변화의 무한 가능성을 예언한 것이겠죠. 수동적인 변화의 사상이란 요약하면 트랜퀼라이저 사상입니다. 외부를 변혁하는 가능성을 닫고 내부를 변화시킨다. 인공위성은 그런 것에 대한 대립 명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¹⁶⁴⁾

소련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후 앞으로 인류문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을 이야기하는 좌담회에서 아베는 기술이 자연이 아닌 인간을 향해 발전할 경우를 가정하며 “수중생활로 인간이 돌아가는 경우”를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중생활로 인간이 돌아가는 경우”는 『제4 간빙기』에서 예언기계가 묘사한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를 가리킨다. 또 아베는 인간의 변화 방법을 수동적 변화와 능동적인 변화로 구분하며, 인간이 수중생활로 돌아가는 예를 든 것은 변화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후에 아베는 에세이 「샤먼은 조국을 부른다—의

162) 에브게니 이바노비치 자마찐의 『우리들』(1921),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1932),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1949)

163) 박설호 (2000) 「유토피아, 그 개념과 기능 : 문학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p.16 참조

164) 武田さんが変化の問題を出しましたが、変化には二通り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受動的な変化、自然な変化、もう一つは能動的な、人間が変化させるという変化、それは質的に違うと思います。さっき海の中に潜るという例を出したのは、変化を受動的にだけ考えることの危険をいいたかったからで、逆に人工衛星は、外部を人間が変化させる能動的変化の無限の可能性を予言したものでしょう。受動的な変化の思想とは、要するにトランキライザーの思想だな。外部を変革する可能性を閉じて内部を変化させる。人工衛星は、そういうものに対する、アンチテーゼだと考えるべきだと思います。安部公房 (1998) 「科学から空想へ—人工衛星・人間・芸術」 『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 新潮社, pp.198-199

식·언어·국가, 그리고 DNA』에서 대기오염과 핵병기를 괴물이자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악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과연 그 책임이 기술 자체에 있는지의문을 제기하며 기업의 이윤추구, 국가의 예고이즘, 산업의 군사화와 같이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순하게 기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문제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⁶⁵⁾ 따라서 아베가 『제4 간빙기』에서 수생 인간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기술이 외부가 아닌 인간을 향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일례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미래의 수중사회라는 디스토피아적 공간을 그려냄으로써 과학 기술이 발달하여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와 방향이 올바르게 없을 때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165) 安部公房 (2000) 『シャーマンは祖国を歌うー儀式・言語・国家、そしてDNA』 『安部公房全集 028 1984.11-1989.12』 新潮社, pp.230-231 참조

6. 결론

일본 최초의 본격적 장편 SF소설인 『제4 간빙기』는 과거에서 현재로 시점이 진행되며 그 사이에 예언기계를 통해 예언된 인류의 미래를 삽입하는 구조를 통해 현실과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제4 간빙기』에 등장하는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를 포스트휴먼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포스트휴먼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연구와 담론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개념을 정리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4 간빙기』와 아베의 변신 모티프를 다룬 소설 중에서 인간 개조를 그리고 있는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의 개조된 인간 존재가 포스트휴먼의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분석했다.

『제4 간빙기』에서는 수생인간이라고 하는 ‘신’인류가 등장한다. 수생인간은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개조된 인간으로 기존의 인간보다 신체 성장과 지능이 발달되어 있는 존재이다. 기존의 인간보다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먼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인간의 능력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를 뛰어넘거나, 기존 인간의 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간의 조건을 해체한 존재는 아니므로 포스트휴먼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에 인간이 지니고 있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젠가는 포스트휴먼에 다다를 가능성을 내포한 ‘과도기의 인간’에 해당하는 트랜스휴먼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R62호의 발명』에서 머리에 인공 두개골 이식 수술을 받은 R62호와 『납의 알』에서 기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피를 엽록체로 바꿔 식물의 특성을 지니게 된 ‘식물인’도 트랜스휴먼으로 분류했다. 『맹장』은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에게 양의 맹장을 이식하여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신’인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과학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을 향상시키고자 한 실험 자체는 ‘신’인류를 만들기 위한 초기적 시도라고 해석했다. 『제4 간빙기』에 등장하는 예언기계는 오늘날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존재로 기존의 인간 형태에서 벗어나 있고, 인간의 조건을 해체함으로써 인간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포스트휴먼의 원형적인 존재로 분석했다.

이어서 『제4 간빙기』에서 수생인간과 예언기계라는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용된 과학적 소재와 지식,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베는 1985년에 열린 국제 심포지엄 「인간과 과학의 대화」의 강연용 초고에서 『제4 간빙기』를 언급하며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해서 수생인간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전자 재조합기술이 유전공학 단계로 이르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70년대 부터이며,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기술에 대한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유전공학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 보았다. 채취한 태아에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환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형질을 변화하게 하여 수생인간을 만드는 과정은 소련의 트로핌 리센코가 제창한 미추린 생물학의 이론에 부합한다.

수생인간 아이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묘사된 특정 상황에서 자극을 통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방식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조건반사에 자극을 주고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하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수생인간을 탄생시키고 육성하는 과정에 있어 실제로 당시 소련에서 제창되어 연구가 진행된 과학 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반면, 예언기계에 대한 발상은 미국의 전자계산기 기술에 기인하고 있다. 예언기계 개발을 둘러싼 경쟁 구도는 인공위성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당시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을 투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대립 관계에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당시 두 나라 사이의 정치체제와 이념 대립이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예언기계 개발에 제약을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던 일본의 위치가 반영되고 있었다.

아베는 『제4 간빙기』에 변신 모티프와 함께 수생인간이라고 하는 ‘신’인류 생산과 육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관계 양상을 그려내고 있다. 『제4 간빙기』뿐만 아니라 『R62호의 발명』, 「맹장」, 「납의 알」의 남성 등장인물들은 프로그래밍 전문가, 과학자, 통계국 관리, 기계 설계사, 의사, 대의사, 대기업 중역, 제작소 사장, 교수 등 다양한 직업과 사회적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여성 등장인물들은 대다수가 전업주부, 비서, 조교, 직업여성과 같이 한정된 역할에 머물고 있

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대조적인 위치와 역할을 통해 고정된 성역할로 인한 사회적 격차로 여성이 자립하거나 독립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이고,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당시 일본 사회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해저개발협회는 해저식민지 건설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생인간을 만들기 위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에게 7천 엔의 금전을 대가로 낙태 수술을 받도록 유도하고 임신 3주 이내의 태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당시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전후 부흥의 경제적 이득이 잠식될 것을 우려해 그 대책으로 낙태수술을 합법화한 일본의 관료와 재계의 모습이 투영되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곤도를 통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로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사다코를 통해서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승낙 혹은 동의가 없어도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부각되었다. 자본에서 기인한 권력을 지닌 해저개발협회가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를 조작하고 개인의 인생에 개입하거나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서 조직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저개발협회는 정부와 재계가 결탁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 재계가 주도하여 수생인간의 생산과 해저식민지 건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정부와 재계의 관계 묘사를 통해서도 “국가주의, 경제중심, 관산유착”이라는 기본적인 특징을 지닌 패전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체제인 “재패니즈 모델”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협회를 설립한 정·재계에게 있어 해저식민지 건설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식민지를 운영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반면, 수생동물과 수생인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요리키들’에게 있어 해저식민지 건설은 인류 교체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사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재계와 ‘요리키들’이 사상적 대립 관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상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정·재계와 ‘요리키들’을 통해 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 현장의 윤리 의식 결여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반면, ‘나’는 예언기계의 예언을 맹목적으로 믿고 수생

인간을 만들어 해저식민지 건설을 추진하는 해저개발협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예언기계의 예언을 독점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목적인 태도를 “파시즘”이라고 지적하는 ‘나’를 통해 다각도의 논의와 검토를 시행하지 않고 권력이 중심이 되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상을 강제하는 행위의 문제성이 조명되고 있다.

『제4 간빙기』의 예언기계는 컴퓨터 기술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로, 이를 통해 이전까지 아베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인간과 컴퓨터 기술이라는 새로운 관계 양상이 그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예언기계를 통해 예언된 ‘나’의 예언치인 제2차 예언치와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과 기술의 관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나’에게는 비밀리에 탄생하게 된 제2차 예언치는 자신을 ‘나’와 동일시하며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보수적 인물’, ‘보수주의자’, ‘보수적인 인간’이라고 평가되고 실험에 앞서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는 ‘나’와는 달리, 제2차 예언치는 사람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요리키들’과 같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진보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나’와 제2차 예언치가 동일한 존재는 아니라고 보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제2차 예언치의 특성과 성향과는 별도로 예언기계라고 하는 컴퓨터 과학 기술에 기반한다는 사실이며, 기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예언기계를 통한 미래의 수중사회와 ‘나’에 대한 예언은 해저개발협회에 의해 가정된 조건 하에서 독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언치의 오차를 실제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피드백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결과를 강요하고 있었다. 본래 일본의 예언기계는 소련의 예언기계 개발에 대응하고 국가의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결탁한 재계가 연구의 주도권을 잡으며 정·재계를 비롯한 ‘요리키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자 해저식민지 개발 사업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통제의 도구로서 악용된다. 아베는 이와 같이 소설 속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에 의해 과학 기술이 개인을 제어하는 강한 통제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인간과 기술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기술 활용에 있어 주체의 중요성과 함께 기술 활용의 목적, 방향성,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저식민지의 연구소에서 생산된 수생인간은 예언기계가 예언한 미래 초반에는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하고 기존의 인간인 ‘육생인’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후에 수생인간이 정부와 법적 권리를 갖게 되면서 지배계급 ‘육생인’과 피지배계급 수생인간이라는 기존의 계급구조는 지배계급 수생인간과 피지배계급 ‘육생인’으로 역전되는데, 주체와 대상의 변화만 있을 뿐 지배·피지배 계급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그리고 수중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지상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개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수술을 통해 제거한다는 묘사를 통해 수생인간에 의한 수생인간 억압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억압과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는 구도는 미래의 수생인간의 수중사회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베는 민주주의 사회의 현재 시점과 공산주의 사회의 미래 시점을 대비시킴으로써, 체제에 관계 없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적 약자에 위치하는 개인을 억압하고 활용하는 권력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인간 사회의 계급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며 불평등, 권력에 의한 개인 억압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 역시 내포하고 있는 미래의 수생인간 사회는 부정적인 사회상을 그리고 있는 디스토피아였다.

아베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 참석한 좌담회에서 인간의 변화 방법과 기술 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며 “수중생활로 인간이 돌아가는 경우”를 쓰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아베는 계획대로 “수중생활로 인간이 돌아가는 경우”를 다룬 『제4 간빙기』를 발표하여 수생인간이라고 하는 ‘신’인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대립 양상을 묘사함으로써 당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와 일본의 위치, 그리고 일본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점들까지 조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술이 외부가 아닌 인간 자신을 향했을 때, 즉 수동적 변화만을 고집했을 때 다다를 수 있는 일례를 제시하고, 디스토피아인 미래의 수중사회를 그려냄으로써 과학 기술의 개발과 발달이 이루어져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와 방향성 그리고 방법 등이 올바르게 없을 때 인간이 직면하게 될 미래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일본 문헌】

1. 텍스트

安部公房 (1998) 『安部公房全集 009 1958.07-1959.04』, 新潮社

2. 단행본

安部公房 (1997) 『安部公房全集 001 1942.12-1948.05』, 新潮社

_____ (1997) 『安部公房全集 002 1948.06-1951.05』, 新潮社

_____ (1997) 『安部公房全集 003 1951.05-1953.09』, 新潮社

_____ (1997) 『安部公房全集 004 1953.10-1955.02』, 新潮社

_____ (1997) 『安部公房全集 005 1955.03-1956.02』,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06 1956.03-1957.01』,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07 1957.01-1957.11』,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08 1957.12-1958.06』,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09 1958.07-1959.04』,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10 1959.05-1959.09』,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11 1959.05-1960.05』,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12 1960.06-1960.12』, 新潮社

_____ (1998) 『安部公房全集 013 1960.09-1961.03』, 新潮社

_____ (2000) 『安部公房全集 028 1984.11-1989.12』, 新潮社

_____ (1969) 『壁』, 新潮文庫

_____ (1970) 『第四間氷期』, 新潮文庫

_____ (1973) 『水中都市・デンドロカカリヤ』, 新潮文庫

_____ (1974) 『世界SF全集 第27巻 安部公房』, 早川書房

_____ (1974) 『R62号の発明・鉛の卵』, 新潮文庫

安部ねり (2011) 『安部公房伝』, 新潮社

- 石崎等 (2003) 『安部公房『砂の女』 作品論集 (近代文学作品論集成 (19))』, クレス出版
- 李先胤 (2016) 『21世紀に安部公房を読む 水の暴力性と流動する世界』, 勉誠出版
- 岡庭昇 (2022) 『花田清輝と安部公房』, 第三文明社
- 岡本裕一郎 (2021) 『ポスト・ヒューマニズム : テクノロジー時代の哲学入門』, NHK出版
- 呉美妊 (2009) 『安部公房の〈戦後〉 : 植民地経験と初期テキストをめぐって』, クレイン
- 大場健司 (2022) 『1960s 失踪するアメリカ——安部公房とポール・オースターの比較文学的批評』, 春風社
- 片桐雅隆 (2022) 『人間・AI・動物 ポストヒューマンの社会学』, 丸善出版
- 苅部直 (2012) 『安部公房の都市』, 講談社
- 小沼イザベル (2018) 「優生思想と人権 : 優生保護法の経済的条項に関する一考察」『比較日本学教育研究部門研究年報』 (14) お茶の水女子大学グローバルリーダーシップ研究所
- 小松和彦 (1995) 『異人論—民俗社会の心性』, 筑摩書房
- 坂堅太 (2016) 『安部公房と「日本」 : 植民地/占領経験とナショナリズム』, 和泉書院
- 田中裕之 (2012) 『安部公房文学の研究』, 和泉書院
- 谷真介 (1994) 『安部公房レトリック事典』, 新潮社
- _____ (2002) 『安部公房評伝年譜』, 新泉社
- 鳥羽耕史 (2007) 『運動体・安部公房』, 一葉社
- _____ (2013) 『安部公房 メディアの越境者』, 森話社
- 長山靖生 (2018) 『日本SF精神史【完全版】』, 河出書房新社
- 藤井貴志 (2023) 『〈ポストヒューマン〉の文学 : 埴谷雄高・花田清輝・安部公房、そして渋谷竜彦』, 国書刊行会

3. 논문

- 石井美智子 (1984) 「墮胎問題の家族法的分析—優生保護法による墮胎合法化の再検討」『日本法社会学会 編』 (36), 法社会学 = The sociology of law
- 糸賀寛 (2022) 「安部公房とエドガー・アラン・ポー(一) — 「異端者の告発」 「どれい狩

- り」「第四間氷期」をめぐって―』『京都大学国文学論叢』(47),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国語学国文学研究室
- 荻正 (2002) 「安部公房『R62号の発明』論―実用性について」『国語国文学研究』(37), 熊本大学文学部国語国文学会
- 大野祐仁 (2023) 「安部公房「鉛の卵」論：発見される〈境界〉」『東京大学国文学論集』(18), 東京大学文学部国文学研究室
- 加藤優 (2019) 「「未来」への抵抗―安部公房「鉛の卵」論―」『近代文学研究と資料. 第二次』(13), 早稲田大学大学院教育学研究科石原・金井・和田研究室
- 木村陽子 (2006) 「文学の冷戦と安部公房―「R62号の発明」試論―」『国文学研究』(148), 早稲田大学国文学会
- 隈本まり子 (1983) 「安部公房「第四間氷期」について」『近代文学論集』(9), 日本近代文学会九州支部「近代文学論集」編集委員会
- 坂堅太 (2021) 「革命の未来に向けて―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昭和文学研究』(82), 昭和文学会
- 桜井卓 (2011) 「反体制からの帰還：カフカ『あるアカデミーへの報告』と安部公房『R62号の発明』を比較して」『Aspekt：立教大学ドイツ文学科論集』(45), 立教大学
- 助川徳是 (1971) 「第四間氷期」『国文学：解釈と鑑賞』36(1), 至文堂
- 柚谷英紀 (2014) 「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SF・仮説・グロテスク」『日本文学研究』66(1), 関西学院大学日本文学会
- 新戸雅章 (1994) 「「第四間氷期」と未来の終わり」『ユリイカ』26(8), 青土社
- 田木繁 (1959) 「海底のイーカルス―安部公房『第四間氷期』―」『新日本文学』14(9), 新日本文学会
- 鳥羽耕史 (1997) 「安部公房『第四間氷期』―水のなかの革命―」『国文学研究』(123), 早稲田大学国文学会
- _____ (2013) 「安部公房『第四間氷期』大きな断絶をいかに受容するか」『震災後に読む文学』, 早稲田大学出版部
- 柏崎直巳 (2021) 「動物実験委員会」『畜産技術』(793), 公益社団法人 畜産技術協会
- 中野和典 (2011) 「予言=権力：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近代文学論集』(37), 日本近代文学会九州支部「近代文学論集」編集委員会

安尾太一 (2017) 「空転する「R」 : 安部公房「R62号の発明」論」『立教大学日本文学』(117), 立教大学日本文学会

クリストファー・ボルトン (1997) 「科学とフィクション、そしてポストモダン—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昭和文学研究』(34), 昭和文学会

ゴーシュ ダスティダー, デバシリタ (2004) 「安部公房にとってのロボット文学 : 短篇小说「R62号の発明」をめぐって」『文学研究論集』(22), 筑波大学比較・理論文学会

解放 (2020) 「安部公房『第四間氷期』論—「記憶」と「満洲」をめぐって—」『日本語・日本学研究』(87), 東京外国語大学国際日本研究センター

【한국 문헌】

1. 단행본

고수현 (2013) 『생명윤리학』, 양서원

도미니크 크루크, 권순만 옮김 (2005) 『인간 복제 논쟁 - 인간 복제 이후의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지식의풍경

로버트 K. 머튼, 석현호 옮김 (1998) 『과학사회학 1』, 민음사
 _____ (1998) 『과학사회학 2』, 민음사

로베르토 만조코, 유용석, 김동환 옮김 (2023) 『트랜스휴머니즘의 역사와 철학』,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로지 브라이도티, 이경란 옮김 (2015) 『포스트휴먼』, 아카넷

로지 브라이도티, 김재희, 송은주 옮김 (2022) 『포스트휴먼 지식: 비판적 포스트인문학을 위하여』, 아카넷

박이진 (2015) 『아시아의 망령 - 귀환자 아베 고보와 전후 일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백옥인 (2013) 『컴퓨터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손나경 (2021) 『과학소설 속의 포스트휴먼』, 계명대학교 출판부

슈테판 헤어브레히터, 김연순, 김응준 옮김 (2012) 『포스트휴머니즘 : 인간 이후의 - 인간에 관한 - 문화철학적 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신상규 (2014) 『호모사피엔스의 미래 : 포스트휴먼과 트랜스휴머니즘』, 아카넷

앤드루 고든 (2005) 『현대일본의 역사 도쿠가와 시대에서 2001년까지』 이산
 염운옥 (2009)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유전자 정치와 영국의 우생학』, 책세상
 이경민, 홍성욱, 우희중, 전철, 김태연, 강금실, 김진호, 이상철 (2021) 『인간 너머의 인간』, 사월의책
 이동신 (2022) 『포스트휴머니즘의 세 흐름 : 캐서린 헤일스, 캐리 울프, 그레이엄 하먼』, 갈무리
 이선윤 (2014) 『아베 고보와 이형의 신체들 - 괴물과 인간 사이』, 그린비
 이정희 (2008) 『아베 고보 연구 -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 제이앤씨
 이한구, 김종규, 김환석, 목광수, 박휴용, 신중섭, 오홍명, 원만희, 유현식, 이상용, 최민자, 최병학 (2022)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이혜영, 안지현, 유수연, 김예원 (2018)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 한국학술정보
 이화인문과학원 (2017) 『분열된 신체와 텍스트: 포스트휴먼의 무대2』, 아카넷
 윤태성 (2021) 『과학기술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반니
 최병구 (2021) 『포스트 휴먼과 SF - 누구와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 나남출판
 프란체스카 페란도, 이지선 옮김 (2021) 『철학적 포스트휴머니즘 : 포스트휴먼 시대를 이해하는 237개의 질문들』, 아카넷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2019)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H. G. 웰스·임종기 옮김 (2007) 『타임머신』, 문예출판사

2. 논문

김경순 (2014) 「마르크스주의와 자아소외: 『프랑켄슈타인』 읽기」 『比較文学』 (64) 한국비교문학회
 김선희 (2005) 「사이보그와 개인동일성의 문제 = 컴퓨터와의 융합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가?」 『철학』 (85), 한국철학회
 김옥주 (1992)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이론의 형성과정」 『한국과학사학회지』 14(2), 한국과학사학회
 김옥주 (2000) 「20세기 중엽 소련의 의학사상 파블로프이론과 스탈린주의의 결합

- 」 『한국과학사학회지』 22(2), 한국과학사학회
- 문장수 (2018) 「사이버네틱스의 인식론과 메타-과학적 지위」 『哲学論叢』 94(4), 새한철학회
- 박설호 (2000) 「유토피아, 그 개념과 기능 : 문학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 배서영 「아베 고보의 『제4 간빙기』론 - 비현실 묘사를 통한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84), 대한일어일문학회
- 박소영 (2019)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신체와 문화적 형상화- 사이보그, 트랜스휴먼, 포스트휴먼 그리고 『뉴로맨서』」 『문화와융합』 41(4), 한국문화융합학회
- 서동진 (2020) 「“자연은 변증법의 시금석이다”: 엥겔스의 ‘자연변증법’과 신유물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17(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신상규 (2017)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향상의 생명정치학」 『일본비평』 (17),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오윤희 (2014) 「새로운 인간 종의 탄생과 진화론적 상상력 - 『프랑켄슈타인』 과 <트랜센던스>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0(3), 대중서사학회
- 천현순 (2016) 「포스트휴먼의 원형과 문학적 상상력 - 프랑켄슈타인의 피조물 vs. 호문쿨루스」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문학회
- 추재욱 (2019) 「19세기 영국소설에 나타난 신체해부학 실험에 대한 연구 : 프랑켄슈타인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3), 한국문화융합학회
- 홍성태 (1997) 「사이버 : 사이버네틱스와 사이버공간」 『한국언론정보학보』 (8), 한국언론정보학회

【그 외 문헌】

- Huxley, Aldous, *Brave New World*. Harper Perennial Modern Classics, 2006
- Shelley, Mary, *Frankenstein*. Barnes & Noble Inc, 2022
- Wells, H. G., *The Time Mach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Huxley, Julian, *Transhumanism*, Reprinted January 1968,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8(1)

【사전류】

佐々木毅, 富永健一, 正村公宏, 鶴見俊輔, 中村政則, 木村陽一郎 (2005) 『戦後史大事典1945-2004』, 三省堂; 増補新版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https://www.scienceall.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Abe Kobo's Theory of *Inter Ice Age 4*

- Focused on the Conflicting Aspects Surrounding "New" Humans -

Seo-Young Bae

Department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Inter Ice Age 4*, written by Abe Kobo, which is regarded as Japan's first full-length science fiction novel, from today's post-human perspective. It also examines the various conflicting aspects that appear in the novel and the issues inherent in Japanese society at that time, as revealed through them.

In discussing Abe's literature, the transformation motif is a topic that cannot be left out. His novels, which address the transformation motif,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ose where humans turn into many different forms, as found in folktales or old stories, and those where humans modify themselves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The transformation motif started to appear in the form of human modification by humans and takes on a science-fiction character from *Inventions by No. R62*, which features robotized humans. In the subsequent work, *The Blind Gut*, the author attempted to transform humans into herbivores by transplanting the cecum of a sheep, which is a grass-eating animal, into a human body. Further, in *The Egg of Pb*, a human who transforms himself into a "plant man" appears. Finally, *Inter Ice Age 4* presents a new type of modified humans called

aquatic humans. The aquatic humans that replace existing humans emerge as “new” humans.

The aquatic humans introduced in *Inter Ice Age 4* are beings that have been remodeled using science and technology, surpassing existing humans in terms of physical growth and intelligence. They exhibit the traits of trans-humans, representing a “transitional phase in human evolution.” The novel also features a machine that can predict the future. This machine is similar to today’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of post-humans of post-humanism, providing an opportunity to explain human existence from a new perspective by deconstructing human existence.

In *Inter Ice Age 4*, various scientific materials and knowledge and technologies are being employed in order to create aquatic humans and the prophecy machine. The process of creating aquatic humans aligns with Michurinist biology, as suggested by Soviet biologist Trofim Lysenko, and the process in which aquatic human children are trained appears to be inspired by Ivan Pavlov’s conditioned reflex experiments. While th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s that were actually proposed and researched in the Soviet Union at that time are made use of in the process of creating and nurturing humans, the idea of a prophecy machine is derived from the electronic computing technology of the United States. The competition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phecy machine mirrors the space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t that time. In addition, the protagonist, “I,” who faces restrictions in developing the prophecy machine by the United States, reflects the then diplomatic position of Japan that had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n Abe’s literature, a theme as crucial as the transformation motif is the issue surrounding a variety of “relationships” centered on humans or individuals, and *Inter Ice Age 4*, too, depicts various aspects of relationships revolving around the production and nurturing of aquatic humans. An

organization called the Undersea Development Association in the novel collects aborted fetuses by manipulating vulnerable women into undergoing abortions in exchange for money to create aquatic humans. This reflects the image of the bureaucrats and business circles in Japan that promoted abortion as a countermeasure,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benefits being eroded in the post-war revival following the defeat in the war. In addition, the depiction of an organization that manipulates information and intervenes in individuals' lives or even infringes on their right to live highlights the structure where organizations hold a dominant position over individuals in their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ideological conflicts within the organization between the political and business circles and the researcher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of aquatic humans, they carry out the underwater colony development project, maintaining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is sheds light on the lack of the sense of ethics in the field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research. Furthermore, through the protagonist, "I," who opposes the organization, the novel highlights the problematic act of unilaterally promoting the project and forcing the ideology without multi-faceted discussions and reviews, led by those with power.

Abe introduces a prophecy machine in *Inter Ice Age 4* to illustrate a new aspect of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uter technology. The Undersea Development Association uses the prophecy machine arbitrarily, applying assumed conditions, and unilaterally imposes the outcomes without a feedback process to check and correct the prediction errors. By portraying the association that misuses the prophecy machine as a means to pursue private interests and as a tool to get rid of risks, the novel is also thought to raise the need fo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direction, and methods of technology use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the agent who makes use of technology.

Aquatic humans are placed in a subordinate class that is exploited for labor by existing humans. In the future prophecy,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humans and aquatic humans is reversed; however, only the roles of subject and object change, but the dominant and dominated classes do not disappear and remain as they are. In addition, a structure is formed within the underwater society that restricts and oppresses individual actions in order to solve internal problems. Abe uses the structure that oppresses individuals and controls information to portray both the present, which is a democratic society, and the future, which is a communist society, pointing out the existence of power that oppresses and utilizes relatively weaker individuals to achieve specific goals,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ystem.

By depicting various conflict aspects centered around the “new” humans, that is, the aquatic humans, in *Inter Ice Age 4*, Abe Kobo sheds light on not onl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revolving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Japan’s position at that time, but also the issues within Japanese society. The author also presents a scenario in the novel as an example of what could happen when technology is used not to change the external world but to insist on a passive change that only transforms humans. He also portrays a dystopian future underwater society to demonstrate the potential future that humans can face when a development or advance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if there is any, is used by the wrong agent in the wrong direction with wrong methods.